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Sustainability Report 9th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의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경기도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함께
28개 시·군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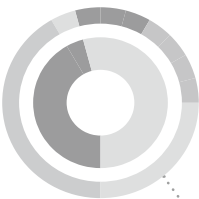
국제NGO인 Global Footprint Network(GFN, 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Green Map(세계그린맵운동)과
국제기구인 ICLEI(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치단체국제협의회),
United Nation Global Compact(UNGC, 유엔글로벌컴팩트)의 공식 협력 기관입니다.

이 책은 환경과 나무 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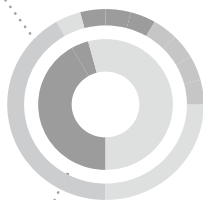
본문용지는 사용 후 고지 60퍼센트인 재생종이 E라이트 80그램이며,

표지용지는 사용 전 고지 55퍼센트 매직콤마 220그램 재생지로 염소계 표백제와 형광염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눈여겨 볼만한 성과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경기도 적용방안을 모색하다.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추진과제를 발굴하다.



거버넌스를 통한 경기도 환경문제의 해결,
경기환경포럼을 출범하다.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경기도 적용방안을 모색하다.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매우 의미 있는 목표가 채택되었습니다. 2015년~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입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어떻게 적용해나갈지, 지방의제21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만남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는 2016년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 결과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함께할 공동추진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고민들을 바탕으로 2017년은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와 제4차 경기의제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유기적 연계 체계마련을 통한 경기도 지속가능성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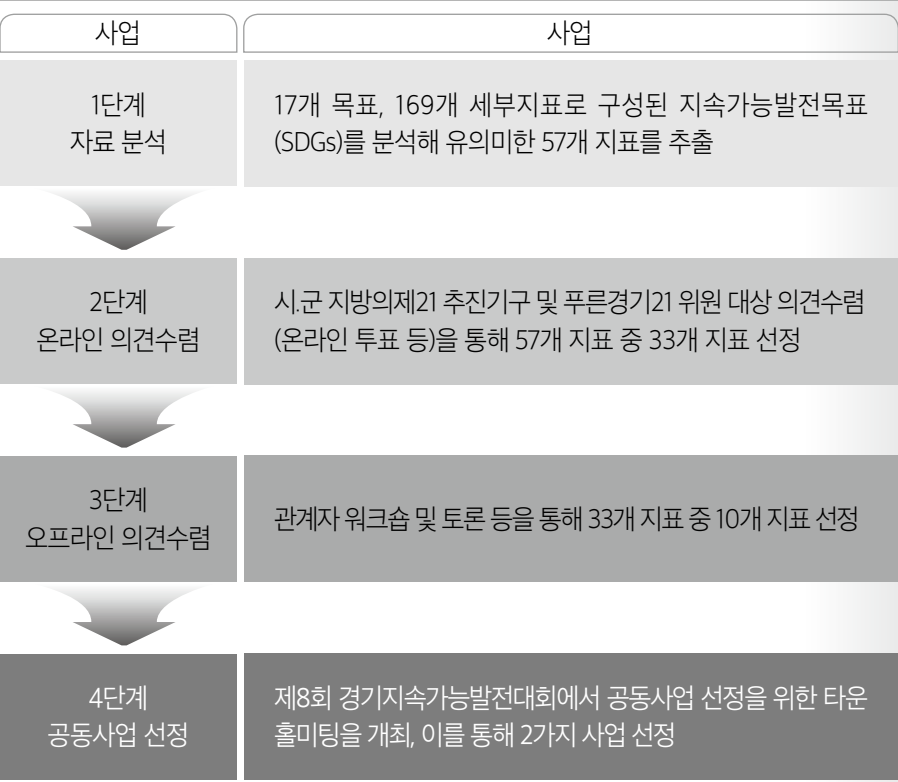
1 빈곤종식 	2 기아해결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8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9 산업, 혁신과 인프라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15 육상생태계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추진과제를 발굴하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등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고,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간 협력의 밀도를 더욱 높여나가고자 공동추진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그에 따른 169개 세부지표들을 분석하고 시·군 지방의제21 추진 기구와 위원 대상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타운홀 미팅의 결과로 2가지 사업(도시농부학교, 어린이집 먹을거리 교육)을 선정, 2017년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추진 과제 선정과정



거버넌스를 통한 경기도 환경문제의 해결, 경기환경포럼을 출범하다.

소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의회, 여성, 시민단체, 학계 등 각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경기도의 환경 거버넌스, 경기환경포럼을 출범 했습니다. 광역단위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포럼인 경기환경포럼은 6개 분과(물, 기후에너지, 생활환경, 녹색소비, 자연생태, 환경교육)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푸른경기21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환경포럼은 2016년 4월15일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개최된 창립포럼을 시작으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담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시민 모니터링 ▲지역별 깃대종 선정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이 가능한 녹색소비 촉진 ▲도민의 건강에 밀접한 유해화학물질과 대기질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지역하천 복원과 안전한 식수공급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분과체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정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환경포럼은 거버넌스에 기초해 경기도 환경문제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포럼 6개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모습



보고서 개요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 보고서, 무엇을 어떻게 담았나?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조직운영과 사업성과를 ISO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과)과 GRI G4(Global Reporting Initiative 4차 지침) 지속가능경영 지침, NPO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 라인을 고려하여 비영리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한 연간 활동 보고서입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98년에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로서 조직의 제반 활동과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성'과 '지속가능성' 을 반영하고자 매년 사회적 책임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16년도 보고서는 NPO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추가하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 보고서』로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9번째 발간)

본 보고서의 특징

- 보고기간 보고기간은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보고범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고범위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전체 사업 및 조직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고주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매년 총회를 기점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보고기준 ISO 26000, GRI G4, NPO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년 단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성특징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연간 사업 보고 및 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를 함께 수록한 통합보고서입니다.
- 추가정보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 www.ggag21.or.kr이나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_경기도 수원시 효원로1 경기도청 제2별관 206호
TEL : 031-8008-4248 / FAX : 031-8228-4249 / E-mail : ggag@hanmail.net

 GRI 기반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적용레벨'시스템에 근거하여 보고자가 스스로 GRI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보고 정도를 측정하고'보고서 레벨'을 자체 선언해야 합니다. 이번'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보고 프레임워크의 레벨 B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BSR · GRI G4

2016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 G4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과
BSR 지속가능보고 지표,
NPO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09년부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지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비영리공익단체**로서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 조직 운영과 활동**에
이러한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성찰적인 자세로 겸허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항목	BSR지표	해당 보고서 페이지	관련 G4지표
현황소개	A1	22	1
	A2	-	-
	A3	22	1
	A4	23	4
	A5	24	7
	A6	-	-
	A7	-	-
	A8	42	7
	A9	-	-
	A10	-	-
	A11	37	16
보고서 내용	B1	10	30
	B2	10	30
	B3	10	28
	B4	-	-
	B5	-	-
	B6	10	30
	B7	10	33
	B8	-	-
	B9	10	31
	B10	11	
이해관계자 참여	C1	37	24
	C2	37	24
	C3	37	24
지속가능성	D1	22-23	14
	D2	40	-
	D3	23	4
지역사회	C01	38	34
	C02	42	7
	C03	54	35
	C04	85-	27
	C05	-	-
	C06	-	-
	C07	-	-
	C08	-	-
	C09	-	-

푸른경기21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경기환경포럼



- 환경교육분과
- 자연생태분과
- 녹색소비분과
- 생활환경분과
- 기후/에너지분과
- 물분과

－ 민·관·학 소통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



기후변화대응사업

- 기후변화교육센터
- 경기 기후환경네트워크
- 그린캠퍼스만들기

- － 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 그린캠퍼스운동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 －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의 허브 구축

기후행동21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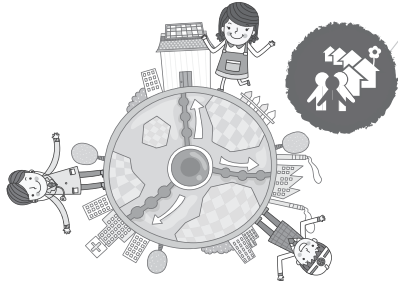
기후행동시민·커뮤니티·파트너십확산을통한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삶의질위원회

공간접근성·일자리형평성·시민참여율제고와
삶의질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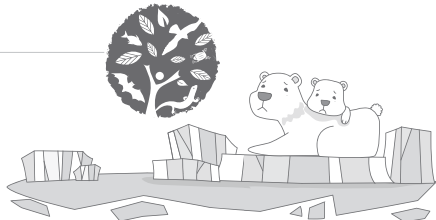
마을의제위원회

다양한주민들의주체적
참여를통한마을의제작성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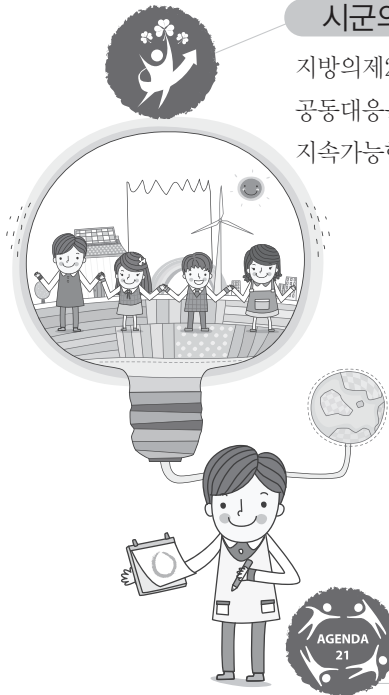
생물다양성위원회

생물다양성보호인식증진과
민·관실천활동의확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지방의제21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기도 구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국제사회와의지속가능발전
교류협력확대를통한
도시지속가능성제고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전략적지표관리를통한
지속가능한사회형성

지속가능발전교육확대

- 자원순환마을
- 우리동네그린맵
- 도시대학
- 적정기술 보급사업

-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생태마을만들기운동
- － 그린맵작성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 － 지역주민과 함께한 마을만들기
- － 적정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공동체 운동 견인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지속가능한지역먹거리체계및
사회적경제체계구축





004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눈여겨 볼 만한 성과
008	보고서 개요
009	BSR, GRI 기준표
010	푸른경기21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
014	공동회장 인사말
016	파트너 메시지

CHAPTER 0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소개

022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소개
023	비전, 추진전략, 실천원칙
024	조직구성
025	파트너십
038	미디어분석을 통해 본 2016년 핵심성과
040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걸어온 길
042	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조례

CHAPTER 02

정기총회 회무 자료

2016년 사업보고회 개요	
045	총회준비위원회 활동보고
046	2016 사업보고회 개요
047	2016 사업보고회 수상자

회무심의	
049	2016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051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감사보고
054	2016 회계결산보고
060	회칙개정안
061	2017 사업계획(안)
082	2017 사업예산(안)

CHAPTER 03

2016년 사업 총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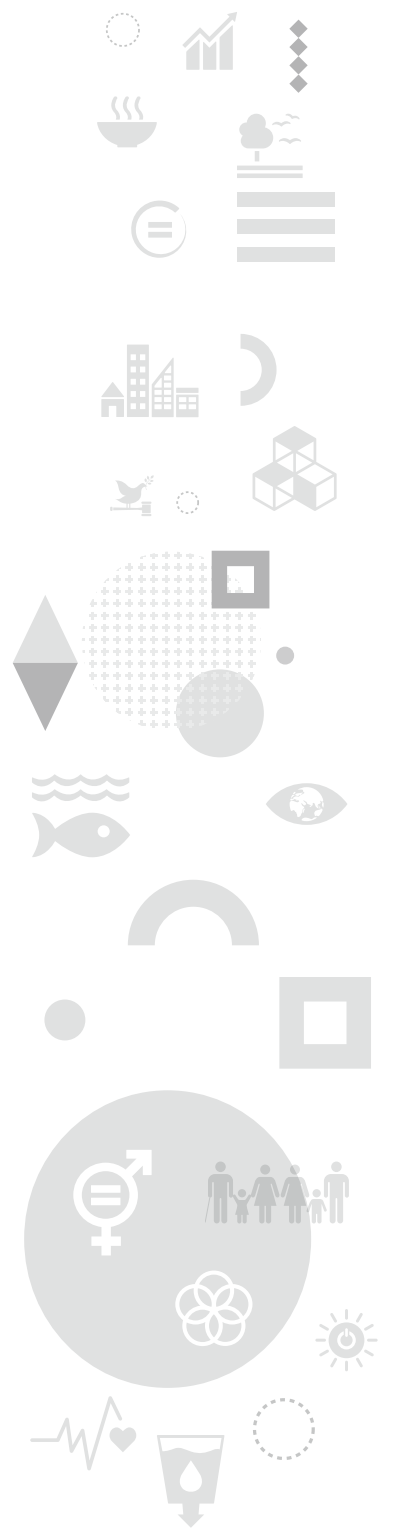
086	위원회 사업보고
112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우리동네그린맵 113 / 도시대학 118 / 적정기술보급사업 120 경기환경포럼 124 /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126
128	환경현안 실천사업 환경보전실천운동 128 / 남한강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129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130
134	기후변화대응 사업 경기도 그린캠퍼스만들기 135 /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6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158 /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 169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175
177	교류협력 사업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178 / 태국 매솿의 미얀마 난민어린이 교육지원 180 경기도그린리더한마당 182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183

CHAPTER 04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

187	재정운영의 건전성
187	윤리적 조직 운영
188	인권, 노동, 소통
189	환경보호

부록	
192	신규위원 지방의제21 소개자료
198	2016 발행물 리스트
200	지속가능발전법
205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21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영문보고서 한글 번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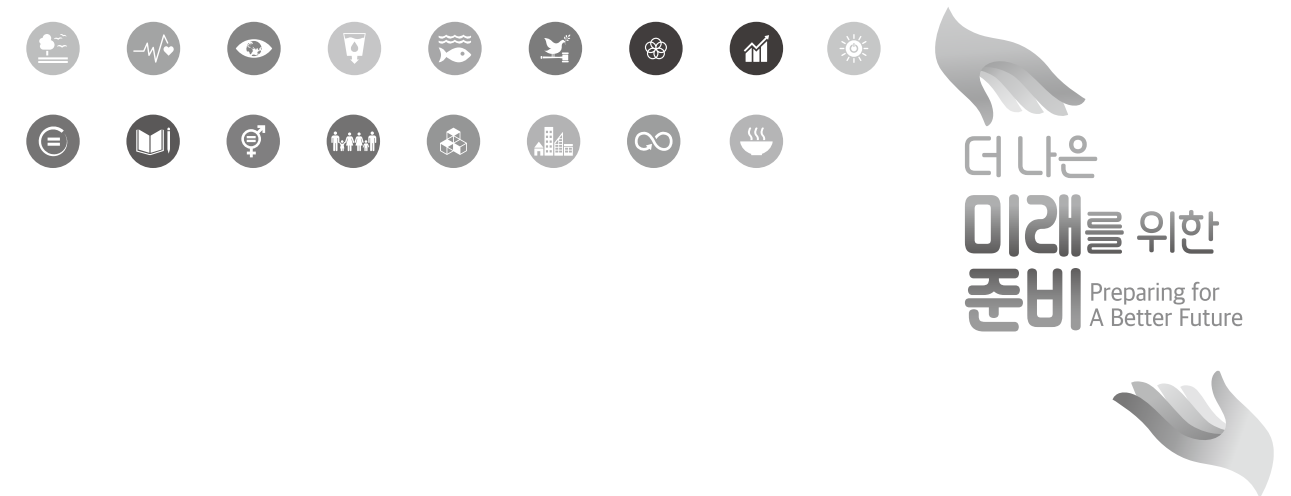


공동회장 인사말

정유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도 한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겨울은 겨울 다와야 하고 추울수록 따뜻한 봄을 그리게 되며 또한 봄은 언제나처럼 찾아옵니다.

1998년 9월 4일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대회가 열렸고 그 이듬해인 1999년 6월 3일 “푸른경기21”이 확정발표 되면서 이후 올해까지 19년간 열심히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푸른경기21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 현안들을 위해 경기환경포럼을 광역 최초로 구성하여 많은 유의미한 정책을 제안하였고 그중 일부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계속 추진하였던 “우리동네 그린맵” “도시대학” “적정기술 박람회”등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를 평택에서 성공리에 개최 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 올해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서 “도시농부학교”와 “바른 먹거리 교육”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시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태국 매솟의 난민학교 지원 사업도 수년째 추진하여 난민에게 교육을 통한 기회부여로 빈곤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민·관·학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이 더 향상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지난 2015년 9월 25일 UN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의 합의와 같은 해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합의된 신 기후체제는 근대 국가 이후로 UN에서 결의된 어떠한 결의안보다도 진일보한 내용과 각국의 열망을 담은 합의문이며 온 세계의 주목을 받은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국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온 지방의제21은 이제 그 이름도 통일하고 공동의 사업을 추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약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올해 협의회는 주요한 사업은 “경기도형 SDGs 이행방안 수립”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게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크게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일을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3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공동회장 일동

파트너 메시지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미래는 녹색소비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녹색은 이제는 아닌 것도 확실하다. 녹색 소비를 통하여 소비자의 변화와 기업,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것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녹색 소비의 활성화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저성장·저출산의 시대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며, 소비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녹색정책의 도입과 실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녹색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기업, 시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 중심에서 탈피하고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7년도에도 녹색소비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더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녹색사회의 시작은 소비에서 만들어짐을 잊지 말자.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어린 학생들은 학원,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헬조선>, 우리 시대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우리 사회 전반을 농락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을 농단한 세력들을 처벌하고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경기지역은 27개의 시군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오보로 <기레기>소리를 들었던 언론들이 나서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 역시 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의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의 의제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가로 경기의제의 활동가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정기총회를 통해 서로의 연대를 도모하고 새로운 의제를 공유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받기를 원하며 동반자로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학래

안산시 원곡본동
좋은마을만들기 위원장



지난해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올지 사뭇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이라고 치부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가 대안 없이 자연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한데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에게 생활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풍요롭고 윤택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서로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태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술 마시는 혼술,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 어쩔 우리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말로 공동체 복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주도적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고 선도 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활동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는 것 못지않게 진행 과정 또한 중요 합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얼마나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모든 위원은 갖은 역량을 다해 왔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이 더 행복하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017년에도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내가 먼저 따뜻한 이웃이 되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신명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인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지난 푸른경기21 시·군협력위원회 8기~9기 위원장을 맡았던 김인구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에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 31개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처장님과 실무자, 모든 위원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경기21은 도내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기초의제·행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대의 거버넌스 기구로써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활동할 제10기 위원분들과 함께 지방의제21을 추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의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7년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소현



경기도그린캠퍼스
대학생협의회 회장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환경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시작하게 된 그린캠퍼스로 인해 그린플로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환경문제와 그에 대한 실천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배우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은 저에게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모두가 스펙 쌓기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 순간의 실천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제 주변부터 천천히 그리고 올바르게 바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캠퍼스를 실천하는 경기도 대학생들이 더욱 더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를 만들 수 있게,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지원해주시는 경기도 그린캠퍼스 협의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우선 매년 새롭고 실천력 높은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견인하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노고와 성과에 박수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 유엔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 등에 관해 범지구적 행동을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합의문”을 채택하고, 지구촌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실천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활동은 지방자치 차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 유엔의 의제들을 시의적절하게 현실화해왔다고 여겨 집니다. 2017년 역시 유엔의 전 지구적 메시지를 전제로 삼아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더욱 가열하게 추진하고 이행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의제들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푸른 경기21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과 실천이 어우러진 실천단위가 다양하게 활성화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협력적 소통의 장, 생명력을 갖춘 교류의 문화가 심화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문가 중심의 협소함을 벗어나 현장과 시민 중심의 논의를 이끄는 주체로 더욱 발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기후환경네트워크>의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협력관계를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정기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나무



ESP아시아사무소 소장

올해 DMZ 민통선지역이 예년같지않게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이지역 가뭄 현상이 우려됩니다. 기후변화 탓일까요? 매년 날아오는 겨울철 기러기와 두루미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올 겨울은 유례없는 조류독감 (A) 확산으로 조류에겐 사상 최악의 잔혹한 정월인듯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과학적 데이터와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메르스사태나 조류독감처럼 대응미숙으로 잔인한 희생을 치루게되면,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취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후변화나 지진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도 있지만 인간의 오만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겨울, 생태계서비스라는 말을 다시 새겨봅니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자연과 연계되어있는지, 왜 자연과 상생해야하는지 인간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개념입니다. 작은 생태계가 몇 억달러의 가치가 있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막아 주는 숲이 소중한고, 쓸모없이 보이던 습지가 아이들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생태계서비스가 보전되어야 인간이 “인간다운” 생태복지를 누릴 수 있습 니다. 생태계가 순환되어야 인간사회도 나아진다는 것을 4대강을 통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주관한 DMZ일원 두루미위크숍에 참석했습니다. 물리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철새 경로상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주민의 정착비율이 특히 높은 경기도는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참여자들의 열정과 지속적인 노력이 DMZ일원 생태적·사회적 단절성을 연결하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유년 닳은 여명을 알리는 상서로운 새이며 오덕(五德)을 가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올해 생태계서비스 자연자원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하시고, 생태복지를 실현하는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 건



경기도 환경국 국장

경기도 지역은 국내 여타 지역과 달리 아직도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의 현장에서 '자연과 보존'은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제
에 밀려날 수 밖에 없었고 정책적 관심과 예산도 지원받기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오늘 지불하지 않은 비용은 언젠가는 지불되어야 하고, 그 비용은
세대를 넘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 서울의 인구가 지난 36년간 800만에서 1,000만으로 25% 남짓 증가(전국인구는 3,800만
에서 5,200만으로 37% 남짓 증가)할 때 경기도의 인구는 390만에서 1270만으로 225%나
증가하였고, 세계의 평균기온이 지난 40년간 0.85도 남짓 오를 때 우리나라는 1.8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3.4도(수원은 5도)가 증가하였다.*

서울은 도시화와 개발중심의 성장이 멈추었지만, 아직도 경기지역은 여타지역의 2.8배의
속도로 빠른 도시화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경기도의 환경과
보존가능한 가치들이 그나마 지켜지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올 한해 더욱 노력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의미있는 변화
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CHAPTER 0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소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소개

비전, 추진전략, 실천원칙

조직구성

파트너십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걸어온 길

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조례

미디어분석을 통해 본 2016년 핵심성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소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년)의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를 기초로 설치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1998년 9월 4일부터 경기도청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를 선정하여 이를 위한 실천사업 및 모니터링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사명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조례 제1조 (목적) 경기도조례 제2943호(‘99.10.25)

실천원칙

보다 협력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보다 성인지적으로!

실천의제

5대 주요 경기의제 _생물다양성, 기후행동21, 녹색사회경제, 삶의 질, 마을
3대 특별의제 _지속가능성평가, 국제교류협력, 시군의제2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기능

1. '경기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추진
2. '경기의제21'을 실천함에 있어 주민·기업체·민간단체·각급 행정기관의 참여 유도
3. '경기의제21'의 실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경기의제21' 실천사업 추진 및 평가
5. '경기의제21'의 실천과 관련된 경기도의 제반 정책 점검 및 새로운 대안 제안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이행에 협조체계 구축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추진
8.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전개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제3조 >

주요특징

민주적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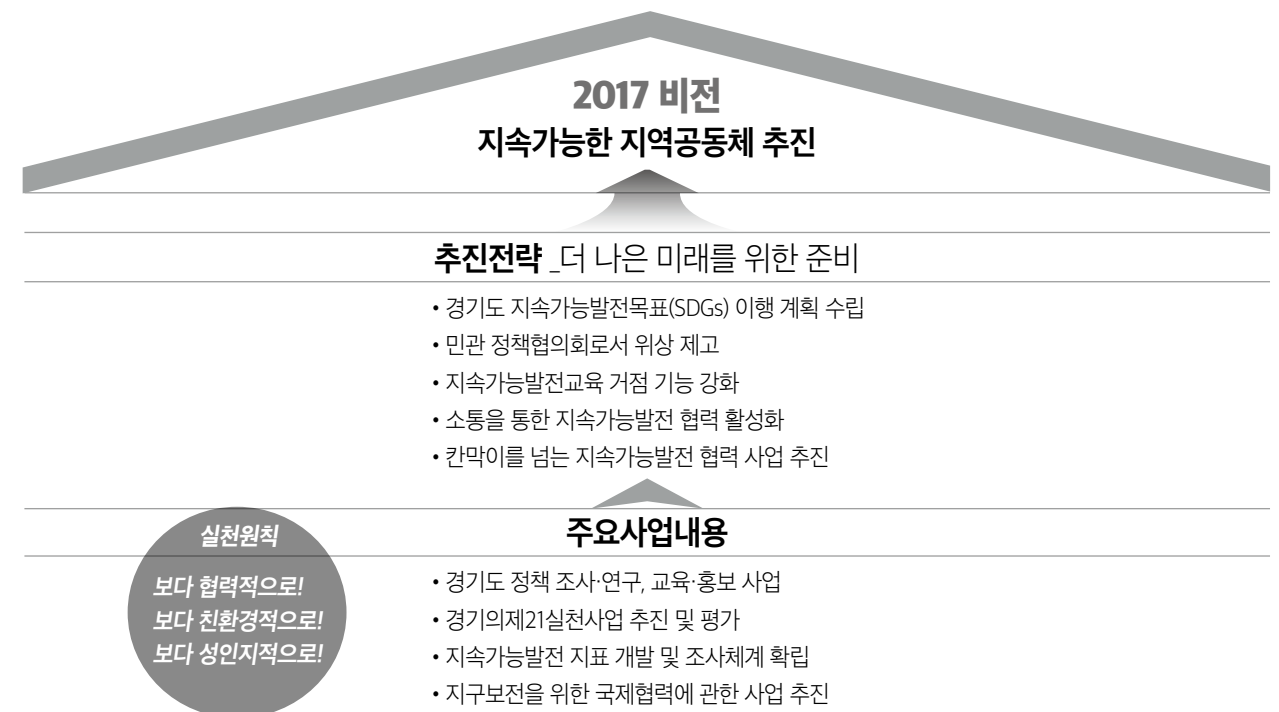
『푸른경기21』은 경기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토론과 합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입니다.

지역적 행동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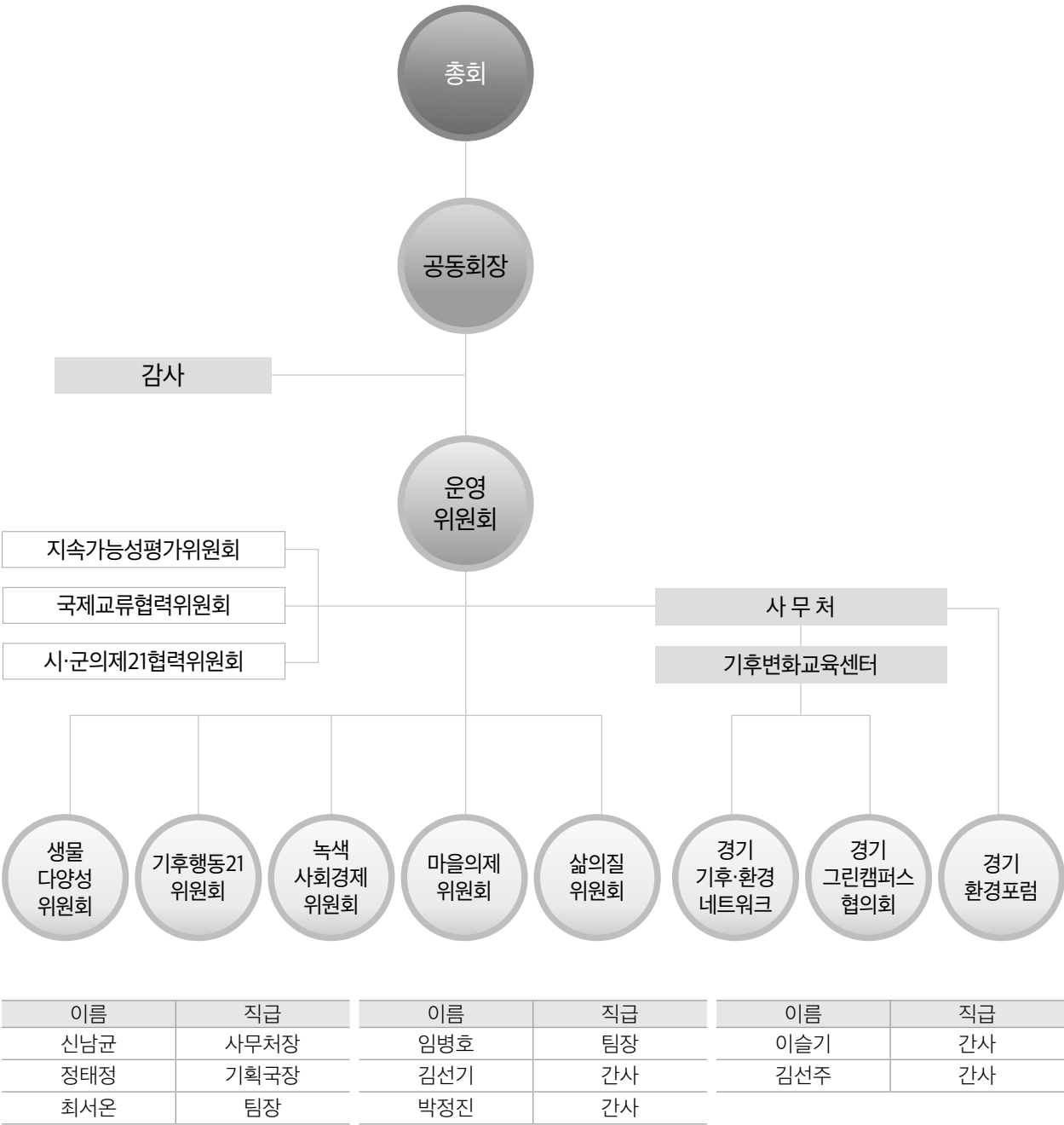
『푸른경기21』은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한 경기도의 지방의제(Agenda)로서 단순한 보고서가 아닌 경기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행동·실천계획입니다.

참여자치운동

『푸른경기21』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자치 운동이고, 사회개혁 운동입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조직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임원 -공동회장단 및 감사, 운영위원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임원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제7조 (임원)』에 의거 각계를 대표하는 공동회장단과 감사, 운영 위원회에서 호선되는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공동회장단은 의제의 동반자 정신을 살려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여성을, 경기도 담당 부지사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위촉되게 됩니다. 공동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매 기수는 임기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회장단 후보 추천



강관석 공동회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신부
• 수원 나눔의 집 원장
• 수원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신림청소년쉼터 소장



강득구 공동회장
경기도연정부지사
• 제9대 경기도의회 의장
•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 경기도립도서관 운영위원장
• (사)한국청소년재단 이사



문태훈 공동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 제15대 한국지역개발학회장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장
• 뉴욕주립대 행정학 박사



최순영 공동회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
• 제17대 국회의원
• 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전)
• 부천 YWCA 이사(전)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자문위원(전)

감사 후보 추천



유문종 감사
수원마르네네상스센터 센터장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2017년은 위원회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해로,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구성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정기총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정기총회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제6조 (총회)』에 의거 연1회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보고, 4.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의 주요업무 처리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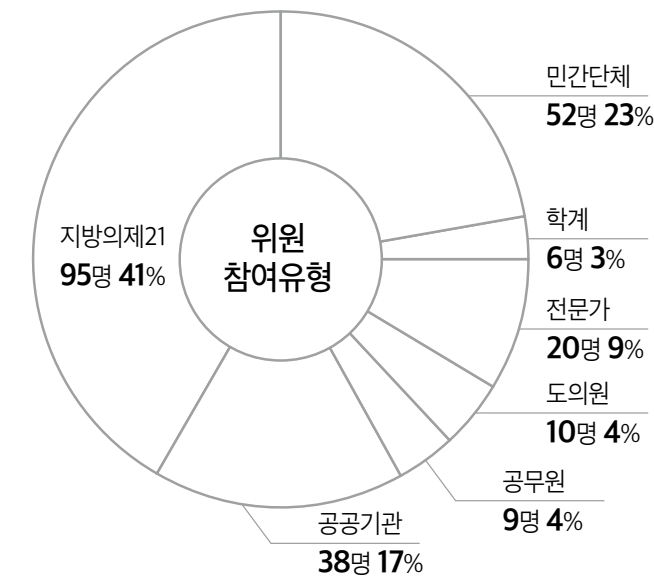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제10조 (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20명 내·외로 구성(8개 위원회 위원장, 경기지역 시·군의제21 추진기구 권역간사, 행정, 학계, 경기도의회, 시민사회 영역 등)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10기(2017~2018)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사업 방향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진행되며, 예산소위원회, 총회준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소위원회 활동도 필요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제10기 위원 구성 및 현황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위원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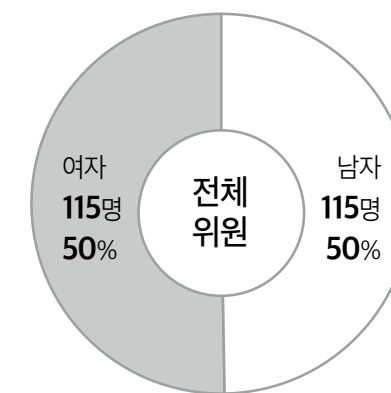


제10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8개 위원회, 총 2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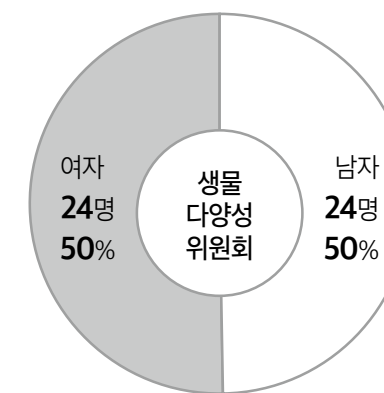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광역 - 시·군 간 원활한 소통과
사업의 지역확산을 위해 시·군 지방의제21 위원을 추천
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으로 인
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추천을
통해 추가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내 협의를 통해 활동임기 내 위원 추가위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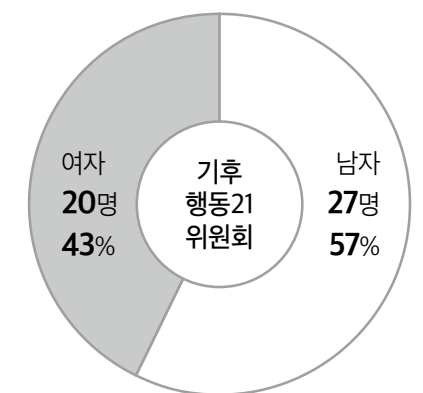
5개 위원회 남녀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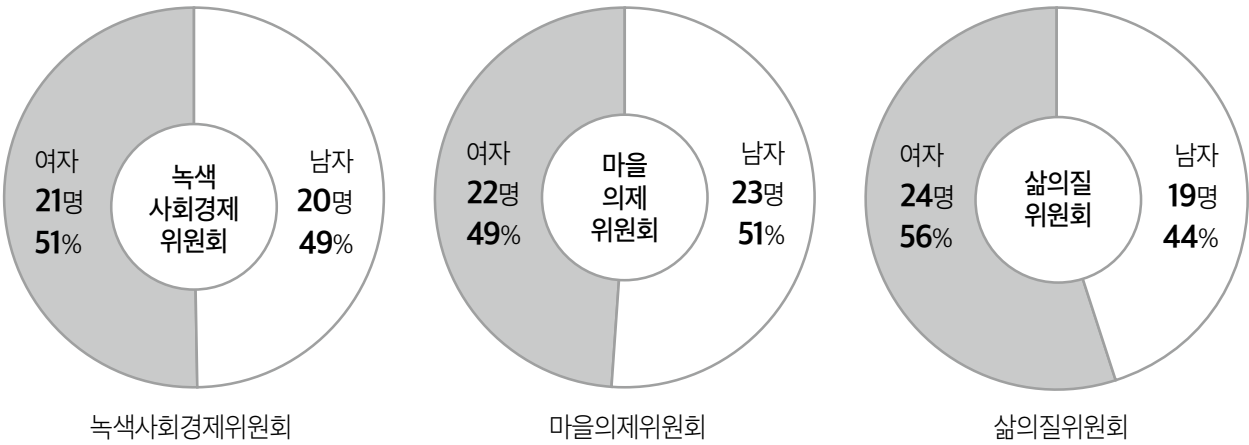
전체위원 230명



생물다양성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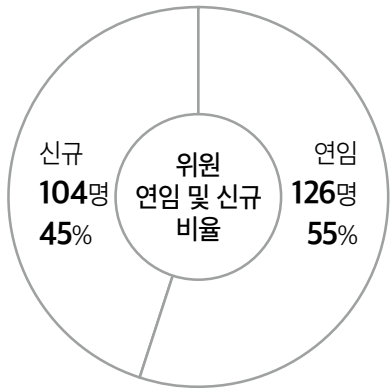


기후행동21위원회



10기 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남녀 구성비율이 50%씩으로 전년도 총회 보고자료에서 밝힌 제9기 위원 남녀구성비율(남성 58% / 여성42%)과 비교했을 시 여성위원 비율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사무처 차원의 약속을 실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위원 연임 및 신규 비율



제10기 위원 230명 중 기존 9기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126명, 새로이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신규위원은 104명으로 기존 활동의 연속성도 보장되는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제10기 위원명단

*10기 위원의 임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입니다.

생물다양성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성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구분주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3	권해정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과장
4	김경도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기획이사
5	김계성	DMZ생태연구소 전문위원
6	김미라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위원
7	김미옥	안산의제21실천협의회 자연생태분과위원
8	김선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분과총무
9	김은아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생태환경위원장
10	김은옥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1	김인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2	김재현	국립수목원 연구원
13	남궁형	한국생태연구소 대표
14	도윤석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5	류현상	수원시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관장
16	박선미	시화호생명지킴이 사무국장
17	박숙희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분과위원회 총무
18	박은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9	박종선	인포보스 대표이사
20	백승광	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공동대표
21	서경옥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22	서정화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대표
23	손채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소장
24	송점심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적위원회 총무
25	유영란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6	윤중덕	(사)즐거운발견 문화학교협동조합 이사
27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
28	이금순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29	이기섭	서울동물원 원장
30	이명호	의정부고등학교 교장
31	이미정	판교청소년수련관 생태안내자 모임 ‘하늘두리’ 고문
32	이용기	푸른의왕환경학교 사업단장

생물다양성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33	이유현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간사
34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35	이풍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36	이희옥	동네 작은 산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
37	이희정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38	전선희	DMZ생태연구가
39	전승숙	경기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 장학사
40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41	정선자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위원
42	정진근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시민복지분과장
43	한영식	곤충생태교육연구소 소장
44	김남영	국립생태원 연구원
45	고광갑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46	복승규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47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 과장
48	김지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희석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고대현	시흥에코센터기획운영팀장
3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4	김낙경	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5	김덕훈	자전거시민학교 대표
6	김동현	판교생태학습원 사무국장
7	김미경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단총무
8	김미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9	김선영	화성시에코센터 국장
10	김웅진	협성대학교 교수
11	김유신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감사
12	남기웅	경기도에너지센터 센터장
13	백승희	한강생태학습장 팀장
14	손미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
15	신종희	수원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
16	심경이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그린스타트 팀장
17	안명균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실행위원장
18	양경혜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간사
19	여민욱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20	오윤석	수원청소년문화센터사원
21	유미화	안산친환경상품지원센터 센터장
22	유창희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23	이경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24	이미숙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 생태분과 위원
25	이미순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6	이민영	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7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관장
28	이성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9	이우천	군포YMCA 사무국장
30	이은숙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1	이한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32	임근송	세창환경 대표
33	임영희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4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35	정윤준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6	조건희	녹색김포실천협의회 팀장
37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38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9	천석현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40	최성욱	한탄강지킴이운동본부 사무국장
41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42	황선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생태환경위원회 총무
43	황인혜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간사
44	김현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45	천동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46	박승삼	경기도 기후대기과 과장
47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 과장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동훈	경기농림진흥재단농식품유통사업부 과장
2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
3	경창수	안산의료생협 이사장
4	구명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해설사
5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6	김남신	장자호수생태체험관 환경해설가
7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8	김덕희	김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9	김병조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0	김지연	수원시급식지원센터 센터장
11	김찬수	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원 원장
12	박관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
13	박미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조직지원 실장
14	박영재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상임대표
15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6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7	박희진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18	백종수	농업인신문 편집국장
19	윤선희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20	이강수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
21	이복자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22	이승엽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사무처장
23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24	이원석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25	이형욱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
26	임성아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차장
27	전미경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
28	정금희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업경제분과위원장
29	정명주	바른밥상문화원 회원
30	정혜숙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1	조상현	수도권생태유아공동동체 친환경급식국 부장
32	최민경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 실장
33	최복희	안양도시농업연구회
34	최장수	김포로컬푸드직매장 대표
35	최현수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
36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37	홍승미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38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대표이사
39	황정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위원
40	염동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41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 과장

마을의제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정미	상록수협동조합 이사
2	권보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김 국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4	김도근	화성엑코센터 센터장
5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	김선영	강남대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원
8	김선직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9	김영욱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위원
10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11	김정희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2	김종동	부천마을넷 위원
13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14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5	나도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자연생태분과 위원장
16	문명녀	수원가족지원센터 센터장
17	박미원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마을사무장
18	박선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9	박연희	만들협동조합 이사장
20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1	서종훈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
22	송준호	수원희망교육시민 포럼 상임대표
23	심결중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4	오강임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단 협력관
25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6	원민옥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도시분과위원
27	유명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8	윤동선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9	윤명숙	셋별작은도서관 관장
30	이근희	따복공동체TF 위원
31	이금숙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회환경분과 위원
32	이윤희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적위원회 총무
33	이정숙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장
34	이판도	S&C음악문화연구소 소장
35	임종석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6	정선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37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38	정종모	파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고문
39	최오진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실장
40	최용선	수원KYC 대표
41	최준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2	황선이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43	황정주	마을공동체 문화 숲 대표
44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단장
45	김영협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삶의질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혜숙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장
2	김광원	수원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3	김규리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
4	김성숙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5	김정옥	고양시의제21협의회 녹색생활분과 위원장
6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7	류명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시민감시위원장
8	박상희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9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 소장
10	박일규	농실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1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12	방세환	너른고을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자문위원
13	서성연	고양시의제21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장
14	손병락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문화분과위원장
15	손주영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부장
16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17	안기희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18	유명은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
19	윤인옥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20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1	이완우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2	이정희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23	이종현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장
24	인미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
25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6	장경숙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의제위원회 위원
27	정운란	고양시의제21협의회 전 상임회장
28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29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소장
30	주영훈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
31	지희자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도시환경분과 위원
32	차정숙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33	최 령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소장
34	최명진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청소년 교육위원회 위원
35	한대구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36	허영재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37	유도현	경기도 자치행정과 과장
38	최문환	경기도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39	윤택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
40	배수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41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42	양근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43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타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은 3인의 연임위원만 표기.
5개 위원회 구성 완료 후 위원회 추천 및 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예정.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고 관	안산환경재단 전략기획실장
2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3	한순금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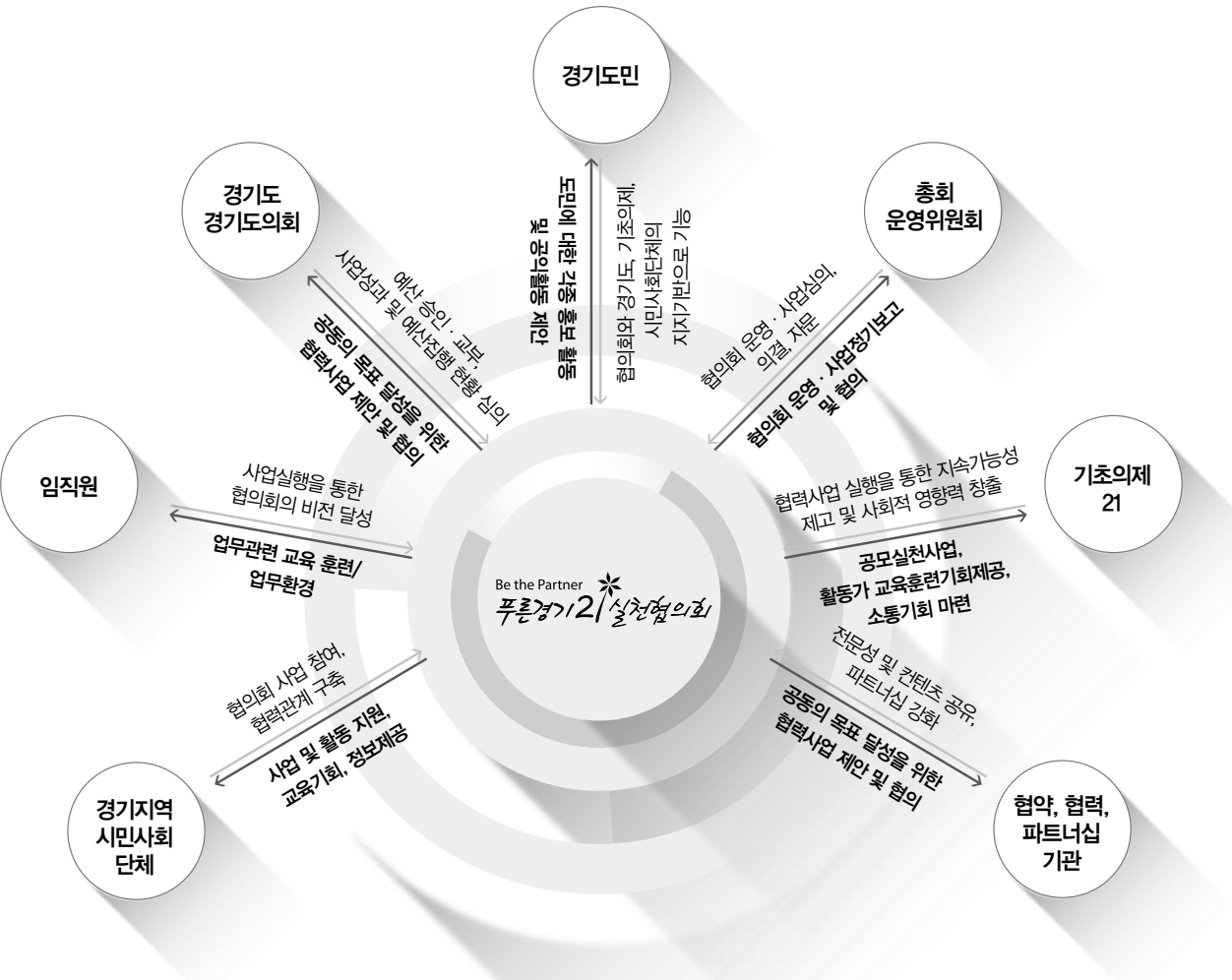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향후 관련 영역 전문가 추가 위촉 예정.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차명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2	정운란	한국민속문화협회 회장
3	조선미	소년정책연구소 소장
4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6	심현민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사무국장
7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8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석환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	강성주	하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3	강희석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4	권보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5	김동균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6	김두만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7	김선희	남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8	김우현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9	김인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0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1	김현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2	남길현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3	도윤석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4	박선근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5	박정민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6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17	박희경	깨끗하고살기좋은안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8	심결중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19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0	윤동선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1	이민영	연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2	이성주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3	임종석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24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5	정윤주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26	허기용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27	미정	고양시의제21협의회 사무국장
28	미정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파트너십 체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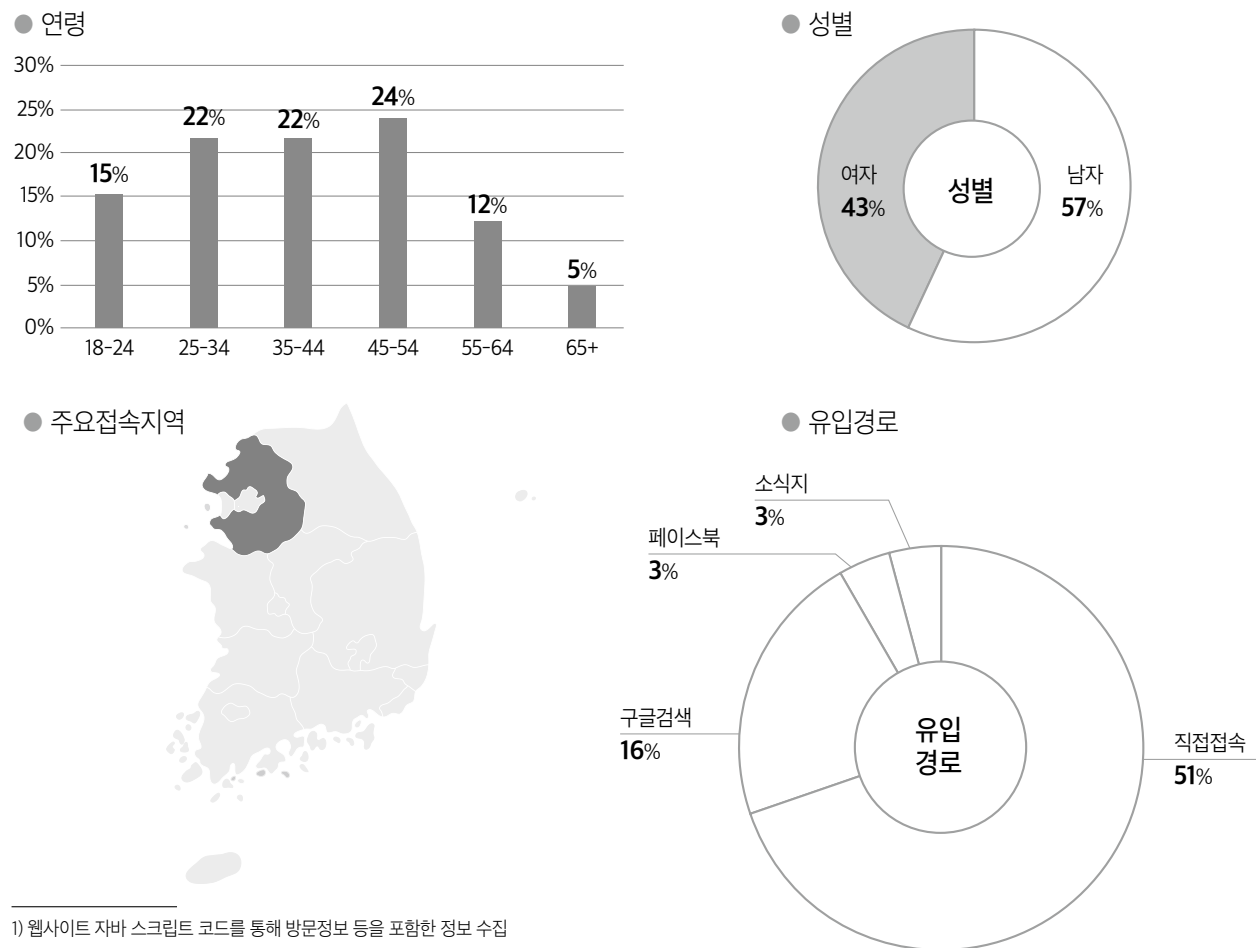


미디어 분석을 통해 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다양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홍보창구로 홈페이지와 격주로 발간되는 이메일 소식지,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미디어 분석을 통해 관계자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관계자들은 푸른경기21의 어떤 활동들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분석방법 : 구글 웹로그 분석¹⁾ 및 메일발송 결과²⁾

홈페이지를 통한 관계자와의 소통



1) 웹사이트 자바 스크립트 코드를 통해 방문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 수집
2) 전문 이메일마케팅 서비스(오즈메일러, 스티비)를 이용하여 발송 및 분석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관계자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푸른경기21 소식지와 페이스북을 연동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구글 웹로그 분석을 통해보자면, 홈페이지의 경우 가장 많이 접속한 연령대는 45~54세, 여성보다는 남성의 접속률이 높았으며, 접속지역은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방문률을 보였습니다. 접속 경로는 직접 접속이 가장 높았으며, 구글 검색, 페이스북, 소식지 클릭을 통한 접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푸른경기21 홈페이지는 주요 활동들에 대한 안내 및 결과를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의 양은 15년도 166건에서 18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189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해보면 ‘위원회 및 기획사업 소식안내’는 68건, ‘활동 결과 공유’는 16건,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소식 안내’는 105건으로 푸른경기21 활동 결과 공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른경기21 홈페이지는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안내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정리 및 이에 대한 게시의 역할에 2017년 더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콘텐츠들은 2016 푸른경기21 공모사업, 2016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대학,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 토론회,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DMZ일원 두루미 보호루트 워크숍, 2016 그린리더 한마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메일 소식지를 통한 관계자와의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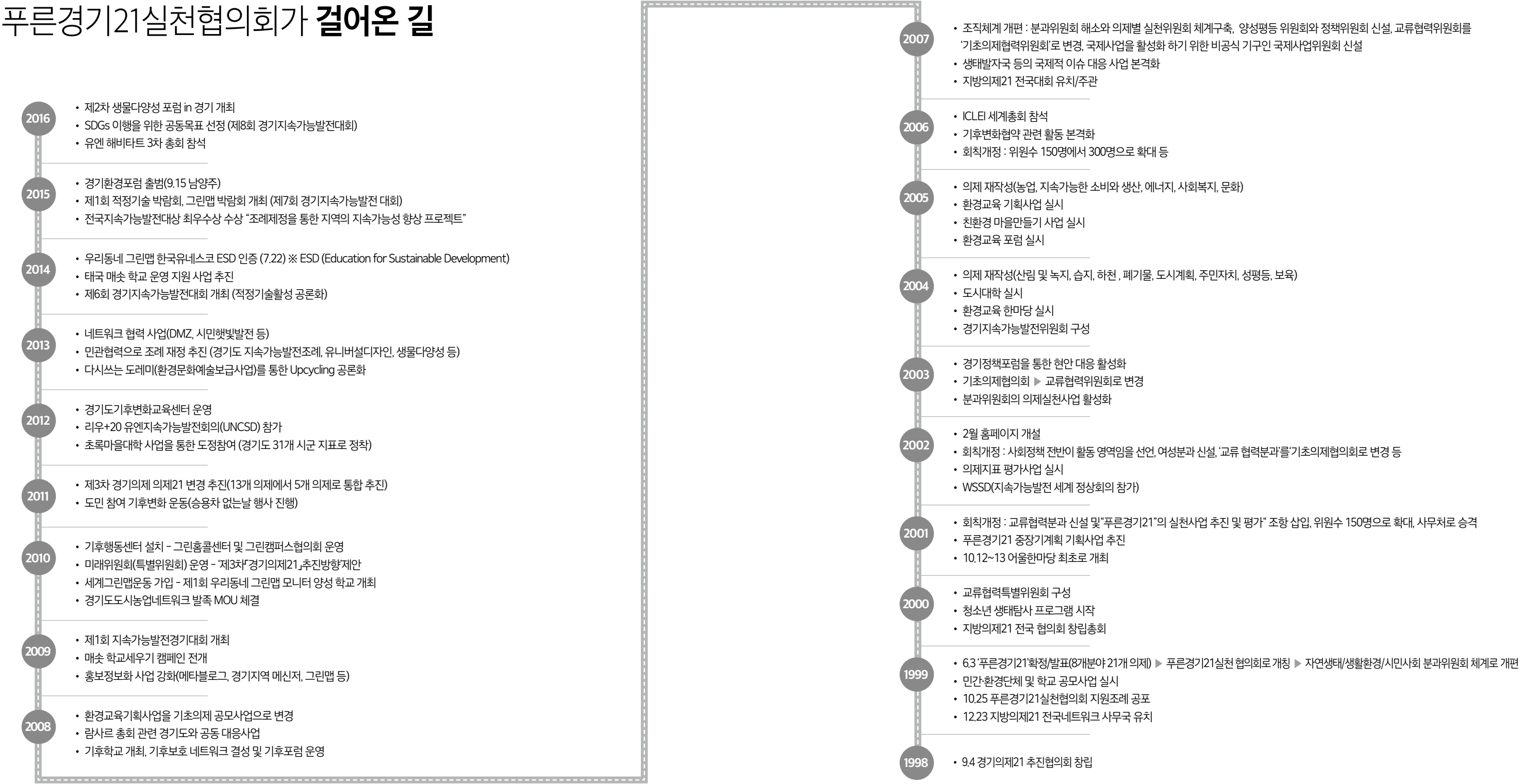
소식지 콘텐츠 구성	콘텐츠 내용
푸른경기21 이야기, 소식	위원회 및 기획사업 안내 및 활동 보고
경기지역 시,군의제21 소식	경기지역 시,군의제21 소식 안내
경기지역 시,군의제 좋은 사람들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신규 실무자 소개
e-환경뉴스	주요 환경 소식 안내
지속가능발전, 동향과 이슈	지속가능발전관련 세계 동향 안내

- 총 구독자 : 3,548명 - 발송주기 : 격주 월 2회 발송 (총 24회 발송)
- 평균 오픈율 : 17.4% / 오픈율 : (오픈한 수신자 수 / 발송 성공한 수신자 수) x 100
- 평균 클릭율 : 2.0% / 클릭율 : (클릭한 수신자 수 / 발송 성공한 수신자 수) x 100

- 이메일 소식지는 푸른경기21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와 결과 공유, 경기지역 지방의제21의 주요 행사 안내와 환경관련 소식을 주요 내용으로 격주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확인율과 클릭률로 활성화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확인율은 20~30%, 클릭률은 2~3% 정도인데 푸른경기21 소식지는 확인율 17.4%, 클릭률 2.0%의 수준을 보여 평균정도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확인율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지속적인 수신자 관리를 통하여 이메일 소식지를 통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걸어온 길



경기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조례

[경기도조례 제4807호, 2014.12.31., 일부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2. 푸른경기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 3 조 (지원방법 및 정산)

- ① 협의회에 대한 도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 4 조 (사무의 위탁)

- 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 5 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조례 제4807호, 2014.12.31., 일부개정]



CHAPTER 02 정기총회 회무 자료

2016년 사업보고회 개요

총회준비위원회 활동보고

2016 사업보고회 개요

2016 사업보고회 수상자

회무심의

2016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감사보고

2016 회계결산보고

회칙개정안

2017 사업계획(안)

2017 사업예산(안)



CHAPTER 02

정기총회 회무 자료

2016년 사업보고회 개요

총회준비위원회 활동보고

2016 사업보고회 개요

2016 사업보고회 수상자

2017년도 총회 준비 위원회 활동 보고

총회 준비 위원회 및 예산 소위원회 활동

○ 일시 _12월 19일(월) 오후 14:00

○ 장소 _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김덕일(운영위원장/녹색사회경제위원회 위원장) / 이계숙(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고광갑(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과장) / 신남균(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 위임인원

김인구(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위원장) / 진용복(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 배석인원

정태정(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국장) / 서경순(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주무관)

○ 주요내용

1. 2017년도 예산 확보 현황 보고
2. 2017년 제10기(2017~2018)위원 위촉 매뉴얼 보고

○ 논의안건

안건1)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건 : 푸른경기21 본 예산

- 행정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안건2) 2017년도 정기총회 준비 검토의 건

- 정기총회 일시 검토
- 사업보고회 및 정기총회 계획(안) 검토의 건
- 시상 계획 및 기타 논의의 건
 - 정기총회는 2월3일 금요일로 결정함
 - 학계 부문 공동회장으로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를 추천함
 - 기업 부문 공동대표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부분의 1인으로 회칙개정을 건의 하기로 함.
 - 시상은 사무처에서 더 논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 때 보고하기로 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6 사업보고회 및 2017 정기총회

I 개최 방향

- 제9기(2015~2016)평가 및 제10기(2017~2018) 활동방향 설정
- 협의회 창립 20주년 준비 및 제4차 의제 재작성 시작을 알림
- 2017년 주요 신규 사업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과정과 절차 공유

II 행사 개요

- 일 시 2017. 2. 3 (금) 오후 3시
- 주최/주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장 소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 대 상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등 300여명
- 후 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III 2016 사업보고회 및 2017 정기총회 프로그램

사전행사 (14:00~15:00) • 14:00~15:00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6년 성과 전시 • 14:40~15:00 식전 공연 1부 : 푸른경기21 2017년도 정기총회 기념식 사회 : 사무처장 • 15:00 개회 • 15:00~15:05 내빈소개 • 15:05~15:10 국민의례 • 15:10~15:15 감사패 및 우수사업 시상 • 15:15~16:00 개회사, 축사, 격려사	2부 : 정기총회 회무심의 (16:00 ~ 17:00) 회무진행 : 상임회장 이상은 • 성원보고 • 전 회의록 보고 : 사무처장 • 감사보고 • 2016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 8개 위원회 위원장 보고(각 3분)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회칙개정(안) 심의 • 임원선출 • 이임사 : 이상은 상임회장 • 감사패 전달 3부 : 각 위원회별 회의 (17:00 ~ 17:30) • 위원회별 위원장 선출 및 차기 회의 날짜 결정
---	---



사업보고회 수상자

감사패 : 공동회장상			
구분	성명	소속	비고
푸른경기21	이상은	한양대학교 교수	이임 기념
푸른경기21	권안석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임 기념

환경분야 유공자 표창장 : 경기도지사상		
구분	성명	소속
시민단체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정용관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공로상 : 공동회장상					
구분		이름	소속	비고	
공로상	단체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공로	
	개인	방세환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문위원		동부권
		박만준	김포시 환경정책과 과장		서부권
		김도현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장		남부권
		이경준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북부권
		김미화	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실무자		사무처 공로
		박영숙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국제교류협력 공로
		신종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CHAPTER 02
정기총회 회무 자료

회무심의

- 2016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감사보고
- 2016 회계결산보고
- 회칙개정안
- 2017 사업계획(안)
- 2017 사업예산(안)



2016 정기총회 회의록

주요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 : 2016년 1월 28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 참석 : 97명
 - 위임 : 67명
 - 기록 : 박종아 수원의제 사무국장, 김동균 의왕의제 사무국장
- 회의내용
 - 식전행사 (12:30~14:00)
 - 매솟 난민학교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 및 푸른경기21 2015 사업 성과 전시회 개최
 - 푸른경기21 사업보고회 기념식 (14:00~15:00)
 - 신남균 사무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1부 기념식을 진행하다.
 - 개회선언
 - 내빈소개
 - 국민의례
 - 감사패 및 우수사업 시상
 - 기념 토크 콘서트 (14:15 ~ 15:20)
 - 사회 : 김용국, 김도근
 - 패널 : 이상은 상임회장
 - 양숙정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이계숙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
 -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조아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간사
 - 난민어린이 교육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경매 (15:20 ~ 15:40)



○ 정기총회 회무 (15:10 ~ 16:10)

- 서기 지정
 - 박종아 수원의제 사무국장과 김동균 의왕의제 사무국장을 서기로 지정하다.
- 성원 보고
 - 신남군 사무처장이 총원 274명중에 97명이 참석하고 67명이 위임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전 회의록 보고 : 신남군 사무처장이 전차 정기총회(2015년 1월 27일(수)를 보고하였으며, 이의 없이 동의 얻음.
- 안건상정 : 이상은 공동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75~112p과 115~194p)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을 채택하기로 함.
- 감사보고 : 유문종 감사가 감사 보고(77~78p)를 하고 받기로 동의함.
- 201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 2015년도 사업(80~86p와 115~194P)을 8개 분과 위원장이 PPT로 보고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신남군 사무처장이 보고하였음.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신남균 사무처장이 PPT로 2015년 사업계획안(87~112p)을 발표하였으며, 이광호 의왕의제 공동회장이 동의하고 위원들의 제청이 이어져 원안대로 승인 함.
- 이상은 공동회장이 기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으므로 폐회를 선언함.

2016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감사보고서



■ 감사구분
사업 및 회계감사

■ 감사범위

회계감사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사업감사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제2장 제9조에 의거하여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회계 감사 보고

2016회계연도 재정 집행에 대해 질의, 증빙문서(통장사본, 입·출금장부, 품의·지출결의서) 확인 및 세부 검토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 1,999,090,024원(보조금 1,992,000,000원/위원회비7,090,024원) 중, 집행금액 1,939,331,211원(보조금1,936,888,831원/위원회비2,442,380원)의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 재정 집행은 회칙 및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 감사 보고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8개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국제흐름에 맞춘 제3차 경기의제21 추진을 위해 2016년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의제의 달성정도를 파악해 시대상에 맞춰 전환해야 할 지표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를 통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에 근거한 공동사업 발굴 등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전개해 지속가능성 확산에 기여 하였습니다. 선정된 공동사업이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협력적 사업으로 SDGs 지표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연구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표와 지원 로드맵 개발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실천 활동에 선구적 행동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제2차 생물다양성포럼은 SDGs를 토대로 6개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포럼의 공동목표는 생물다양성 분야의 SDGs 이행과 앞으로 진행될 포럼의 역할에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환경포럼은 다수의 간담회·워크숍·포럼 등을 통해 환경 현안의 이슈화 및 정책 생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역량을 더 키워 환경거버넌스 역할에 더 충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경기도내 15개 마을에서 폐기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실천형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는 기존 사업 외에 상가진단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감축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진행된 동아리 공모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학습과 고민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그린캠퍼스 협의회의 ‘그린캠퍼스 인프라개선 지원사업’은 8개 대학이 참여하여 정량적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전국적 그린캠퍼스 운동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구조로 계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 종합 감사 의견

2016년은 UN SDGs 이행을 위한 준비의 해로 보여집니다. SDGs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현재 8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제3차 의제의 체제 변화를 포함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광역의제21로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SDGs 입법과제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과감하며 시대를 앞서간 선도적 사업 진행과 정책 생산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추진 과정 또한 통합적 접근과 협력적 진행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의 메시지를 담는 데도 충실했습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제대로 진단해야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10기 위원회의 역할은 평가를 통해 준비하는 미래 비전 제시가 될 것입니다.

2017년에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속가능발전의 프레임을 더 넓혀 한 단계 성숙된 사회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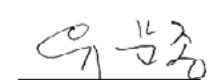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6년도 사업 및 회계의 집행은 정관 및 운영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감사 권안석



감사 유문종




2016 회계결산 보고

1. 총결산

(단위 : 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회비 집행 잔액
59,758,813	55,111,169	4,647,644

● 수입

(단위 : 원)

총수입	보조금	회비
1,999,090,024	1,992,000,000	7,090,024

● 지출

(단위 : 원)

총지출	보조금	회비
1,939,331,211	1,936,888,831	2,442,380

2. 2016년 수입 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비고
	총계	1,999,090,024	
보조금	소계	1,030,000,000	
	경기의제21사업	600,000,000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90,000,000	국비:도비 50:50
	경기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120,000,000	국비:도비 50:50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200,000,000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20,000,000	
특별회계	소계	900,000,000	국비:도비 89:11
	경기도 그린캠퍼스만들기	900,000,000	
공모사업	소계	62,000,000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 사업	50,000,00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생 실천캠프	8,000,000	
	사회사회협력사업	4,000,000	
위원회비	소계	7,090,024	전년도 잔액 포함
	2016년 위원회비	7,090,024	

3. 2016년 보조금 지출 결산

● 보조금 사업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2016년 수입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기타 공모사업 잔액 반납	최종잔액
	총계	1,992,000,000	1,936,888,831	55,111,169	507,899	6,323,269	61,942,337

보조금	소계	1,030,000,000	1,014,208,726	15,791,274	247,319	4,879	16,043,472
	경기의제21사업	600,000,000	596,065,339	3,934,661	110,533	4,879	4,050,073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90,000,000	79,885,457	10,114,543	38,886	-	10,153,429
	경기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20,000,000	118,257,930	1,742,070	51,456	-	1,793,526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200,000,000	200,000,000	-	42,861	-	42,861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20,000,000	20,000,000	-	3,583	-	3,583

특별회계	소계	900,000,000	865,448,165	34,551,835	247,637	6,301,870	41,101,342
	경기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900,000,000	865,448,165	34,551,835	247,637	6,301,870	41,101,342

공모사업	소계	62,000,000	57,231,940	4,768,060	12,943	16,520	4,797,523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50,000,000	45,256,540	4,743,460	12,311	16,520	4,772,29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생 실천캠프	8,000,000	8,000,000	-	-	-	-
	사회사회협력사업	4,000,000	3,975,400	24,600	632	-	25,232

● 기타 결산

(단위 : 원)

회비결산	예산과목	전년이월	수입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	최종잔액
	2016년 위원회비	3,504,849	3,578,380	2,442,380	4,640,849	6,795	4,647,644



4. 2016년 결산 세부내역

❶ 보조금 결산 세부내역

● 경기의제21사업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계	600,000,000	596,065,339	3,934,661
사업비	348,000,000	347,146,631	853,369
경기의제21실천사업	78,000,000	77,967,381	32,619
5개이제 위원회	66,000,000	65,971,381	28,619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12,000,000	11,996,000	4,000
경기의제21협력사업	83,000,000	82,859,140	140,860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20,000,000	20,000,000	-
시·군의제21협력사업	26,000,000	25,939,430	60,570
국내교류협력	25,000,000	24,952,680	47,320
국제교류협력	12,000,000	11,967,030	32,970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102,000,000	101,899,960	100,040
그린맵 보급사업	20,000,000	20,000,000	-
도시대학 사업	20,000,000	20,000,000	-
적정기술 보급사업	12,000,000	12,000,000	-
경기환경포럼	50,000,000	49,899,960	100,040
환경 현안 실천사업	85,000,000	84,420,150	579,850
환경보전 실천운동	15,000,000	14,641,000	359,000
남한강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사업	40,000,000	39,856,270	143,730
생물다양성 포럼	30,000,000	29,922,880	77,120
운영비	252,000,000	248,918,708	3,081,292
운영비	252,000,000	248,918,708	3,081,292
인력운영비	214,000,000	213,358,628	641,372
기본경비	38,000,000	35,560,080	2,439,920

●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90,000,000	79,885,457	10,114,543
사업비	90,000,000	79,885,457	10,114,543
경기도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90,000,000	79,885,457	10,114,543
교육지원	33,000,000	31,421,120	1,578,880
교류 및 협력	16,000,000	15,851,277	148,723
센터 운영	41,000,000	32,613,060	8,386,940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120,000,000	118,257,930	1,742,070
사업비	120,000,000	118,257,930	1,742,070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120,000,000	118,257,930	1,742,070
저탄소 실천지원 사업	70,500,000	70,494,000	6,000
교육 및 홍보사업	13,500,000	13,499,200	800
경상비	36,000,000	34,264,730	1,735,270

●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200,000,000	200,000,000	-
사업비	200,000,000	200,000,000	-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200,000,000	200,000,000	-
주민학습지원	41,250,000	40,915,800	334,200
주민학습실천	158,750,000	159,084,200	-334,200

●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화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20,000,000	20,000,000	-
사업비	20,000,000	20,000,000	-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20,000,000	20,000,000	-
환경음악순회공연	18,000,000	18,000,000	-
운영비	2,000,000	2,000,000	-



2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

● 경기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계		900,000,000	859,146,295	40,853,705
사업비		900,000,000	859,146,295	40,853,705
그린캠퍼스인프라개선	국비	668,000,000	667,782,000	218,000
경기도형그린캠퍼스인증추진	소계	40,000,000	39,284,550	715,450
인증추진	국비	25,000,000	24,875,130	124,870
그린리그제 추진	도비	15,000,000	14,409,420	590,580
그린리더십 교육확대	국비	64,000,000	39,444,241	24,555,759
그린캠퍼스 교류 협력	소계	52,000,000	42,698,010	9,301,990
정책포럼	국비	15,000,000	9,917,360	5,082,640
선진지 견학	도비	32,000,000	27,966,600	4,033,400
교육 및 워크숍	도비	3,000,000	2,834,050	165,950
회의 등 운영	도비	2,000,000	1,980,000	20,000
대학생 역량강화지원	소계	70,000,000	63,956,994	6,043,006
대학생 실천캠프	국비	14,000,000	13,937,450	62,550
정책제안대회	국비	12,000,000	11,973,214	26,786
실천공모	도비	36,000,000	30,137,990	5,862,010
역량강화	도비	4,000,000	3,998,840	1,160
대학생협의회 운영	도비	4,000,000	3,909,500	90,500
홍보	소계	6,000,000	5,980,500	19,500
홈페이지 유지 관리	국비	2,000,000	1,980,500	19,500
웹진 및 홍보물 제작	도비	4,000,000	4,000,000	-



3 공모사업 결산 세부내역

● 경기도 에너지와 청소년 에너지동아리 발굴 및 지원 사업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50,000,000	45,256,540	4,743,460
사업비		50,000,000	45,256,540	4,743,460
청소년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		50,000,000	45,256,540	4,743,460
동아리 지원비		27,500,000	30,700,000	- 3,200,000
청소년 동아리 캠프		8,800,000	7,437,530	1,362,470
공모사업 운영		13,700,000	7,119,010	6,580,990

● 한국에너지공단(경기지역 본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생 실천 캠프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8,000,000	8,000,000	-
공모사업		8,000,000	8,000,000	-
사업비		8,000,000	8,000,000	-
대학생 실천캠프		8,000,000	8,000,000	-

● 2016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사회사회협력사업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4,000,000	3,975,400	24,600
공모사업		4,000,000	3,975,400	24,600
사업비		4,000,000	3,975,400	24,600
적정기술학교		4,000,000	3,975,400	24,600

4 기타회계 결산 세부내역

● 위원회 회비

(단위 : 원)

예산과목		수입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총 계		7,090,024	2,442,380	4,647,644
위원 회비		7,090,024	2,442,380	4,647,644
전년이월		3,504,849		
위원회비		970,000		
총회 경매 및 바자회 수익금		2,608,380		
이자		6,795		
난민어린이 학습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			2,442,380	



회칙개정(안)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공동회장 선출 관련 회칙 개정안 : 제7조 3항

당 초	변경(안)
제7조 (임 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 이상은 여성을 선출하고,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공동회장은 의제의 동반자정신을 살려 각 분야의 대표로 구성하며, 담당 부지사와 <u>경제단체연합회</u>의 <u>대표</u>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제7조 (임 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 이상은 여성을 선출하고,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공동회장은 의제의 동반자정신을 살려 <u>시민사회 대표, 학계대표, 여성계대표, 경제계대표, 행정 대표</u>로 구성하며, 담당 부지사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 경기 경제인 단체의 참여가 어려워 환경 및 여성 경제인으로 문호를 넓혀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	



2017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업추진 방향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비전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추진**

2017년 중점 방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2017년
추진 전략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계획 수립 (신규 사업)
 - 국가 목표에 따른 경기도 실정에 맞는 SDGs 이행 계획 수립
 - 푸른경기21 제4차 의제와 연동된 이행 계획 및 목표 수립
 - ‘18년 “푸른경기21 20년” SDGs에 근거하여 의제 수립
- 경기도 대표 민·관 정책협의회로서 위상 제고
 - 경기환경포럼 운영을 통한 경기도의 최고 환경 거버넌스 구축(계속 사업)
 - 정책 제안에 이어 예산 수립 노력
 - 행정과 의회와 소통하는 포럼 운영
 - 경기도 주요 시책 동시 추진(환경 보전 실천 사업 추진 : 계속 사업)
- 도민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 기능 강화
 - ESD 인증 그린맵, 도시대학, 적정기술 보급사업 등 시·군과 협력 사업 계속 추진
 - 지속적인 새로운 의제 발굴
-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협력 활성화
 - 공동회장 및 사무국장 워크숍 정기적으로 실시,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추진
 - 경기대회, 시·군 협력 사업을 통한 기초 시·군과의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업 세부 계획(안)

❶ 경기의제21실천사업 - 5개 의제 위원회	예산액 _66,000천원
사업 목적	• 지방의제21의 고유 사업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향상 제고 • 위원회간의 사업 공유 및 공동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SDGs 17개 목표에 맞춘 의제 재작성
사업 내용	• 5개 의제 실천사업 • 5개 의제 네트워크 사업 DMZ네트워크,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도시농업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등 • 신규 의제 시범 사업 :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신규 의제 사업 발굴 • 상반기 새로 선임된 제10기 전체 위원 대상 워크숍 진행 • SDGs 체제로의 변환을 위한 기획회의 진행
사업 일정	• 5개 의제 세부 내용 참조
예산산출기초	• 기획실천 및 모니터링 사업 : 1,000(만원)×5(의제) =5,000(만원) • 네트워크 협력사업 : 200(만원)×5(의제) = 1,000(만원) • 총괄워크숍 1식 = 600(만원) 상·하반기 전체 위원 워크숍 진행
기대 효과	• 5개 의제 세부 내용 참조
※ 의제별 사업비 구분을 없애고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 증대	
※ SDGs 17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기획회의 진행	





① 경기의제21실천사업 - 기후행동21위원회

사업 목적

- 경기도 및 지자체, 지방의제21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 모니터링
- 경기도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확산
- 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 위한 지역주도, 주민참여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제 재작성 추진

사업 내용

- 지표평가 모니터링 사업 (기후행동시민/커뮤니티/파트너십 모니터링)
- 기획실천사업
 -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원 및 확산사업
 - 시민 참여형 지역에너지 비전 수립 방향 제안 사업
- 네트워크 협력사업
 -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대 활동 및 토론회 등
- SDGs 목표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 추진

사업 일정

- 1~12월 제4차 의제와 SDGs와의 연계 회의 진행
- 1월 기본 계획
- 2월 2017년도 기후행동21위원회 사업별 실천계획 및 일정 수립
- 3~11월 기후행동21 지표 모니터링
 - 기후행동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위원회 기획사업 및 각종 현안 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연대,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활동 추진
- 12월 결과보고회 개최

기대 효과

- SDGs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을 통한 제4차 의제 작성
- 경기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 활동, 정책 등 현황 파악을 통한 경기도 실천 과제 및 정책 방향 제안 기반 마련
- 기후행동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기후 에너지 공동체 확산
- 지역에너지 정책 수립과 관련한 활동 방향 및 기반 마련
- 기후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① 경기의제21실천사업 - 생물다양성위원회

사업 목적

- 생물다양성의제 10년을 작성하여 초기년도는 특히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현황 및 생물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7기 위원회는 모니터링을 통한 기초자료 조사 진행 및 의제작성', '8기 위원회는 지표달성을 위한 기획사업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 마련'함
- 올해 10기에서는 경기도 현황 모니터링과 의제 지표달성 점검을 통해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평가와,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지역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 관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제 재작성 추진

사업 내용

- 바이오블리츠 지역 협력 및 성과 확산
- 경기 생물다양성학교 개최
-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경기도 생물다양성증진 정책 토론회
- 강원 · 경기 · 인천 DMZ · 접경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SDGs 목표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 추진

사업 일정

- 1~12월 제4차 의제와 SDGs와의 연계 회의 진행
- 1~2월 의제별 기본 계획
- 3~4월 위원회 전체회의 및 실행위원회 운영
- 5~10월 바이오블리츠 지역 협력 및 성과 확산
- 7~8월 경기 생물다양성학교 개최
- 9~10월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토론회
 - 강원 · 경기 · 인천 DMZ · 접경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 11~12월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기대 효과

- SDGs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을 통한 제4차 의제 작성
- 지속적 주민참여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전략사업 운영과 보급
- 지역 생물다양성 활동 역량 강화
-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 근거 마련



❶ 경기의제21실천사업 - 녹색사회경제위원회

사업 목적

- 농업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민관협력과 경기도민의 참여에 기초한 지표현황 모니터링
- 의제지표 달성을 위한 기획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인식증진 및 제반 활동
- 위원회 관련 네트워크 기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각 분야(도시농업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제 재작성 추진

사업 내용

- 지표평가 모니터링
 -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경기도 로컬푸드 지수)
 -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 조사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수)
- 기획실천사업
 -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 분야별 사업 활성화 및 정책 제안 토론회
 - 시군의제와 협력사업 각 분야별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및 탐방 등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 사업
- SDGs 목표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 추진

사업 일정

- 1~12월 제4차 의제와 SDGs와의 연계 회의 진행
- 1월 기본 계획
- 2월 사업별 실천계획 및 일정 수립
- 3월 경기 지역 시·군의제 대상 수요조사
- 4~11월 지표평가 모니터링 및 취합 /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분야 활동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 진행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 분야별 정책 제안 토론회
- 12월 사업결과보고회 개최

기대 효과

- SDGs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을 통한 제4차 의제 작성
-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도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및 조례 개정 제안
- 경기도 녹색사회적경제(로컬푸드,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
- 도민참여를 통한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확산
- 경기도 녹색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관협력 활성화

❶ 경기의제21실천사업 - 마을의제위원회

사업 목적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의 관점에서 마을의제지표 점검과 경기지역 내 여러 마을에서 마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표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 경기지역 마을의제 작성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과 기획사업인 꿈꾸는 마을학교를 통한 기반조성, 활동가 관계망 조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욕구와 현황 파악을 통한 기획사업(공모등 지원사업) 추진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제 재작성 추진

사업 내용

- 의제실천위원회 운영(기획회의, 워크숍, 사업운영 등)
- 지표 평가 모니터링 사업 : 시군 지자체 및 마을 대상 현황 모니터링
- 지표 달성 기획사업
 - 제6회 꿈꾸는 마을학교 (활동가 마을의제 작성 역량 강화)
- 민관협력 토론회 개최
- 네트워크 협력 사업 추진 (사례지 정기모임, 정책 토론회, 간담회 등)
- SDGs 목표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 추진

사업 일정

- 1~12월 제4차 의제와 SDGs와의 연계 회의 진행
- 1 ~ 3월 2016년도 실행계획 수립
- 4 ~ 6월 기획사업 진행
- 7 ~ 10월 모니터링사업 진행
- 11 ~ 12월 결과보고회 및 보고서 제작

기대 효과

- SDGs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을 통한 제4차 의제 작성
- 경기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도민 참여 마을의제 작성 사업 발굴 및 확산
- 경기도지역 마을 만들기 주체의 네트워크 확산과 역량 강화

① 경기의제21실천사업 - 삶의질위원회

사업 목적

-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지표를 발굴하고,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삶의 질 의제 지표달성 및 삶의 질에 대한 도민 인식 증진을 위한 기획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성 평등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만들기 위한 성평등의제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제 재작성 추진

사업 내용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사업
 - 시·군 조례제정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 조례제정 컨설팅’ 사업 전개
 - 시·군의제21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사업 추진
 - 시·군의제21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모니터링 컨설팅 사업 전개
- 경기도주민참여(예산·자치) 운영현황조사 및 활성화 사업
 - 경기도 및 31개 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점검 및 정책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점검 기획사업
- 경기도 비정규직 관련 민관협력의 장 마련
 - 경기도민의 일자리 질적향상을 위한 토론회 또는 간담회 개최
-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성 평등한 지방의제21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 SDGs 목표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 추진

사업 일정

- 1~12월 제4차 의제와 SDGs와의 연계 회의 진행
- 1월 기본 계획 수립
- 2월 경기지역 시·군의제21 추진기구 대상 수요조사
- 3월 각 사업 단위 연간 추진일정 기획
- 4~10월 지역맞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모니터링 컨설팅 /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경기도주민참여(예산·자치) 현황조사 및 활성화 사업 / 경기도 일자리(비정규직) 토론회
전국성평등의제네트워크 지원
- 11~12월 분야별 현황조사를 통한 결과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

기대 효과

- SDGs와 의제 목표와의 결합을 통한 제4차 의제 작성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통해 경기도가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 주민참여 관련 정책 활성화를 통해 참여에 기반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 민관협력으로 이뤄내는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① 경기의제21실천사업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예산액 _12,000천원

사업 목적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의해 시행될 경기도 지속가능성평가의 민관협력 추진방안 모색.
- 환경에 특화된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 시행, 이를 통한 도민인식개선 및 정책제안.
- 경기도 기초 시·군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관련제도 활성화 및 ‘시·군 지속가능성평가’ 시행 지원.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전체 조정 작업 수행

사업 내용

- 경기도 시·군 지속가능성평가 컨설팅
- ‘경기도 환경 지속가능성평가’
- 지속가능성평가 지역 도입 독려를 위한 토론회
- 지속가능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도민인식개선 활동
- 경기의제21 20주년 기념 사업 준비
- 경기도 SDGs 수립을 위한 TFT 구성운영

사업 일정

- 1~2월 기본 계획 수립
- 3월 경기도 시·군 지속가능성평가 도입을 위한 설명회
- 4~8월 경기도 시·군 지속가능성평가 컨설팅
경기도 환경 지속가능성평가
- 9~12월 경기도 시·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정리 및 보고회 개최

기대 효과

- 경기도민 지속가능성 인식 증진
- 경기도 전역의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도입의 계기 마련
- 환경에 특화된 지속가능성평가 체계 마련, 이를 통한 경기도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② 경기의제21협력사업 -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② 경기의제21협력사업 - 시·군의제21협력사업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 간 공동 사업 필요로 지방의제21추진기구 간 실천사업 공유 및 교류의 장인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필요 2016년 결의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통 추진사업 결과 공유 및 후속 작업 추진 선언 - 또한, 경기지역 지방의제21추진기구 위원 및 공무원, NGO 등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주체간 교류와 대화의 장 마련	- 지방의제21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도모 - 지방의제21 활동가의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유도 - 지역 의제21 지원 사업 - SDGs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사업 추진
사업 내용	사업 내용
- 제9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시흥시 개최) - 경기지역 지방의제21박람회 - 제3회 적정기술 박람회 개최	- 위원회 운영 - 협력 의제 실천 기획사업 - 협력 의제 실천 지원(지역별 사업)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활동가 워크숍 개최 - 지속가능성 학습, 신규 의제 발굴 년 2회(3월, 10월) - 간사 역량강화 소위원회 사업 추진 - 지역 간사 중심 소통 및 역량강화 사업(기획회의, 워크숍 추진)
사업 일정	사업 일정
2월 기획팀 구성 3월 세부 계획(안) 수립 4~6월 지속가능발전대회 준비 9~10월 제9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시흥시)	1~2월 세부 기획 수립 3~11월 의제 공모사업 지원(지역별 사업) 상, 하반기 진행 2~10월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 3, 8월 지방의제21 활동가 워크숍 개최(학습, 교류협력 등) 1~12월 간사 중심 소위원회 사업 추진(학습, 교류협력 등) 12월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보고회
기대 효과	기대 효과
2016년 결의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통 추진사업 결과 공유 -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민 인식증진 기회 제공 - 새로운 의제 발굴 -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고의 기회 마련	- 민·관 협력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제21 활성화 기반 마련 - 시군의제21 추진기구 간 협력과제 발굴과 확산 - 지역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추진



② 경기의제21협력사업 - 국내교류협력사업	예산액 _28,000천원
사업 목적 • 유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방의제21 사업 활성화 유도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제21 활동가 역량 강화 제고	
사업 내용 • 사업보고회 개최 •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협력 사업 • 경기도의회 정책 워크숍 • 전국협의회 교류 협력 사업 • 운영위원회 개최	
사업 일정 • 1~2월 기본 계획 수립 • 3~11월 개별 사업 진행 • 12월 사업 보고서 작성	
기대 효과 • 사업 보고회 개최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국제교류 확산 및 도민 참여 기반 구축 •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제21 사업방향 모니터링 • 다양한 경기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② 경기의제21협력사업 - 국제교류협력사업	예산액 _17,000천원
사업 목적 • UN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발맞춰 지역단위 대응 방향 모색 • 지방의제21 사업성과의 국내·외 홍보 • 지속가능발전 주요 국제동향(의제 등) 정보 제공 • 지속가능발전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국제교류 확대	
사업 내용 • 지방의제21 사업성과의 영문 보고용 자료 제작 • 지속가능발전 국제동향 이해를 위한 국외자료 번역 및 전파 • 아시아 저개발국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제 교류 추진 • 국제교류협력실천사업 - 경기 글로벌지속가능발전대학 개최 - 태국 매솿의 미얀마 난민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사업 일정 • 1월~3월 기본 계획 수립 • 4월~10월 태국 매솿의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 경기 글로벌지속가능발전대학 개최 - 아시아 저개발국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제 교류 추진 - 국외자료 번역 및 공유	
기대 효과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국제교류 확산 및 도민 참여 기반 구축 •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구축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및 지속가능성 향상 활동의 국내·외 홍보	

② 경기의제21협력사업
- 우리동네 그린맵

예산액 _20,000천원

사업 목적

-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 지방의제21의 다양한 활동 아젠다들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한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지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운동인 그린맵의 방식으로 실천.
- 그린맵핑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환경, 기후, 삶의 질 등 지자체 각자의 다양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갖게하는 지속가능한 사회환경교육을 실현.
-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실천에서 벗어나 내 지역에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후변화대응실천전략 제안.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 내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온라인지도 사이트인 ‘우리동네 그린맵’(greenmap.kr)을 지난 2009년부터 기획,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린맵 만들기 운동 지원
-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시군에 제공하고자 함.
- 2012년 전국지속가능발전대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수상
- 2013년 녹색도시만들기 전국컨테스트 장려상 수상
- 2014년 7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인증

사업 내용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 그린맵 집중 교육 및 그린맵 의제 발굴
- 그린맵 국제 교류 및 협력, 홍보사업
- 우리동네 그린맵 운영 (우리동네 그린맵 홈페이지 관리 및 기획자문단 회의 등 운영)

사업 일정

- 1 ~ 3월 세부사업기획
- 1월 ~ 12월 그린맵 홈페이지 운영 및 자문회의 운영
- 4월 ~ 11월 우리동네 그린맵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
그린맵 국제교류, 그린맵 교육 및 홍보
- 12월 : 평가보고회

기대 효과

- 그린맵 시·군 확산을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기후변화대응활동 확산
- 공모사업을 통한 그린맵 신규 사업 발굴 및 후속 지원을 통한 운동 정착
- 유네스코 ESD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환경교육에서의 푸른경기 브랜드 교육사업으로서 그린맵 운동의 활성화 및 그린맵 운동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관리 기반 마련
-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각적 도구로 활용
- 그린맵 국제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을 통한 홍보 및 지원

③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 도시대학

예산액 _10,000천원

사업 목적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교육의 필요로 지난 12년간 도시대학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마을 만들기 분야 민-관-학-NGO 간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 모델로 자리매김 함
- 2017년은 2016년 지역별 우수계획(안)의 실제 사업화를 우선 지원하여 사업 실천력을 제고
- 특히, 마을의제 작성 사업 과정을 추진하여 마을조사, 마을계획 등의 과정과 연계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과 지원

사업 내용

- 우수작품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주민참여 녹색마을만들기 실현
- 마을의제 작성 지원 사업 추진과 녹색마을만들기 주민 실천사업 지원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 풀(Pool) 형성 및 지역 활동 기획자문

사업 일정

- 1월 기본 계획
- 2월 푸른경기21 도시대학 기획회의 추진
- 3월 제14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및 시·군 도시대학 세부 계획(안) 수립
- 4~5월 푸른경기21 도시대학 및 시·군 도시대학 진행
- 6~11월 2017년 푸른경기21 제14회 도시대학 시행(지역별 사업 추진)
- 12월 결과보고회 개최

기대 효과

- 마을만들기 민·관·학 각 주체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
- 마을만들기 지역리더 양성
- 마을의제작성과 의제실천 사례 발굴



③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 적정기술 보급사업

예산액 _12,000천원

사업 목적

- 푸른경기21 적정기술 사업은 에너지·기후변화에 안전한 지역을 위한 대안에너지 확산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수단으로서 적정기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초기년도는 경기지역에서 적정기술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그룹을 양성, 조직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적정기술의 다양한 실천을 위한 초석 마련함
- 적정기술은 규모, 비용,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기술이므로,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지역 사회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모두의 기술’로 적정기술을 접목하여 새롭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함

사업 내용

-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적정기술 공모사업
[Design Thinking기반 교육프로그램 접목]
디자인 싱킹은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의 하소 플레트너 회장이 만들고, 미국 스탠퍼드 디스쿨(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 at Stanford; Stanford D.School)이 확산시키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이 모르는 잠재적 욕구를 발굴해서 시제품(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보는 과정을 말한다.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을 인간 중심 관점으로 찾아내 해결하기 때문에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불린다.
- 적정기술 박람회
- 적정기술 36.5℃ 네트워크 한마당(제9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연계)
- 적정기술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일정

- 1~2월 세부 기획 수립
- 3~10월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적정기술 공모사업
- 3~10월 적정기술 박람회
- 7~10월 적정기술 36.5℃ 네트워크 한마당
- 3~12월 적정기술 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1~12월 공모사업 및 기획자문위원회 평가회 개최

기대 효과

- 지역에서 대안에너지, 공동체회복을 위한 적정기술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민들을 기술의 주체로서 양성하여 지역 내 적정기술 조직가를 키워 적정기술 활동에 초석이 마련됨
-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과 해결과정을 적정기술로 접근하여 새롭게 지역 의제운동이 확산되고, 지역공동체가 실현되는 기회를 제공됨

③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 경기환경포럼

예산액 _38,000천원

사업 목적

- 경기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거버넌스 형태의 상시 소통의 장 운영
- 경기도 환경관련 정책 방향 및 장·단기 현안 사항 논의
- 경기도 환경관련 민·관·학 협력을 통한 환경정책 아젠다 발굴 및 확산
- 생산된 의제를 경기도 연정 과제로 제안하여 예산 반영 추진

사업 내용

- 정책 어젠다 발굴
- 경기도 전역의 주요 및 현안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 어젠다 발굴
- 포럼 정기 운영
- 전체 포럼 년 4회 운영
- 정책 워크숍 개최 (2회)
- 각 분과별 회의에서 제안된 정책 워크숍 개최
- 분과별 기획회의, 간담회 및 워크숍 추진
- 분과별 포럼은 지양하고 기획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이슈를 전체 위원 참여하는 포럼으로 추진
- 사업보고회 개최
- 연말 정기 포럼 시 정책 발표

사업 일정

- 1~2월 세부 계획서 작성, 포럼위원 위촉
- 3~11월 지역별, 주제별 포럼 개최
- 4, 9월 정책 워크숍 개최
- 12월 정기포럼 및 사업보고회 개최

기대 효과

- 대표적인 경기도 환경분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역량 강화
-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정책 제안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및 경기도의 미래 환경 분야에 대한 비전 수립 가능
- 경기도 연정 과제 제안을 통한 예산 반영





④ 환경현안 실천사업
- 환경보전 실천 사업

예산액 _25,000천원

사업 목적

- 경기도 환경국과의 현안 사업 추진
- 경기 북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 기타 환경 현안 사업 추진

사업 내용

- 에코브리지(생태통로)모니터링 사업
- 생태교란식물 퇴치 및 모니터링 사업
- 기타 환경 현안 사업 추진 → 경기환경포럼의 찾아가는 포럼과 동시 추진

사업 일정

- 1 ~ 2월 세부 계획서 작성
- 3 ~ 10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및 모니터링 실시
- 3 ~ 10월 에코브리지 모니터링 사업 추진
- 11 ~ 12월 사업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작성

기대 효과

- 대규모 인공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여 같은 사업 중복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환경현안 실천사업
- 생물다양성 시민 모니터링 사업

예산액 _25,000천원

사업 목적

- 남한강(여주 인근)생태계 변화를 관찰하여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천 오염, 수질 저하, 생태계 변화, 기상현상 등 자연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DB화하는 것이 필요함.
- 팔당호 취수원 지역을 집중 관찰하여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하천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생태계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 2016년 사업 결과 국내 최초로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영향 조사 수행 및 연속된 모니터링으로 선행 연구 및 추가 연구 자료 축적

사업 내용

- 생물다양성 변화 모니터링 및 DB구축
-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
- 대상지 사회적·경제적 영향 조사
-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사업 일정

- 1 ~ 2월 세부 계획서 작성
- 3 ~ 10월 모니터링 사업, 현장 조사 실시
- 11 ~ 12월 정기포럼 및 사업보고회 개최

기대 효과

- 국내 최초로 대규모 인공 개발을 통한 하천의 영향에 대한 생태 및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수행
- 대규모 인공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조사하여 같은 사업 중복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영향 조사 및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2년 연속 사업을 통한 추이 분석 및 향후 추가 연구의 선행 연구 활용

④ 환경헌안 실천사업 - 경기도 SDGs 이행 계획 수립 사업		예산액 _30,000천원
사업 목적		
· ‘15년 9월 UN에서는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17개 목표에 대한 합의도출 및 ’16년 4월 본격 발효 되었음. · 우리나라는 ‘17년 4월을 목표로 국가 SDGs 이행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지방의제21의 고유 업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UN SDGs와 함께가는 국가 계획 및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창립 및 의제 선포 20주년(2018)을 앞두고 SDGs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가 SDGs 이행 계획과 함께하는 경기도 SDGs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함		
사업 내용		
· 경기의제21 1,2,3차 의제 분석 · SDGs 17개 목표와 경기의제21의 의제 분석 · 경기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SDGs 17개 분류에 맞는 의제 재작성 · 의제 선포 및 보고서 작성		
사업 일정		
· 1 ~ 2월 SDGs T/F팀 구성 · 3 ~ 4월 세부 계획 수립 · 5 ~ 10월 경기도 SDGs 이행 방안 수립 (연구수행, 워크숍, 타운홀 미팅 추진) · 11 ~ 12월 사업성과 발표		
기대 효과		
· 국내 광역 최초 시민 참여 SDGs 이행 계획 수립 · 타 시·도 SDGs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 · 이행 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SDGs 이행 및 도민 인식 제고		

운 영 비		예산액 _262,000천원
사업 목적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효율적 집행		
사업 내용		
·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인건비+직무수행경비+시간외 수당+4대보험) · 기본경비 기본경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교육훈련비+업무추진비)		
사업 일정		
· 1~12월 상시		
기대 효과		
· 안정적인 지방의제21 사업 운영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2017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예산(안)

구분	예산과목	금액	비고
보조사업	총계	910,000,000	
	소계	804,000,000	
	경기의제21사업	600,000,000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84,000,000	
	경기도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120,000,000	
특별회계	소계	100,000,000	
	경기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100,000,000	
위원회비	소계	6,000,000	
	위원회비	6,000,000	전년이월금 4,647,644포함



예산(안) 세부내역

● 2017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업예산(안)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총계		600,000,000
사업비		338,000,000
경기의제21실천사업		78,000,000
	5개의제 위원회	66,000,000
	지속가능성 평가 위원회	12,000,000
경기의제21협력사업		100,000,000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20,000,000
	시·군의제21협력사업	35,000,000
	국내교류협력사업	28,000,000
	국제교류협력사업	17,000,000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80,000,000
	그린맵 보급사업	20,000,000
	도시대학 사업	10,000,000
	적정기술 보급사업	12,000,000
	경기환경포럼	38,000,000
환경 현안 실천사업		80,000,000
	환경보전 실천운동	25,000,000
	생물다양성 시민모니터링	25,000,000
	경기도 SDGs 이행 계획 수립	30,000,000
운영비		262,000,000
운영비		262,000,000
	인력운영비	221,000,000
	기본경비	41,000,000



● 2017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사업예산(안)

(단위 : 원)

예산과목		금액
총계		84,000,000
기후변화교육지원사업		41,400,000
	2016 기후학교(확대심화교육)	11,400,000
	기후변화교육 교구 및 교안 개발 및 보급	28,000,000
	교육 자문 및 운영위원회 운영	2,000,000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13,200,000
사업성 경비		29,400,000
	인력운영비	25,200,000
	기본 경비	4,200,000

● 2017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안)

(단위 : 원)

예산과목		금액
총계		120,000,000
저탄소실천 지원사업		69,200,000
	저탄소 실천 그린홈(마을)사업	49,800,000
	그린스쿨 및 상가 진단 사업	19,400,000
교육 및 홍보사업		10,800,000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8,800,000
	홍보사업	2,000,000
사업성 경비		40,000,000
	인력운영비	35,000,000
	기본경비	5,000,000

● 2017 경기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예산(안)

(단위 : 원)

예산과목		금액
총계		100,000,000
경기도 그린캠퍼스 실천사업		100,000,000
	대학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5,000,000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22,000,000
	기후변화 그린리더십 교육 개설 운영	27,000,000
	그린캠퍼스 모범사업 발굴	17,000,000
	사업운영 경비	29,000,00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CHAPTER 03

2016년 사업 총괄보고

의제위원회 사업보고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환경현안 실천사업
기후변화대응 사업
교류협력 사업



기후행동21위원회

기후행동21위원회는 "기후회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라는 의제명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 기후행동 지표 모니터링 사업과 4개의 기획실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 | |
|---------------|---|
| ① 의제명 | 기후회복을 위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 |
| ② 의제목표 | <p>목표1.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양성</p> <p>목표2.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p> <p>목표3.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p> |
| ③ 추진전략 | <p>3-1. 저탄소 생활실천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시민 양성</p> <p>전략1. 지자체, 의제, 시민단체(CSO)의 시민환경교육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모색</p> <p>전략2. 각종환경시설 실태와 방문자 수</p> <p>전략3.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p> <p>3-2. 저탄소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커뮤니티 만들기</p> <p>전략1. 단체의 범주별 모범 가이드라인 제시</p> <p>전략2. 기후행동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인정 기준안 마련</p> <p>전략3. 기후행동 커뮤니티 인증 및 문패 부착</p> <p>전략4. 경기도 기후행동 커뮤니티 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p> <p>3-3. 분야별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과 활성화 지원</p> <p>전략1. 부문별 파트너십 실태를 조사하고 역량 평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p> <p>전략2. 파트너십 활동을 비교·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p> <p>전략3. 부문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p> |
| ④ 주요지표 | <p>지표1.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초의제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 과정과 수강자 수</p> <p>지표2. 유형별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수</p> <p>지표3. 기후행동 파트너십 지수</p> |

CHAPTER 03

2016년 사업 총괄보고

위원회 사업보고

기후행동21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마을의제위원회
삶의질위원회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모니터링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주체	모니터링 대상	주요내용
1	기후행동 지표 모니터링	6월 ~ 12월	기후행동21위원회	- 경기지역 31개 지자체 각 사업 담당자 - 경기지역 기초의제 21 사무국 -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추진 단체 등	- 기획회의 3회 - 기후행동 시민 양성(교육)현황 - 기후행동 커뮤니티 현황 - 기후행동 파트너십 구축 및 활성화 지원 현황

기획사업

❶ 안산지역 기후 에너지 행동 학습 및 탐방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3월 21일(월) 10시 30분 / 안산 YMCA 외	기후행동 위원회 위원, 16개 에너지 비전수립 신청 지역 공무원 및 기초 의제 관계자 30여명	경기지역 지방정부 에너지 비전 수립과 관련하여 우수 지자체인 안산시 사례 학습

❷ 민관 협치를 통한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토론회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8월 10일 (수) 오후 2시 30분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지역에너지체계수립용역에 참여하는 경기도내 14개 지자체의 공무원 및 용역업체, 지역의제21, 관심있는 활동가와 시민 등 80명	경기도에너지자립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에 담을 비전 및 과제 개요 시민참여형) 에너지 비전 및 실행체계 수립 방안 제안 민관 협치를 통한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방안 토론

❸ 연구과제 모임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9~10월 4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기후행동21위원회 연구모임 기획위원	경기도 에너지비전, 신기후체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 2017년도 예산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❹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원 사업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9월~11월 중 각 동아리 방문	기후행동21위원회 커뮤니티 공모사업팀 위원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 추진 동아리 활동 모니터링

❺ 위원회 전체 및 임원진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3월 21일(월) 16시30분 / 안산 YMCA	기후행동21위원회 위원 16명	- 2016년도 위원회 사업 논의
04월 19일(화) 오후 2시 / 수원의회21추진협의회	기후행동21위원회 위원 13명	- 지역별 기후관련 상황 및 주요이슈 공유 - 기후행동21위원회 2016년도 세부 사업 논의
08월 10일(수) 오후 1시 /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	기후행동21위원회 위원 11명	- 2016 추진사업 공유 및 논의 : 모니터링, 토론회,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 - 2016년도 사업예산(안) 논의
12월 26일(월) 오후 4시 / 우리동네	위원장, 팀장 2	2016년 사업결과 정리 논의 및 10기 위원 위촉 논의

❻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7월, 10월 총 2회 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운영위원	- 시민참여형 햇빛발전 관련 경기도 및 국내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논의(10차) - 지역 현황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간담회(11차)
12월 14일(수) 오전 10시 / 경기도인재개발원	네트워크 관계자 및 관련기관 담당자	- “유휴부지 활용 햇빛발전을 통한 경기도 에너지마을공동체 조성” 토론회

❼ 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1,2,5,8,9,10,11,12월 총8회 실행위원회	네트워크 단체 위원	- 경기도 및 국내 주요 이슈 및 지역 현황 공유 - 학교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논의 · 교육감 면담 등 진행논의 - 2017 경기도에너지전환 사업계획, 예산 공유 및 활용 방안 논의



기후행동21위원회 워크숍 -안산지역 기후 및 에너지 행동 학습 및 탐방 사진



민관 협치를 통한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토론회



위원회 회의 사진



2017년 사업전망

- 경기도 및 지자체, 지방의제21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제안
- 경기도 기후행동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확산
- 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 위한 지역주도, 주민참여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 SDGs 학습 및 17개 목표에 맞는 체계로서의 전환을 위한 의제 재작성 추진
- 위원 활동 역량 강화 지원

생물다양성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는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생물+1"의 의제명 아래 경기도민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천활동과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지역 및 기타 광역의 다양한 협력주체들과 함께 4개의 기획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 | |
|---------------|--|
| ① 의제명 | 생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생물+1 |
| ② 의제목표 | 목표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린다.
목표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한다.
목표3.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에 기여한다. |
| ③ 추진전략 | 3-1.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린다.
전략1.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전략2. 시민참여 생물보전탐사활동을 개발하고 시범운영 한다.
전략3. 생물다양성 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3-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한다.
전략1. 경기도 멸종 위기 종 및 보호종을 포함한 생물종 조사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전략2. 생물종과 서식지보존을 위한 민간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 한다.
전략3. 경기도의 주요 보존서식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도를 제작한다.

3-3.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에 기여한다.
전략1. 생물다양성 경기도 추진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정책제안을 한다.
전략2. 생물다양성 경기도 통합 전담 부서를 만든다.
전략3. 경기도 생물다양성 10년을 선포한다. |
| ④ 주요지표 | 지표1.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활동 수
지표2. 경기도의 주요 생물 및 서식지 보존활동 수
지표3. 경기도 생물다양성 정책수립 및 제도에 기여 횟수 |



기획사업

1 경기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보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6월 9일(목) / 대진대학교	생물다양성위원, 시민사회 등 88명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포럼 - 생태계 교란식물의 효율적 퇴치방법과 경기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례, 관리방법 및 해결책을 모색 - 경기지역의 생태계 교란식물 확산 방지 마련을 위한 사례 공유, 주요 쟁점 논의,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현장 매뉴얼 발간

2 경기 바이오블리츠 운영 지원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1차 : 3월 24일 / 두드림 2차 : 12월 12일 / KB인재니움	바이오블리츠 추진 지역 관계자, 생물다양성위원 등 40여명	경기 바이오블리츠 시군 간담회 - 생물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실천활동 프로그램 - 경기지역의 바이오블리츠 운영 기준 및 활성화를 위한 사례 공유, 주요 쟁점 논의

3 경기 생물다양성 학교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10월 6일~7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경기지역 자연생태, 도시농업 활동가 및 경기의제 위원 28명	생물다양성 일반현황과 정책, 특화 주제별 전문가 강좌의 교육 제공 종자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 토종 종자와 생물다양성, 씨드볼트 탐방

4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11월 ~ 12월	강원·경기·인천DMZ·서해접경 지역 네트워크 DMZ관련 활동가 등 60여명	DMZ일원 두루미 보호루트 워크숍 - 강원, 경기, 인천 지역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두루미 보호활동 현황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두루미 동시 모니터링 - 파주, 연천, 한강 일대 두루미 동시 모니터링

생태계 교란식물 포럼



경기 바이오블리츠 시,군 간담회



경기 생물다양성 학교



DMZ일원 두루미 보호루트 워크숍



2017년 사업전망

- 지역의 특정주제에 대한 지역밀착형 전문 강좌인 경기생물다양성학교 운영
- 서식지 보존형 경기 바이오블리츠 확대 및 통합 자료 구축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생물다양성 의제의 결합 추진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녹색사회경제위원회는 "잘먹고 잘살자 더불어"라는 의제명 아래 경기도의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해 선정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사업으로 도시농부 양성, 먹거리 교육이 선정되는 등 본 위원회 활동이 시·군 단위 지방의제21추진기구와 향후 더 밀접히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의제명 잘먹고(農) 잘살자(經) 더불어(和)

- 2 의제목표
- 목표1. 농업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목표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공동체 형성

- 3 추진전략
- 3-1. 로컬푸드 활성화 전략
전략1. 지역먹을거리 체계를 구축 한다.
전략2. 도시농업을 활성화 한다.
전략3. 올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활성화 한다.
- 3-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
전략1.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략2.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전략3. 사회적 경제를 위한 지역순환체계를 구축한다.

- 4 주요지표
- [로컬푸드 지수]
1. 로컬푸드 지역시장 점유율 지수
2. 도시농업 기반지수
3. 식생활교육지수
- [사회적경제 지수]
1. 사회적경제 협력네트워크 지수
2. 사회적기업 성장 지수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수

모니터링 사업

연번	사업명	조사기간	주요내용
1	경기도 로컬푸드 현황조사	2016년	경기도 내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데이터 및 지표 취합 후 분석 - 로컬푸드 지역시장 점유현황
2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조사	2016년	- 경기도 도시농업 기반 현황 - 경기도 사회적경제 및 관련 시책사업 현황

기획사업

1 로컬푸드 전국네트워크 평택포럼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9월 6일(화)~7일(수) / 한국 소리터 회의실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및 지방의제21 관계자	- 로컬푸드 관련 법 제도에 관한 토론,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공유, - 전국 로컬푸드네트워크 교류협력.

2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슈 포럼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영역 종사자 및 관련 행정, 전문가 등	-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 및 시책사업 공유 - 사회적경제 영역의 가치창출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 주요 주체들의 협력방안 모색

3 경기생물다양성학교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10월 6일(목)~7일(금) / 백두대간국립수목원	경기지역 자연생태 및 도시농업 활동가 등	생물다양성위원회와의 공동 워크숍으로 백두대간국립수목원 시드볼트 방문 등토종종자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학습 진행.

4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간담회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11월21일(월) 오후2시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사무국,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사업으로 선정된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자문의견 청취.



5 지속가능한 경기농정 토론회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12월7일(수) 오후2시 / KB인재니움	경기도 농업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경기농정의 미래와 준비사항에 대한 민관협력 토론

경기생물다양성학교



사회적경제 포럼



지속가능한 경기농정 토론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의 간담회



마을의제위원회



마을의제위원회는 "다 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이라는 의제명 아래 지표 모니터링 사업과 기획 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3개 지역별 마을학교 지원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와 마을에서의 SDGs 적용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 하였습니다.

- 1 의제명

다함께 살고 싶은 우리 마을
- 2 의제목표

목표1. 다양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제 작성
목표2. 다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의 공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3 추진전략

3-1.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마을의제 작성 지원 체계 구축
전략1. 마을의제 작성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전략2. 마을의제 작성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전략3. 마을의제 작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3-2. 기초자치단체 및 주민모임 평가 및 시상
- 4 주요지표

1. 마을의제 작성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수 : 31개 시·군
2. 마을의제작성 실천 지수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및 경기마을넷
3.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수 : 마을의제 작성 마을

모니터링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주체	모니터링 대상	주요내용
1	마을의제 지표 모니터링	9월~10월	마을의제 위원회	지표1. 시·군 지방자치단체 지표2.경기마을넷,지방의제21 지표3.마을공동체	- 푸른경기21 마을의제 3개 지표 모니터링 - 마을의제 작성과 실천 현황 조사와 분석

2017년 사업전망

- 경기도 로컬푸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및 지속적 점검
- 경기도 사회적경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및 지속적 점검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표에 따른 관련 녹색사회경제 영역 포럼 추진



기획사업

① 마을의제위원 전체 워크숍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7월 15일~16일 안성너리굴마을	마을의제위원회 위원 20여명	- 마을의제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론 - SDGs와 지속가능발전 특강 - 마을의제위원 간 교류 프로그램

② 삶이 있는 도시만들기 국제포럼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7월 7일(목) 인재개발원 본관 세미나실	마을활동가 등 40여명	- 일본 세타가야구 타이시도의 과거와 현재 - 지역 활동가 사례 발표 - 전문가 및 활동가 주제 토론

③ 지역별 마을학교 지원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1월~12월 구리, 하남, 광명	교육 참가자 70여명	- 구리 마을학교 현장 견학 지원 : 수원, 안산 - 하남 마을워크숍 진행 : 마을만들기와 사례 - 광명 마을학교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컨설팅

4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세미나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2월 15일(목) KB인재니움	위원 및 외부 참가자 17명	- 주제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추진 방안 - 발제 : 지속가능한 마을과 마을계획 - 지정 및 참가자 자유 토론

⑤ 네트워크 협력 및 지원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2월~12월	연인원 200여명	-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활동 협력 및 지원 -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대화모임, 활동가 워크숍, 토론회, 운영 위원회 운영 지원등

위원회 전체 워크숍



삶이 있는 도시만들기 국제포럼



지속가능한지역공동체 세미나



경기마을넷 대화모임



2017년 사업전망

- 마을의제 지표 모니터링 및 기획사업인 마을학교의 지속 추진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실천과 SDGs 적용을 위한 논의와 실행사업 시도
- 경기지역 마을만들기 주체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경기마을넷 협력 지속



삶의질위원회



삶의질위원회는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의제명 아래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그간 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역에 확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 이기도 합니다.

1 의제명 즐겁게 일하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삶

- 2 의제목표
- 목표1.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삶의 공간 만들기
목표2. 자발적 참여와 참여의 기회보장을 통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 강화
목표3.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하고 행복한 일자리

- 3 추진전략
- 3-1. 민·관 협력 네트워크
3-2. 시·군의제와의 협력에 기초한 공동 모니터링과 여론 활동
3-3. 기획사업을 병행한 홍보전략

- 4 주요지표
1. 경기도 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수
2. 주민참여지수(주민참여예산)

5 지표대비 추진 현황 (모니터링 주요결과)

지표 대비 결과		2012	2014	2016	2020	추세
유니버설디자인조례 제정 수	지표	1곳	2배 증가	4배 증가	10배 증가	
	실행	-	2곳	4곳	-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 2014년(경기도 19개 시·군 대상), 2015년(경기도 본청) 진행
- 2017년 상반기(경기도 시·군 대상 모니터링 시행 후 14년 결과와 비교예정)

모니터링 : 경기도 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건수

지표 대비 결과		2012	2014	2016	2020	추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수	지표	1곳	2배 증가	4배 증가	10배 증가	
	결과	기준년도	2곳	4곳	-	

- 현재 경기도 내 유니버설디자인조례는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①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2008-10-02 / 개정 2012-11-15)
②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제정 2013-11-11 / 개정 2016-11-08)
③ 의정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2016-05-16)
④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2016-10-12)

NO	조례명	제정년도
1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1.07.12
2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2.03.12
3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3.05.27
4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3.09.27
5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4.07.04
6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4.08.14
7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4.09.04
8	평택시 경관 조례	2015.04.14
9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2015.05.02
10	김포시 경관 조례	2016.10.31
11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6.12.30

- 유니버설디자인 단독 조례는 아니지만 타 조례에 간접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은 위 표와 같으며, 이러한 지역까지 유의미한 데이터로 삼는다면 기준년도인 2012년에 비해 지역확산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상황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충돌 등을 이유로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을 기존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이러한 지역도 지표 데이터에 추가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사업

1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학교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3월~12월 경기도 5개시 6개소	지방의제21 위원 및 지역주민 약150명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와의 협력사업으로 신청지역에 찾아가 주민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이론 및 체험교육 진행

2 주민참여예산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4월 7일(목) 오전10시	경기도 내 주민참여예산 지역네트워크 활동가	- 주민참여예산 지역 네트워크의 활동상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토의

3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심포지움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9월 8일(목) 오후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 시.군 유니버설디자인 관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추진현황 공유, 유니버설디자인 지역 확산 방안 모색 및 지역 추진사례 공유

4 2016 경기도 노동이슈 포럼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6년 11월24일(목) 오후3시	경기도 공공.민간 영역 비정규 노동자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현황 및 관련정책 공유, 경기도 비정규직 당사자로부터 듣는 고용차별 사례 및 해결방안 모색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학교



주민참여예산 지역 네트워크 간담회



경기도 노동이슈 포럼



2017년 사업전망

- 경기도 및 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주민참여 정책의 현주소 점검
- 조례제정 등 민관협력에 기반 한 유니버설디자인 지역 확산의 기반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표에 따른 관련 삶의 질 영역 포럼 추진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① 의제명 **보전되는 생태계, 성숙한 녹색경제, 풍요로운 삶의 질**

- ② 의제목표
- 목표1. 녹색경제로의 전환
 - 목표2.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기후변화 적응
 - 목표3. 생태계 보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목표4. 수요자 맞춤형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목표5.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 목표6. 책임 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③ 주요사업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는 6대 목표와 17개 전략, 61개 지표로 구성된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를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1	- 경기도 지속가능성평가지표 작성
2012	-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영문 브로슈어 제작 (RIO+20 UN지속가능발전회의 및 ICLEI세계총회 홍보) - 경기도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및 생태발자국 측정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마련
2013	- 민관협력에 기초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지원 - 경기도 지속가능성 (전화설문)정성평가 진행 - 2012년 시행한 지속가능성 시범평가 및 2013년 진행한 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도민홍보용 리플렛 제작
2014	- 경기도 지속가능성평가 지표의 시·군 시범적용 - 부천시, 연천군 지속가능성평가 시범사업 추진
2015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 시행 : 61개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에 따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기도 데이터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경기도를 평가하고, 미진한 영역의 도정과제를 발굴.
2016	- 경기도 31개 시·군 지속가능성평가 : 15년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공통지표 추가 모니터링 및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홍보 브로셔 제작

2017년 사업전망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기도지속가능성평가지표, 경기의제21의 유기적 연계체계 마련
- 경기도 지속가능성의 도민 이해증진
- 경기도 광역 및 시·군 지속가능성평가 이행을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성평가’ 지표수정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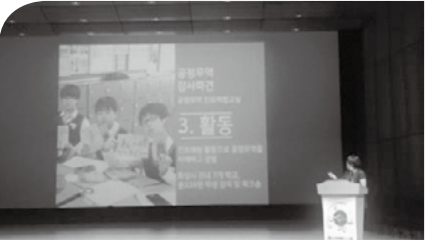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는 “따로 또 같이, 나눔과 협력으로 만드는 책임 있는 지방의제21”을 의제명으로 경기도 지역 지방의제21의 정책적·사업적·학습적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6년은 지방의제21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교류하며 협력적 사업추진으로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시·군의제21협력사업·실무자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SDGs 지표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은 미래를 견인하는 지방의제21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 일시 2016년 9월 6일(화), 오전 11시
- 장소 평택시 현덕면 소리터
- 참여대상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관계자 및 평택시민 700여명
- 주요내용 “미래를 품고, 함께 걷다!”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회
경기지방의제21 박람회 개최
제2회 경기적정기술 박람회 개최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 공동과제 선정



시·군의제21협력사업

- 사업기간 2016년 3월~12월
- 참가지역 4개권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 결과보고회 2016년 12월 20일, 오후 3시

연번	권역	사업명	주관단체	사업 주요 내용
1	동부	팔당호 생태관광 가이드북 제작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팔당권역 지역과 지역을 연계한 생태관광 코스 개발 (지역 활동가가 추천하는 코스 중심) 지역 생태 주요 거점 모니터링
2	서부	경기 서부권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통한 청소년 의제 발굴사업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경기서부권역 청소년 행복지수조사 경기서부권역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의제 선정
3	남부	제20회 평택호물줄기 청소년 환경탐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각 지역별 청소년들이 직접(오산, 화성, 수원, 안성, 평택) 하천탐사 진행 지역별 하천 모니터링 진행 [수질, 식생, 하천 자연도 조사 등] 평택호 물줄기 전체 지도 제작 안성천 수계(평택호물줄기) 및 하천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4	북부	2016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포럼 및 제거사업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계교란생물 경기북부 시 군 포럼 개최 생태계교란식물 단풍잎 돼지풀 제거작업 유해 억제식물식재 및 모니터링 실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연번	사업명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1	2016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 자 워크숍	4월7일~8일 (1박2일) 강릉일대 (소금강마을 에코센터)	경기지역 지방의 제 국.처장 및 간 사 등 80여명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권역별 사업 및 협력사업 공유 푸른경기21 사업 공유 'SDGs와 지방의제21' 교육 지방의제21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2	2016 하반기 경 기지역 지방의제 21 실무자 워크숍	11월3일~4일 (1박2일) 화성 옥란재 & 화성시 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경기지역 지방의 제21 실무자(간 사.팀장.차장.부장 등) 50여명	실무자 자존감 회복 및 상승 프로그램 진행 지방의제21의 역사와 철학 비전 공유 화성시 시티투어 착한여행 '하루' 참여
3	2016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 회장-국.처장 워 크숍	12월20일~21일 (1박2 일) 시흥 대교 HRD 센터	경기지역 지방의 제21 공동회장- 국.처장 40여명	시.군의제21 협력사업 결과보고 2017 공동사업 추진방법 논의 교육:UN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 유엔 해비타트3 이후 신도시의제와 지방의제21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교류회



공동회장 간담회

연번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주요내용
1	9월6일(화), 12시 평택 한국소리터 어울림동 회의실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회 장 및 관계자 22명 참석	교류 및 지역현황 공유 차기 개최지 선정
2	11월 17일(수), 오전11시 굿모닝하우스 (구 경기도지사 관사)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회 장 및 부지사 등 25명 참석	경기지역 SDGs 추진 현황 공유 경기 시·군 현황 공유 공동회장단 교류회
3	12월2일~21일(1박2일) 시흥 대교 HRD 센터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회 장 및 부지사 등 15명 참석	UN SDGs 이행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역할/유엔 해비 타트3 이후 신도시의제와 지방의제21 교육 시·군의제 현황 공유 및 교류회



2017년 사업전망

- 제9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시흥시)를 통한 현안 이슈 발굴 및 지방의제21의 교류 협력 증진
-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제21 공동 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강화
- 지방의제21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 (실무자 소위원회 & 간사학교 진행)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① 의제명

글로벌, 로컬, 교류협력으로 높이는 도시 지속가능성
- ② 의제목표

목표1. 국제교류협력의제 작성 및 사업추진기반 확대
목표2. 도시지속가능성 관리 수단 도입 및 활동성과의 국제공유
목표3. 지방의제21 글로벌 의제 개발 및 교육훈련체계로서 국제교류 확대
- ③ 추진전략

1. 지속가능발전 국제교류협력 추진(아시아, 국제회의)
2. 지속가능발전 정책동향 정보 제공(학습, 세미나 등)
3. 글로벌-로컬-연계시범 사업 수 확대
4. 지방의제21 활동성과의 국제공유
5.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지원

기획사업

①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 지원사업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2016년 4월 23일(토) ~ 29일(금) / 태국 매솿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협력 을 통해 추진(미얀마 난민 어린이)	미얀마 난민 어린이의 교육지원을 위해 각종 모금활동 및 행사 수익금 기부

② 제66차 UN NGO 컨퍼런스 워크숍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6월1일(수) 9시 /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HICO) 컨퍼런스 룸	푸른경기21 위원 및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동가, 일반 시민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SDGs 이행의 시민참여와 협력 : 지역에서 세계로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외 동향과 경기도 적용 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6월8일(수) 15시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1층 교육실	푸른경기21 위원 및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동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각국의 동향,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국내 추진 현황

4 2016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대학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1월2일(수) 10시 30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	푸른경기21 위원 및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동가	쟁점으로서의 다문화와 브렉시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가능성), 미래의 교통 전기자동차 등

경기글로벌지속가능 발전대학



2017년 사업전망

- 미얀마 난민 어린이 지원 사업 마무리 진행
-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대학의 꾸준한 추진을 통한 지방의제21 실무자 역량 강화
- 경기지역 지방의제21에 필요한 국제 보고서 번역 추진

태국 매솟의 미얀마 난민 어린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외 동향과 경기도 적용 방안 토론회



CHAPTER 03

2016년 사업 총괄보고

지속가능발전 기획사업

우리동네그린맵

도시대학

적정기술보급사업

경기환경포럼

자원순환마을조성사업



우리동네그린맵

‘우리동네 그린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써 세계 공통의 그린맵 아이콘을 이용하여 지도로 표현하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2016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

①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6년 3월~12월

지원규모 : 총 18,000천원

참가지역 : 신규사업 7개 지역, 지속사업 2개 지역

/ 신규사업 /

연번	사업명	신청기관	지역	사업주요내용
1	하이틴 존 그린맵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평택 관내의 기관들을 안내
2	도시텃밭 평택 그린맵	평택 녹색소비자연대	평택	평택 관내 도시텃밭 조사로 각 영역(교육기관/주말농장/아파트)에서 도시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3	오산오색시장 보물찾기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	오산 오색 시장 내 특색 있고 홍보 할 숨은 가게들을 찾는 청소년 프로그램. 재래시장의 맛과 재미를 발굴해 냄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4	안산 나들길	시화호생명 지킴이	안산	도시화로 끊어진 생태축을 파악하고 식물상을 조사함. 시민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생태 나들길을 통해 끊어진 생태축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발 생태 환경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생태 해설 자료로 활용.



연번	사업명	신청기관	지역	사업주요내용
5	수원독립운동 유적지 그린맵	꿈소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수원	수원은 독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도시이나 그 역사적 사실들이 도시의 발전과 수원화성의 역사적 • 관광적 중요성의 부각으로 묻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수원의 역사학자들과 함께 독립 유적지를 탐방하고 독립 역사를 배우면서 숨겨진 독립유적지를 지도화 하였다.
6	나무야 이름이 뭐니?	구리의제21 실천협의회	구리	관내 공원에 분포하고 있는 나무의 종류와 상태를 분포도 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화 함. 자원봉사센터 연계로 청소년 봉사단과 공원 주변 환경정화와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활동 등을 함.
7	나는야 우리동네 탐험가	군포 환경자치시민회	군포	다문화 어린이들과 지역을 탐험하여 생활에 필요한 지도를 완성하고 공유함. 영어와 베트남어 등으로 표기하여 한글을 모르는 이주민들에게 주요 관공서와 생활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 지속사업 /

연번	사업명	신청기관	지역	사업주요내용
1	지속가능한 학교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	학교를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지표를 학교 안에 최대한 담아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교 만들기 활동 진행. 프로그램 진행 후 긍정적 평가로 내년에도 추진될 예정 임.
2	우리학교 그린맵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	지난해 만든 도시농업 그린맵을 학교 텃밭 교육에 활용해 '자연을 품은 학교, 싹싹 자라는 우리들'을 주제로 교육 활동을 진행 함. 덕천초등학교와 도시농부학교 운영, 인덕원초등학교와 우리학교 그린맵 진행.

2 추진경과

공모공고 및 접수 : 2016년 3월 21일 ~ 4월 4일

사업수행기간 : 2016년 4월~12월

평가보고회 : 2016년 12월 6일(화)/오후3시/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

3 주요성과

'우리동네 그린맵'은 공모사업을 통해 경기도 시·군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동과 지속가능성한 요소를 시각화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에는 봉사·도시텃밭·재래시장·나들길·역사·생태·다문화·학교·청소년 등 주제의 폭이 넓어졌으며,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그린맵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 우리동네 그린맵 네트워크 협력사업

① The 66th UN DPI/NGO Conference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SDGs 이행의 시민참여와 협력 : 지역에서 세계로

일시 : 2016년 6월1일(수), 오전9시

장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03호

사업내용 및 결과 : 제66차 UN NGO 컨퍼런스는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4번째 목표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 "세계시민교육 :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UN DPI(유엔공보국)가 주최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의제21이 지역에서 진행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과 SDGs와 연관된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동네 그린맵은 '우리동네 그린맵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읽기'를 주제로 그린맵의 사례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용 방법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우리동네 그린맵'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SDGs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② 제9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in 정읍 자유주제컨퍼런스

“우리동네 그린맵”을 통해 그려보는 마을의 지속가능성

일시 : 2016년 9월2일(금), 오후2시

장소 : 전라북도 정읍

사업내용 및 결과 : 마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마을의 개념이나 자원 그리고 활동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동네 그린맵을 통해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그려보았습니다. ‘우리동네 그린맵’의 마을에서의 활동사례를 알아보고 마을 공동체 운동의 도구로서의 그린맵의 활용방법을 알아보고 공감하며 제안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도시를 바꾸자!
푸른경기21 도시대학

2016년까지 13회째 진행된 「푸른경기21 도시대학」은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성공적인 도시(마을)만들기 교육프로그램으로서 기능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북부권역 스튜디오형 도시대학은 기존 통합형 교육의 틀에서 통합 교육과 마을 지원이라는 시스템으로 마을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역형 도시대학의 모델을 지역의 역량을 갖춰 지역형으로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 2016년 푸른경기21 도시대학

①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지원규모 : 총2,000만원(사업별 500만원~1,000만원)
참가지역 : 7개지역(가평,구리, 고양, 의정부, 포천, 파주, 성남)에서 9개 마을 참여

사업	지역	마을	마을의제명
도시대학 (북부)	가평	이화리	배꽃 향기 머무는 문화관광 마을 만들기
		송산2리	쉼과 힐링 고
		도대2리	관청리 중봉 가는 길 생태 관광마을 만들기
	구리	인창동	우리가 꿈꾸는 마을만들기
	고양	화정동	화정 명품거리 활성화
	의정부	가능2동	모두를 위한 마을 만들기
	포천	선단동	대학과 시민이 만드는 문화마을!
	파주	금촌3동	새마을 새롭게 디자인 하다!
마을의제 작성 지원	성남	태평2동	태평이, 마을을 부탁해
녹색마을만들기지원	가평	이화리	이화리 마을 그린맵 만들기

② 추진경과

공모접수 : 2016년 3월 17일 ~ 4월 4일
공모분야 : 마을의제작성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2월
중간보고 : 2016년 10월 ~ 11월
결과보고 : 2016년 12월 31일
북부권역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푸른경기21 직접사업으로 진행(협력: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③ 주요성과

- 일괄 집체식 교육에서 집체 교육과 마을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참가 마을(지역) 주민 중심의 발전적 프로그램이 좋을 평가를 받음으로써 향후 마을 현장성을 강화한다는 방향성 기대
- 광역-지역-마을-전문가의 연결형 네트워크의 강화와 이를 통한 마을계획 추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우수한 모델 발굴하는 좋은 체계를 갖춘.
- 푸른경기21 마을만들기 활동의 방향성에 따라 스튜디오형 도시대학과 마을의제작성 지원 사업을 병행 함으로써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 제시와 사례 발굴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지역을 꿈꾸다!
적정기술 보급사업

푸른경기21 적정기술 운동은 2016년 사업 2년차로, 지역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으로서 기술, 지역의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방 의제21 추진기구의 의제 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술로서 적정기술 운동이 확산되도록 방향을 세우고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명 : 적정기술 보급사업

① 사업내용

경기지역 적정기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6년 3월~12월

예산 : 1,200만원

연번	사업명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	경기 적정기술 기획단	4월 ~ 12월	푸른경기21 적정기술 기획단 10명	적정기술 관련 기관, 전문가, 활동가등 푸른경기21 적정기술 사업 기획과 운영, 중장기 계획 등 논의
2	청소년 적정기술 캠프	7월 29일~ 30일	청소년 및 관계자 110명	· 경기지역 내 청소년 환경동아리 연계 (경기환경운동연합 협력) · 적정기술 이해와 의미등 주제 강연 · 적정기술 체험을 위한 만들기 부스운영
3	경기· 수원 적정기술 한마당	9월 3일(토) 수원시기후변 화체험교육관	행사 참여자 300여명	· 경기지역 적정기술 사례 공유와 홍보 · 청소년 적정기술 아이디어 대회 · 체험 및 아이디어 대회 전시 부스 운영 · 활동가 및 전문가 적정기술 집담회
4	제2회 적정기술 박람회	9월 6일(화) 한국소리터	행사 참여자 500여명	· 전시 : 햇빛온풍기, 적정기술 냉방기기등 · 워크숍 : 햇빛 저금통 만들기 50여명 · 참여부스 : 옷걸이 디자인(염지홍 디자이너)

연번	사업명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 (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5	2016 적정기술 학교	12월 3일~24일 수원시기후 변화체험 교육관	교육 참가자 30여명	· 목공, 태양광, LED등 적정기술 워크숍 · 강의를 통한 이론학습과 실습 병행 · 디자인씽킹 문제 해결 적정기술 워크숍

② 주요성과

청소년 적정기술 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가 양성과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등 경기지역에서 적정 기술 활성화를 위한 2년차 사업 추진.

특히 지역 내 적정기술 관련 추진 기관과 여러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2017년도 연속사업의 방향을 연계하 는 방안 등 소통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기도 적정기술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푸른경기 21와 기획위원회의 활동 연계 기대.

푸른경기21 적정기술 기획위원회 청소년 적정기술 캠프



적정기술 박람회



적정기술 학교



2016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사회-사회협력사업(공모)

2016기후학교 : 흥미진진 적정기술학교

① 사업목적

- 기후변화시대에 적응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기술을 도입한 교육을 실시함
-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배움
-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에서 마을 공동체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대를 넓히는 계기 마련
- 지역 작은 도서관이 에너지 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됨

②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전기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절전멀티탭 사용을 추진함
-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을 알아보고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LED스탠드를 제작하는 활동을 함.
- 자연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태양광 핸드폰충전기를 만들어 봄
- 아빠와 함께하는 적정기술 워크숍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열 오븐조리기를 만들어보고 에너지 사랑방 활동과 절전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모임을 만듦.

③ 주요성과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처를 위한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 생산에 대한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절전 멀티탭과 에너지 절전소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임을 알게 됨.
- LED스탠드,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햇빛 저금통, 태양열오븐조리기 등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적정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을 체험 함.
-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에너지 사랑방(절전소)이 되어 지역민들이 에너지 및 적정기술과 관련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



※경기도환경교육센터 「2016 사회사회협력사업」으로 공모 받아 '사회호 생명지킴이'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경기환경포럼

- ❶ 사업목적

- 경기도 환경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포럼을 통한 다양한 환경 정책 제안
 - 환경문제 현안 논의, 대안제시, 해결책 모색
 - 환경 아젠다 발굴 및 확산
 - 발굴된 정책 제안 및 예산 반영
- ❷ 사업내용

분과별 및 전체 포럼을 통한 정책 제안
- ❸ 사업결과

- 한 경 교 육 : 거점 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 자 연 생 태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녹 색 소 비 : 민간분야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
 - 생 활 환 경 : 미세먼지 성분 측정망 설치
 - 기 후/에너지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부서 역량 강화
 - 물 : 유역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17년 사업전망

- 2016년 발굴된 정책 예산 반영 추진
- 지속적인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추진
- 분과 포럼 위주에서 전체 포럼 위주로 사업 변경

추진경과

창립포럼



제2차 포럼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정책 워크숍



정책 간담회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자원순환마을조성사업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5년차를 맞이한 초록마을대학은 올해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초록마을대학과 자원순환마을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민(民)-관(官), 광역(도)과 기초(시·군)의 협력형 주민주도 마을 단위 환경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는 쓰레기제로와 자원순환을 2013년에는 에너지 절약 부분까지 2014년에는 외국인 쓰레기 문제를 포함하는 주제 확장을 해왔습니다. 초록마을대학은 5년간 총 53개 마을이 다양한 주제로 좋은 사례를 남겼으며, 자원순환마을은 2016년 마을의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6개 마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주민의 삶과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자원순환 공동체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 2016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 ①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지원규모 : 총 156,836천원(12개 지역 15개 마을)
참가지역 : 초록마을대학 9개 마을, 자원순환마을 6개 마을

구분	지역	마을	소속(단체명)	사업명
초록 마을 대학	가평	개곡2리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과 농촌형 적정기술 보급사례 워크숍
	구리	구리인창 현대 홈타운아파트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우리가 실천하는 녹색생활
	군포	군포1동, 당정동일대	인생나자작업장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up-cycling
	성남	금곡동 청솔마을	성남환경운동연합	재사용과 나눔을 실현하는 마을

구분	지역	마을	소속(단체명)	사업명
초록 마을 대학	안산	원곡본동	원곡본동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	종량제봉투가 꽃보다 아름답다
	안양	동안구 일동로	정다운 골목	자원순환마을학교 襍R
	양주	오산4리	섬표 동아리	느티 섬표 마을
	평택	신대리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에 가치를 입히다”
	의왕	성원1차아파트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기에너지는 줄이고, 마을에너지는 올리고!
자원 순환 마을	구리	인창동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도전! 쓰레기 제로 마을
	군포	산본1동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원순환 산본마을만들기
	성남	하대원동	직장새마을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green 동네
	수원	송죽동, 행궁동	협동조합 마을발전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원순환마을
	안성	우곡마을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순환 어리실 마을
	파주	봉일천6,7리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더 깨끗하고 더 정겨운 봉일천

- ② 추진경과
-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푸른경기21<=>경기도) : 2016년 3월
· 사업공모 : 2016년 3월 21일 ~ 4월 4일
· 대상마을 공모 선정 : 2016년 4월 19일
· 개강식 : 2016년 4월 28일 오후 1시30분/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 하프타임워크숍 : 2016년 10월 6일 오후 2시/안양YWCA
· 주민학습 성과발표회 : 2016년 12월 12일 오후 2시/경기도 여성비전센터
- ③ 주요성과
- 자원순환마을과 초록마을대학 주민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주체 형성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마을의제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유도
· 경기도 내 15개 마을에서 각 지역의 특징적인 쓰레기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 교육과 실천 학습을 통해 다양한 사례 발굴
· 경기도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마을단위(커뮤니티) 실천형 사업 모델의 추진



환경보전실천운동

① 사업목적

- 경기도 환경 보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에 대한 실천 운동
- 5개 위원회 및 3개 특별위원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 생태계 교란식물, 지역 하천 등 경기도 환경국 현안관련 공동사업 진행으로 파트너십 제고

② 주요사업

-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 : 6월9일 / 대진대학교 / 생물다양성위원, 경기 북부권역 시,군의회 등 88명

①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포럼

: 생태계 교란식물의 효율적 퇴치방법과 경기 북부지역에서 이루어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례, 관리 방법 및 해결책을 모색

②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 경기 북부권역 제거 사업 및 대체식물 식재를 통한 모니터링 진행

· 안성천 수계 토론회 “지속가능한 하천 만들기”

: 11월23일 /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 지역 관계자, 환경활동가, 공무원, 지방의제21위원 등 50여명

: 20년 동안 안성천 수계 중심으로 모여 안성천수계 실천계획 사례 및 추진현황 공유 및 향후 방안 모색

③ 주요 결과

- 관 주도가 아닌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하천 관리 및 지역관리가 아닌 수계 관리가 필요.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다양성 변화 측정 및 회복방안에 대한 접근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보전 노력 필요.
- 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타 시,군의 활용가능성과 확산 계획을 마련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안성천 수계 지속가능한 하천 만들기 토론회



남한강 생물다양성 시민모니터링 사업

① 사업목적

남한강(여주시) 수변 생태공간의 생물다양성을 확인함으로 생태계 현황을 밝히고 생태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호지역 지정 등의 생태계 보전 대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② 주요사업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③ 사업 결과

- 남한강 인공 구조물 설치 사업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생태모니터링 및 사회영향 조사로서 추후 추가 연구에 대한 참고 자료 활용
- 향후 남한강 사업 이후의 생태 및 사회적 변화상에 대한 변화상 확인
 - 생물다양성 진행 현황 확인 : 보 설치 이전에 없던 생물 확인
보호 관리를 위한 안내판 설치 시급,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추이 분석 필요
 - 사회·경제적 진행 현황 확인 : 보 설치 이후 경제적 변화(일자리, 지가 상승 등)가 미미 한 것으로 판단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2017년 사업전망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이 분석 필요
- 변화상 분석 및 대안 제시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 ❶ 목적
-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기회 마련
 -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및 이행 현황 교류, 협력 방안 모색
 - 시민 참여를 통한 국내 생물다양성 이슈 현안 공유 및 토의
 - 지방의제21차원의 SDGs 내 생물다양성관련 목표 설정 및 공동 지표 수립 논의

- ❷ 포럼 개요
- 행 사 명 :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 주 제 : 지속가능성을 더해, 생물다양성을 그리다
 -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13:00 ~ 9월 6일(화) 10:30
 - 장 소 : 평택호 그랜드호텔
 - 주최 · 주관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후 원 : 경기도
 - 참 여 대 상 : 약 200여명(생물다양성 관련 공무원, NGO, 지방의제21, 시민, 전문가)
 - 주요내용 : · 기조강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동향 및 우리의 노력
 - 세션1.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 현황과 증진 방안
 - 세션2. SDGs와 생물다양성 과제
 - 세션3. 생물다양성 모두토론· 포럼 결과 정리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❸ 일정

9.5(월) : 1일차	
일시	주요내용
12:00	등록 및 안내
13:00-14:00 (‘60)	● 행사소개 및 환영인사 - 내빈소개 - 개회사 - 격려사
	● 기조강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동향 및 우리의 노력 - 생물다양성과 세계정책 동향

14:00-16:00 (‘120)	● 세션1.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 현황과 증진 방안 사례발표 -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과정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 제주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정과 특징 - 울산시 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정과 특징 - 수원시 생물다양성 실천 과제의 수립과 이행 현황 패널토론 :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16:00-16:10 (‘10)	휴식
16:10-17:50 (‘100)	● 세션2. SDGs와 생물다양성 과제 전체발표 : SDGs와 경기도 생물다양성 활동 그룹토론 :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을 위한 토론 - SDGs와 생물다양성의 연계를 통한 공동의 목표 선정
17:50-18:00 (‘10)	휴식
18:00-19:00 (‘60)	● 세션3. 생물다양성 모두토론 - 모두발언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간 의견교류 발제주제 및 발제자 - 생물다양성관련 지역의 이슈 및 활동 공유 - 생물다양성의 보고, 강화갯벌의 보존방안 - 인천경기지역 이동성물새 서식지 보존 - 생물다양성을 위한 하천 숲 가꾸기 - DMZ&임진강지킴이, 준설반대를 넘어 생명평화운동으로 - 생태계교란식물관리 및 제거와 GIS를 통한 과학적 관리
19:00-21:00 (‘120)	환영 만찬 및 네트워킹



9.6(화) : 2일차	
일시	주요내용
07:30-09:00 (‘90)	아침 식사
09:00-10:30 (‘90)	● 포럼결과 정리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 세션 결과 공유 - 차기 포럼 개최지 발표 - 의견 공유 및 마무리

4 주요 결과

- 지역단위 특성에 맞는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LBSAP) 수립과정에 대한 공유와 이를 토대로 국내 확산, 도시 간 교류와 연계에 기초한 협력적 추진 필요성 공감
-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 필요 : 시민 인식증진 사업 강화, 시민 모니터링의 체계화 결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생물다양성 간 연계방안 논의와 이를 토대로 지역 실천 활동의 근거 제시
- 차기 포럼은 인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명
- CBD COP13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증진노력에 기여하는 것 필요

5 제언

-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전략, 제도, 예산, 인력 등) 정립
- 국내외 정책동향 파악과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생물다양성 지역 포럼을 통하여 지역별 정보 공유 및 국제 동향 공유
-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 논의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지역의 공동 포럼 주체가 필요
- 주요 정책과 생물다양성 실천 과제 연결성 강화

6 포럼 모습



CHAPTER 03

2016년 사업 총괄보고

기후변화대응사업

그린캠퍼스만들기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2016 경기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I.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

① 그린캠퍼스 인프라개선 지원사업 (총 예산 668,000천원)

사업기간 : 2016년 7월 ~ 12월

지원내용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및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설비 (장비) 교체 또는 구축
(자부담 50% 이상)

총사업비 : 1,542,990천원 (국도비보조 668,000천원, 자부담 875,240천원)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8개 대학

사업성과(예상치) : 총 에너지 절감율(평균) : 33.1% 연간 CO2 감축량 : 526.4ton

각 학교별 지원 현황 및 에너지 절감 예상 추정치(이산화탄소 발생 절감량)

번호	대 학 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주요내용
1	국제 대학교	58,780천원	27,000천원	31,780천원	- 학교 가로등 LED 교체 - 에너지절감율 : 60.8% - 연간 CO2 감축량 : 13ton
2	계원예술 대학교	224,000천원	112,000천원	112,000천원	- 건물자동화 시스템(BAS), 에너지관 리시스템(BEMS) 구축, 지열 히트펌 프 설치, LED 교체, 절수시스템 설치 - 에너지절감율 : 34% - 연간 CO2 감축량 : 54ton
3	동남보건 대학교	343,710천원	98,000천원	245,710천원	- 학술정보관 LED 설치 - 에너지절감율 : 46% - 연간 CO2 감축량 : 113ton



번호	대 학 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주요내용
4	성결 대학교	217,000천원	81,000천원	136,000천원	- 기념관 LED 교체, 고효율 보일러 교 체 - 에너지절감율 : 35.7% - 연간 CO2 감축량 : 47.6ton
5	신구 대학교	161,500천원	80,750천원	80,750천원	- 75kw 태양광설치 설치 - 에너지절감율 : 1.8% - 연간 CO2 감축량 : 39.5ton
6	신한 대학교	170,000천원	85,000천원	85,000천원	- 건물자동화 시스템(BAS), 에너지관 리시스템(BEMS) 구축, 고효율 펌프 및 냉난방 배관 개선 - 에너지절감율 : 1.81% - 연간 CO2 감축량 : 69ton
7	아주 대학교	122,000천원	61,000천원	61,000천원	- 중앙도서관 및 종합관 지하주차장 LED 설치 - 에너지절감율 : 36.5% - 연간 CO2 감축량 : 63.8ton
8	협성 대학교	246,000천원	123,000천원	123,000천원	- 건물자동화 시스템(BAS), 에너지관 리시스템(BEMS) 구축, 학술정보관 LED 교체, 절수시스템 - 에너지절감율 : 48.2% - 연간 CO2 감축량 : 126.5ton
총계	총 8개 대학	1,542,990천원	667,750천원	875,240천원	- 총 에너지 절감율(평균) : 33.1% - 총 연간 CO2 감축량 : 526.4ton

조명 LED 교체



태양광 시설 설치



통합 BEMS 구축



2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개발 지원

■ 경기도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개발 공모사업

사업기간 : 2016년 7월 ~ 12월

지원내용 : 그린리더십 교육과정에 적합(환경, 기후변화, 사회, 경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통합적으로 어
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 전반에 해당하는)한 16차시 교과 개발 및 운영

사업현황 및 학교별 지원현황 : 경기도 소재 5개 대학

번호	대학명	교과명	신청분야 교육과정
1	경희대학교	기후와 에너지	신규교과개발 / 교양과목 (3학점)
2	협성대학교	환경과 성장	신규교과개발 / 교양과목 (3학점)
3	한신대학교	국제협력 실천론	기존교과보완 / 전공선택 (3학점)
4	신한대학교	그린 스마트-카	기존교과보완 / 전공선택 (3학점)
5	경동대학교	환경과 인간	기획강좌개설 / 교양과목 (2학점)

■ 경기도 그린리더십 활성화 워크숍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 19일(토)

장 소 : KB인재니움 다목적홀

목 적 : - 경기도형 그린리더십 교육과정 확산 방안 모색

- 국내외 그린리더십 추진 사례 학습 및 경기도형 그린리더십 도입 방안 토론

참석대상 : 그린리더십 공모사업 참여학교 및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회원, 대학관계자 등 20여명

주요내용 : - 일본 사회통합교육(지역창생학부) 사례를 통한 경기도그린리더십 추진 방향 제안 (미야케 히
로유키 키타큐슈 시립대학 교수)
- 대학 그린리더십의 필요성 및 활동 내용 공유, 경기도형 그린리더십 추진을 위한 방향 제안(김
남수 서울대학교 AIEES 객원연구원)
- 2016년 그린리더십 교육지원 사업 참여대학 교과과정 및 진행 상황 공유 (5개 대학)
- 경기도형 그린리더십 교육과정 도입 및 확산 방향 토론



- 사업성과 :** - 전문가의 강연과 학생들의 실천적 활동, 두 축으로 진행하면서 에너지와 기후 문제를 단지 지식 또는 이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환경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 참여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소개로 그린리더로서 기본적 소양을 배양하는데 성공적이었음.
 - 다양한 사례의 외부강연을 통해 실천적이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 폭넓게 사고해 보는 기회가 됨.
 - 경기도 그린리더십 사업에 대한 대학의 이해와 확산 분위기 조성의 기회가 됨.

경희대학교 조별 과제



경동대학교 현장활동



한신대학교 국제세미나



II. 연구사업

① 경기도 그린리그제 시범척도(모델) 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10월 ~ 12월
- 목 적 :** - 경기도 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방향 제시
- 기후변화시대 저탄소 그린캠퍼스를 위한 대학의 노력들에 대해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및 평가.
 - 그린캠퍼스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의 방향 제시
- 참여인원 :**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 그린캠퍼스 인프라개선 사업 팀)
- 김남수 (서울대학교 AIEES 객원연구원)
- 이영기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사무국 행정부장, 신한대학교)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경기도그린캠퍼협의회 운영위원)
- 주요결과 :** 2017년 경기도 그린리그제 시범척도(모델) 개발

III. 대학생 활동지원 (차세대 그린리더 육성 지원)

① 그린캠퍼스 대학생 환경동아리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7월 ~ 12월
- 지원내용 :**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운동 및 그린캠퍼스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경기도 내 12개 대학생 동아리 (150만원 ~ 200만원 내외)
- 김남수 (서울대학교 AIEES 객원연구원)
- 이영기 (그린캠퍼스 총장협의회 사무국 행정부장)

주요결과

번호	대학명	동아리명	주요내용
1	가톨릭대학교	농락	벽화 및 게릴라가드닝, 로컬푸드 활성화, 이면지노트 활용
2	경동대학교	The With	친환경 건축 컨설팅, 에코백 나눔, 텀블러 사용 홍보, 도시개발 모형 제작
3	경동대학교	그린피아	학내외 환경정화활동, 아동 환경교육, 금연간판 제작 및 분리수거 쓰레기통 비치
4	경희대학교	한누리	친환경 부자 만들기
5	김포대학교	유레카	재활용품 이노베이션 에코 디자인 캠페인
6	대진대학교	그린캠퍼스단	잔반 없는 날, 칼로리 계단
7	신구대학교	Nature+	도서교환 시스템
8	신한대학교	그린폴리스	의정부시 사생대회, 환경교육, 아름다운 가게, 환경교실 체험교육, 유기농 텃밭, 축제 환경 부스
9	한세대학교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	에너지 친환경 실천캠프, 친환경 디자인 일본 답사기행, 전문가 특강, 친환경실천디자인 연구



번호	대학명	동아리명	주요내용
10	한신대학교	에코말리온	이면지 활성화 프로젝트, 옥상텃밭, 깨끗한 거리 만들기,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내손으로 김치, 화분키우기
11	협성대학교	청춘에그린	- 대학 내 환경정리 등 그린캠퍼스 조성 캠페인

주요성과 : - 전체 11개 그린캠퍼스 동아리 중 6개의 신규 동아리를 발굴하게 됨.
- 대학의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주체인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됨.

2 대학생 정책제안대회 (청년지대 아이디어 대회)

일 시 : 2016년 8월 25일(목) ~ 26일(금)
주최·주관 : 광역 그린캠퍼스협의회 및 지방의제21(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북, 대전, 대구)
장 소 : 경기창작센터
참여인원 : 전국 5개 광역 그린캠퍼스 활동 대학생 및 관계자 등 70여명
주요성과 : - 광역 그린캠퍼스협의회(경기, 강원, 충북, 대전, 대구, 전북), UNEP 한국 위원회 등 그린캠퍼스 및 지속가능 활동을 하는 광역협의회 및 대학생들의 연대 기회 제공
- ESD 및 SDGs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증진 및 SDGs를 주제로 한 대학 내 정책(아이디어) 논의
- 그린캠퍼스 활동 확산을 위한 광역 네트워크 연대의 필요성 및 결속력 강화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생 실천캠프

사업내용 : 노후도심, 농촌도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진단, 효율개선 및 단열활동 및 마을 개선 활동 진행
참여주체 : 경기지역 11개 동아리 대학생 60여명 및 2개 마을 주민, 지역 단체 (가평군지속발전협의회,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대부도고랫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등)
사업대상 : 농촌 지역 2개 마을(가평군 승안2리, 안산시 대부남동) 독거 및 저소득층 51세대 방문 활동
사업결과 : 방한 제품(뽕뽕이) 설치, 적정기술 화로 제작,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에너지 효율제품 교체(LED 전구, 멀티탭), 군부대 벽화 작업, 이미용 봉사, 정화활동 등
주요성과 : - 대학생의 마을 활동을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 노후 공동체에 대한 인식, 대학생 활동의 방향과 고민 기회 제공
- 에너지와 관련한 교육 및 실질적인 효율개선으로 독거 노인 주택 혜택 기회 제공
- 마을 내 대학생 활동으로 인한 생기부여
- 지역 유관기관 협력으로 통한 활동 시너지 창출



IV. 교류 및 협력사업

① 그린캠퍼스 선진 사례지 견학

- 연수목적** : - 일본지역 그린캠퍼스(에코캠퍼스, 지속가능대학) 관련 활동 우수 대학 견학 및 사례 학습
- 경기도형 그린캠퍼스 운동에 대한 고민 교환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 방문기간** : 2016년 8월 30일(화) ~ 9월 2일(금) 3박 4일
- 방문장소** : 일본 도쿄 4개 대학 및 단체
(국립치바대학교, 도쿄대학교, 사립학교환경협의회, 그린버드)
- 참여인원** : 대학 교수 및 교직원, 대학생, 사무국 등 19명
- 주요성과** : - 일본 지속가능발전대학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 대학방문을 통한 학교 운영 및 시사점 학습.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대학생, 대학의 활동 영역 및 범위 확장에 대한 가능성 확인 (활동 콘텐츠 획득)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학의 역할 및 책임,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기회 제공

치바대학교



도쿄대학교



그린버드 활동 체험



② 그린캠퍼스 담당자 연수

-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 16일(금)
- 장 소** : 인천대학교
- 참여대상** : 환경부 저탄소 그린캠퍼스 참여대학, 광역 그린캠퍼스협의회 및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계자 등 30여명
- 주요내용** : - 저탄소 그린캠퍼스 참여대학 및 관심대학간 사업 내용 공유
- 광역지방의제21추진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그린캠퍼스 활동의 지역확산과 협력 방안 논의 등
- 주요결과** : - 그린캠퍼스 활동 관련 중요한 부분으로 학교 총장을 포함한 행정조직의 의지, 지속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공시 또는 등 학교 구조조정 평가 내용 중 가산 항목에 포함), 행정적, 구조적 체계(활동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산 및 중장기 지원 정책, 협력 체계) 마련이 최우선 항목임에 공감함.
- 그린캠퍼스 활동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간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기로 함.
- 그린캠퍼스 활동의 학교 및 지역내에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행정간 지원체계 즉 광역협의회를 통한 사업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국회 정책포럼에 제안 내용으로 제안하기로 함.
- 그린캠퍼스 운동에 참여하는 대학 관계자들의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됨.



③ 그린캠퍼스 정책포럼

■ 그린캠퍼스 광역협의회 정책포럼

일 시 : 2016년 11월 14일(월) ~ 15(화)

장 소 : 제주시 호텔 엘린

참여대상 : 광역 그린캠퍼스 협의회, 광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환경공단, 그린캠퍼스총장협의회 등 20여명

주요내용 : - 그린캠퍼스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POST 저탄소 그린 캠퍼스 사업 이후 저탄소 그린 캠퍼스 사업 방향 공유
- 광역 그린캠퍼스 협의회 활동내용 및 현황 공유
-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안 및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그린캠퍼스 활동간의 협력 방안 논의

주요결과 : 그린캠퍼스 활성화 방향 토론 및 제안, 국회 정책 포럼 내용 도출

- ① 그린캠퍼스 광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안
- ② 교육부, 환경부를 통한 대학참여를 위한 정책, 제도적 방안 제안
- ③ 대학생 참여 확산을 위한 내용 제안



■ 그린캠퍼스 국회 정책포럼

일 시 : 2016년 12월 23일(금) 오후 2시

장 소 : 제주시 호텔 엘린

참여대상 : 광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린캠퍼스협의회 및 그린캠퍼스총장협의회, 환경부, 교육부, 그린 캠퍼스총장협의회,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총장, 교직원 및 관계자, 경기도 등 50여명

주요내용 : - 발제 1. 그린캠퍼스 조성 활성화 및 사업 추진 방향
- 발제 2. 그린캠퍼스 활성화 방안 제안
- 발제 3. 그린리더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토론 - 그린캠퍼스 확산 및 활성화 방향 논의

주요결과 :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주요 아젠다에 그린캠퍼스 운동 및 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대학의 역할과 기대들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 환경부를 포함한 참가자 모두 다시 한 번 공감함,
- 기존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이 친환경, 녹지조성, 시설구축, 교육 등의 부분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그린캠퍼스 Ver 2.를 준비해야 할 시기. 그린캠퍼스에 대한 명확한 그린캠퍼스의 개념 및 방향을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 필요에 공감함.
- 그린캠퍼스 운동의 확산과 관련하여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린캠퍼스 운동의 지속성과 확산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부분,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국가사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공시부분 반영 등의 정책 및 제도적 내용 제안.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1. 사업명 : 경기도 저탄소실천 그린홈 지원 공모사업

-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기도내 5지역 (531가구)
 사업기간 : 4월 - 12월
 사업내용 : 자원순환 주제 14개 마을, 에너지 주제 1개 마을

비 전	경기도 저탄소 실천 사업 방향 및 정책 기반 마련 경기도 내 비산업부문의 저탄소 실천 운동 방향 제시 및 확산
취 지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을 및 사업 추진 지원(조직, 교육, 시설교체 등)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지 속적인 저탄소 실천 운동 정착

추진 방향	사업 내용
거점 유형에 따른 진단 방식 설계 및 모델화	공동체 유형별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모니터링)
진단 및 활동에 따른 객관적, 구체적인 컨설팅 성과 도출	⇒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에너지 절감량 분석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실천운동	가정(주민)조직 등 사업추진 이해당사자들간 네트워크 조직 및 활동 지원

- 지역별 100~130가구, 가정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활동
- 에너지진단 가구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가입

추진 현황

지역	사업명	단체명	대상가구
김포	新“가가호호 우리가 탄소하마”	녹색김포실천협의회	100
군포	아는만큼 아껴지는 전기에너지	군포환경자치시민회	130
고양	그린 업 (green up!)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100
의왕	마을이 에너지다!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
수원	『그린성장! 탄소다이어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100
합계			530

- 사업결과 : ① 531가구 에너지 진단 컨설팅 추진
② 각 가정 및 마을 단위의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저탄소 실천 활동 확산
③ 133가구 절감성공 (30%) 성공가구 절감량 24,673kg (유효데이터 기준)



추진기관별 주요활동

아는만큼 아껴지는 전기에너지

대상마을	대원칸타빌, 휴먼시아 아파트
단 체 명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사 업 주요내용	에너지 사용량 10%줄이기 협약식 10%에너지 줄이기 및 에너지 진단 홍보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130가구) 절전제품 보급 및 에너지절약 실천단 조직 에너지진단가구 에너지사용현황 모니터링 에너지절약 녹색아파트 만들기 군포지역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성과	10%에너지 줄이기 진단 및 컨설팅(130가구) 에너지 줄이기 실천단 조직 에너지절약 인식 구축 에너지절약 녹색아파트 만들기 확산
향후계획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에너지 절약 마을만들기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 (6. 18)



에너지진단,컨설팅(8월)



新가가호호 우리가 탄소하마

대상마을	풍무동 신동아아파트
단 체 명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 업 주요내용	100가구 대상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모니터링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아파트 주민 간담회 및 컨설팅 소개
사업성과	한 아파트단지 내의 100가구를 조사해 지역 에너지 사용량을 인식함. 컨설팅을 통해 가정에너지 절약에 대해 스스로 알고 실천할 토대 마련함.
향후계획	풍무동 신동아아파트 거점 지역으로 활용 2017년 컨설팅 활동 단지 내 확대

캠페인(7.25)



주민결과보고회(12.01)



추진기관별 주요활동

영구임대 아파트 내 에너지코디네이터활용을 통한
에너지 과소비 예방 프로그램 『그린성장! 탄소다이어트!』

대상마을	능실마을22단지
단 체 명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사 업 주요내용	대상자 모집 및 선정 지역주민 및 어린이 그린교육 진행 지역 내 캠페인활동 진행
사업성과	협약식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 본 사업에 대한 공감유도 홍보지 부착 및 기념품 제공을 통한 대상자 모집을 유도하였으나 영구임대 내 어르신들 의 참여율 저조 그린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지역사회 내 에너지 절약 공감대 확산
향후계획	에너지 진단(실인원모집 완료) 및 모니터링의 마무리를 통해 저탄소 실천운동 및 주민 참 여 확산 저탄소 실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호매실동 내 저탄소 실천 거점기관으로의 성장

탄소다이어트 캠페인(08. 25~26)



그린교육(2016.11. 09)



그린 업(green up)

대상마을	화정동 별빛마을10단지 옥빛마을17단지
단 체 명	소비자시민모임고양지부
사 업 주요내용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활동 (100가구)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그린리더 활동 및 주민 주도 에너지 절감운동 추진
사업성과	100가구 가정에너지 진단컨설팅 가정에서의 실질적 에너지 낭비 방지와 저탄소운동 생활화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후계획	그린리더 활동 및 주민 주도 에너지 절약운동 활성화 주민공동체 형성 및 민간협력사업 모델 발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주도 운동 확산

진단컨설팅(7.12)



홍보캠페인(8.29)



추진기관별 주요활동

마을이 에너지다! (반도보라 2단지)

대상마을	반도보라2단지
단 체 명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 업 주요내용	100가구 이상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소등행사를 통한 주민화합 및 공동체 문화형성 주도 그린리더 활동 및 주민 주도 에너지 절감운동 추진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지역 선도사례 발굴
사업성과	지역차원의 에너지절약운동 주도 100가구 이상 가정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실시
향후계획	주민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협약식 및 회의(7.21)



에너지진단활동 (7~8월)



소등축제 (10.26)



소등축제 (10.26)



2. 사업명 : IoT 시범사업 우리집 녹색지구를 꿈꾸다!!



● **사업배경** 각 가정에 IoT 기기 설치 후, 에너지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IoT 서비스 와 무선교육(Wifi AP) 기술을 기
반으로 한 가정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 추진

● **사업개요** **참여대상** : 경기도내 5지역 (531가구)
참여조건 : - 에너지절약 및 실천 의지가 있는 가구(전년 동월대비 1년간 전기사용량 제출)
- 신청시점 1년 이전거주자로서, 설치기준 1년이내 이사 등 변동없는 가구
- 전기사용량 200Kwh/월 이상 가구
사업기간 : 2016년 7월 ~ 2017년 12월 (신청일 기준 1년)
지원기기 :

정확한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수 있는
'에너지미터'



낭비전력 막아누진세,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플러그'
대기전력 차단, 원격
On/Off



『현재요금 및 전기
절약상태』를 재미있게
확인 가능한 '모바일앱'



※ IoT 시범사업은 2017년 지속사업으로 2017년 데이터 축적 후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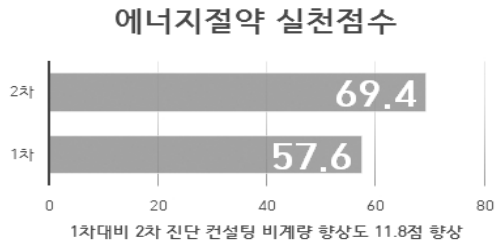
3. 사업명 : 상가진단 사업

- **사업배경** - 비산업부문 분야의 가정, 학교에서 진단·컨설팅에서 상가까지 사업장 확대를 통한 저탄소 실천 동 확산
 - 상가진단 시범사업 추진으로 상가진단 설계 및 모델화
- **사업개요** **사업대상** : 작은도서관, 유치원, 노인정 등 51개소 (안양, 의왕, 용인 지역)
 사업기간 : 11월~12월
 사업내용 : 상가진단 컨설팅
- **사업결과** 성공 상가 수 18개소, 성공상가의 감축량 5,847kg

훈격	시상교
경기도교육감상	시흥매화고등학교
경기도지사상	역북초등학교
한국에너지 공단 이사장상	군포신기초등학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회장상	주곡중학교
	백현초등학교

4. 사업명 : 경기도 그린스쿨

- **사업배경** 경기도 초·중·고 학교 대상 에너지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및 학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활동 유도 및 에너지 절감 문화 전파 및 확산
- **사업개요** **사업대상** : 경기도 초, 중, 고등학교 140개교 (15년 에너지다소비 학교, 경기도 교육청 선정)
 사업내용 : - 경기도 내 학교를 대상으로(초·중·고) 에너지사용 실태 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 그린스쿨 컨설턴트 대상 실무 교육
 - 우수 그린스쿨 선정 및 시상
- **사업결과** 1. 경기도 140개교 그린스쿨 인증
 2. 절감성공 학교 26개교(18%), 성공 학교 전기절감량 100Mwh
 3. 에너지절약실천점수 1차점수 57.6점→ 2차점수 69.4점, 1차 대비 2차 비계량 향상도 11.8점 향상
 4. 우수 그린스쿨 학교 및 담당교사 시상(최우수학교 사회공헌기금 지원)



5. 사업명 : 네트워크 교육 및 교류 활동

5.1 경기 컨설턴트 인증 교육 및 양성

■ 컨설턴트 인증교육

일자	교육명	횟수	참여인원(명)
5.3/5.4/5.30	2016년도 비산업부문 사업장 진단·컨설팅 기본교육	3	306
6.9/6.10	2016년도 비산업부문 사업장 진단·컨설팅 심화교육	2	169



■ 컨설턴트 양성결과

구분	1종	2종	3종	합계
양성인원(명)	106	49	114	269
진단 분야	가정	상가, 가정	학교, 상가, 가정	



5.3 경기지역 진단 컨설팅 추진현황

구분	가정	상가	학교	합계
진단 컨설팅(수)	2,723	426	170	3,319

(17.01.02 집계현황, 진단컨설팅 통합 관리시스템)

5.4 2016 그린리더 한마당

- 가. 일시 : 12월 16일(금) 오후2
 - 나. 장소 : 안양아트센터
 - 다. 참여인원 : 150여명
 - 라. 주요내용 : 우수 컨설턴트 및 그린스쿨 우수학교 시상, 우수활동사례 공유 및 기후환경강좌, 온맵시 캠페인 등
- ※ 교류협력 사업보고 참조

5.2 기타 교육 및 교류활동

일자	사업내용	횟수	참여인원(명)
8.29	컨설턴트 전산 입력 교육	3	306
5.18	담당자 시스템도우미 전산입력 교육	2	169
5.11	2016 그린스쿨 컨설턴트교육	1	25
4.15/8.29	비산업부문 사업장 진단·컨설팅 간담회	2	76

16년 상반기 간담회



담당자 시스템 도우미 전산입력 교육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주요 사업명 : 기후변화 교육활동 지원 사업

○ 기후변화 교육 활동 지원

① 기후변화 중급 심화교육 “기후학교 소·나·기”

사업목적 : 경기지역 우수 기후에너지 교육인력 양산 및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교육 활동 확산”및 “우수인적자원 확보”.

사업기간 : 2016년 6월 13일(월) ~ 6월 16일(목)

참여대상 : 경기권역 기후 및 환경관련 활동가 및 강사

횟수 및 참여인원 : 총 7강(4일) 39명 신청 / 38명 수료

- 특징** : - 기후관련 국내외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중급수준의 전문 심화교육.
- 주제별 최고 분야의 전문가 섭외.
 - 교구교안 개발 이론 및 실습, 독서토론, 매 회 지역별 활용교구 시연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진행 톨의 다양화.

주요내용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6월 13일 (월)	열기	13:30 ~ 14:00	여는말	송 숙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위원회 위원장
	1강	14:00 ~ 15:20	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해와 국내 대응 전략	이상훈 소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2강	15:30 ~ 17:00	기후변화와 먹을거리	박소현 연구의원 한살림연합 식생활교육센터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6월 14일 (화)	열기	13:30 ~ 14:00	시작 및 우수교육활동 시연	
	3강	14:00 ~ 15:20	쉽게 이해하는 교구개발 방법	양경모 대표 에코샵 홀씨
	4강	15:30 ~ 17:00	글로벌 녹색에너지산업의 9가지 트렌드	권유미 팀장 루트에너지
6월 15일 (수)	열기	13:30 ~ 14:00	시작 및 우수교육활동 시연	
	5강	14:00 ~ 15:20	한국기후변화교육의 흐름에 대한 이해	조 성 화 팀장 수원시기후변화교육센터 두드림 교육팀장, 교원대학교 교수
	6강	15:30 ~ 17:00	공유지의 비극, 기후 부정의	이진우 센터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6월 16일 (목)	7강	14:00 ~ 16:30	독서토론 한국탈핵	김익중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수료식	16:30 ~ 17:00	수료식	

사업평가 : 가. 긍정적 평가

-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강사진 및 프로그램 구성.
- 기후변화,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마련.
- 강의+토론+교구제작+타 활동 공유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고민에 도움.

나. 제언의견

- 방학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제안
- 중급 심화 대상 집중, 참여수업을 더 확대.

다. 향후 추진 방향

- 권역별로 진행해보는 것을 고민.
- 경기지역 기후 에너지 교육 활동 시연 지속.
- 각자 현장에서의 교육내용에 대한 사례를 공유.
- 우수한 강사진을 꾸준히 찾아내고 관리.





② 2016 기후학교 후속교육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 사업목적** : -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증진
-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콘텐츠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경기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활동 유도
- 일시 및 장소** : 10월 11일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1월 22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2월 19일 (경민대학교 파주캠퍼스),
12월 20일 (안산환경재단), 12월 21일 (일산동구청 다목적실), 12월 27일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경기 전역 기후 및 환경관련 활동가, 강사 등
- 횟수 및 참여인원** : 총 6회에 걸쳐 7개 주제에 대해 강의, 200여명
- 특징** : - 최근의 환경 현안 이슈인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미세먼지 관련 교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 경기도 6개 지역(과천, 수원, 안산, 파주, 구리, 고양)에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활동범위를 넓힘.

주요내용

내 용	강 사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건강과 예방	임영옥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공기오염측정키트 체험	길복종 실장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경기지역 미세먼지 대응 대책	김동영 박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 및 해외의 대처 사례	김동술 교수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내 용	강 사
<활동가 워크숍> 미세먼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김희경 과장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과 대책	김순태 교수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송상석 사무처장 녹색교통운동



- 사업평가** : 가. 긍정적 평가
- 최근 자료를 보유한 전문성 있는 강사진 및 프로그램 구성.
 - 기후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생 입장에서 미세먼지문제를 교육의 측면으로 어떻게 접근할 지 고민의 기회 제공.
- 나. 제언의견
- 미세먼지는 향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제안.
- 다. 향후 추진 방향
- 꾸준히 새로운 이슈로 강의내용을 업데이트.
 - 미세먼지와 관련한 교구 및 교재 개발 고민.

3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교구 대여 및 보급사업

- 사업목적** : - 경기지역 기후변화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기후변화교육센터, 기초의제, NGO 등의 풀뿌리 교육활동 지원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개발교구 및 기타 보유교구 홍보 및 보급을 통한 기후환경교육 콘텐츠 제공
- 교구보급을 매개로 기후환경교육 커뮤니티 발굴 및 연대
- 경기도 기후변화교육 활동 촉진

보급대상 교구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개발교구 4종, 경기도환경교육센터 교구 5종, 기타 2종, 총 11종

보급대상 : 경기지역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지방의제 사무국, NGO 등

보급형태 : 대여 또는 배포(무료)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1월

2016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교구보급 워크숍

- 일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후 1시 ~ 6시
- 장소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세미나룸2
- 참석인원 : 교구신청지역 실무자 및 강사 등 30여명
- 주요내용 : 교구보급 계약 체결, 교구 보급 전 교구개발자와 함께하는 교구사용 방법 학습 및 체험, 강의 유경험자들과 교구를 활용한 교육 진행시 팁 공유 등

사업실적 : - 경기 13개 지역 17개 기관, 단체, 소모임

- 총 11종 214개 대여 및 보급
- 교육횟수 244회, 교육인원 3,529명

신청기관명	신청지역	보급갯수	교육횟수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계	17	214	244			3,529
고양시의제21협의회	고양	10	3	2016. 4월~5월	중.고등학생	100
용인푸른꿈마을학교	용인	16	10	2016. 6월~8월	초.중.고등학생	45
김포소시모	김포	21	8	2016. 5월~6월	초,중,고등학생	195
용인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용인	7	32	2016. 5월~12월	유치원 및 초등학생	350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	1	2	2016. 4월~12월	초등학생	100

신청기관명	신청지역	보급갯수	교육횟수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광명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	32	8	2016. 7월	중학생	274
수원YWCA	수원	6	3	2016. 5월~8월	중.고등학생	69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	사업 예산 계획 변경으로 교구사용 못함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	10	98	2016. 7월	중학생	272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김포	12	2	2016. 11월~12월	중학생	60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	2	5	2016. 4월~11월	초등학생	100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	60	31	2016. 6월~10월	초.중학생	1,144
푸른환경새용인21실천협의회	용인	23	16	2016. 5월~11월	초등학생	480
동탄수수꽃다리	동탄	2	11	2016. 5월~6월	생태안내자 및 시민	110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수원	5	2	2016. 11월~12월	초등학생	30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	1	12	2016. 10월~11월	초등학생	100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	6	1	2016. 10	청소년 외 일반시민	100

사업성과 :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가 거점이 된 기후에너지 관련 교육 성장

- 교육환경이 열악한 풀뿌리 소모임에 실질적인 도움
- 지역 행사, 축제 등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

교구 사용에 대한 주요 의견

- 에너지, 기후변화, 환경생태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됨
- 외부 체험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교구 사용을 통해 보완 및 대체



- 향후 추진 방향** - 교구 보급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고민 (경기도 권역별로 거점을 두어 거점지역에서 교구를 직접 대여 및 관리하는 시스템 등)
- 새로운 교구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 고민 (공모전 등)



○ 기후변화 시민인식증진사업

①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홍보사업

사업목적 : 가정용 에너지 발전장치 홍보를 통해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감소와 시민 에너지 교육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감축”과 “적응”활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함.

지원부문 : ①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원리 이해를 위한 마이크로 발전기 1세트(대여) 총 4세트
②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기 홍보물(리플렛) 제공

사업기간 : 2016년 3월 ~ 12월

사업결과 : -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와 안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지원하여 약 2,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실물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고 호응도가 높았음



② 시민 인식증진 캠페인

■ 미세먼지대응 캠페인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장 소 : 안양아트센터

홍보대상 및 인원 : 시군 그린리더 및 도민 100여명

홍보내용 : 미세먼지대응 캠페인 및 홍보물품 배포



○ 교류 및 네트워크 협력사업

① 2016 청소년 녹색소비 전문지도자 워크숍

일 시 : 2016년 3월 29일(화) ~ 30일(수)

장 소 : 경기창작센터

참석인원 : 경기지역 녹색소비 지도자, 녹색소비 활동에 관심있는 30여명

사업내용 : - 경기지역에서 녹색소비를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녹색소비, 녹색구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소비지도자들의 창의적 활동 역량을 높임

② 대학생 도시텃밭 워크숍

일 시 : 2016년 5월 14일(토) 14:00~19:00

장 소 : 서울 노들 텃밭 지원센터

참석인원 : 대학 내 도시텃밭 활동을 하는 대학생 20여명

사업내용 : 도시텃밭 기초지식 학습 및 현장체험

향후계획 : 대학생 멘티와 도시농업 멘토를 연결, 도시농업 관련 고민 해결방안 모색

③ 경기환경운동연합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일 시 : 2016년 7월 29일(금) ~ 30일(토)

장 소 : 여주중앙청소년 수련원

공동주최 : 경기환경운동연합,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참석인원 :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학생 및 담당자 110명

사업내용 : 적정기술에 대한 이론 수업 및 체험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발굴하고 전파



④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기획강좌 “비전화의 이야기”

일 시 : 2016년 10월 18일(화) 19:00~21:30

장 소 :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공동주최 : 경기도 전역 기후 및 환경관련 활동가 30여명

참석인원 :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학생 및 담당자 110명

주요내용 : - 일본의 적정기술 발명가이자 도서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저자인 후지무라야스유키 교수 초청강연
- 그가 추구하는 비전력화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개발한 발명품들의 원리에 대한 학습과 독서토론을 진행
사업성과 :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운동의 방향과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의 기회 제공
- 기후변화와 관련한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 및 네트워크 분위기 조성



⑤ 간담회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활동 사례 및 교육활동 제안”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15:00~18:00

장 소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참석인원 : 경기지역 기초의제, 기후변화교육센터, NGO 등 30여명

주요성과 : - 기후변화교육과 관련한 주요 현안 및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유와 현안 논의의 자리가 됨.
- 간담회 기회를 통해 지역의 활동내용과 고민을 중앙단위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됨.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①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역 할 :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자문, 평가
구 성 : 9명 / 2016년 12월 기준 / 년 2회 회의
(행정, 교육청, 학계, 유관기관단체, 푸른경기, 지역의제 등)
주요결과 : 1차 회의 : 2016년 12월 26일(월) 오후 4시
주요내용 : 2016년도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추진사업 평가
2017년도 운영방안 및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 방향 논의

②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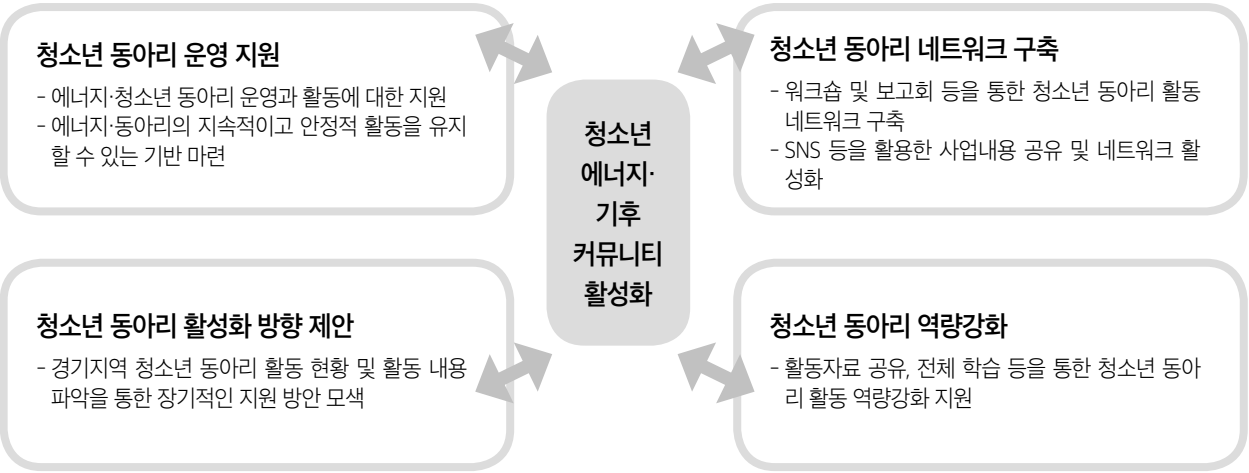
역 할 :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자문
구 성 : 9명 / 2016년 12월 기준 / 격월 1회
(행정, 유관기관단체, 푸른경기, 지역의제 등)
추진결과 : 1차 회의 4월 21일(목) 오전 10시 (참석자 8명)
2차 회의 8월 30일(화) 오전 10시 (참석자 5명)
3차 회의 10월 20일(목) 오후 3시 (참석자 5명)
4차 회의 12월 2일(금) 오후 3시 (참석자 7명)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사업명 :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자원순환, 교통, 자연생태, 녹색소비, 기후변화 등)를 주제로 한 학습 및 연구, 실천 활동을 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여 경기지역의 청소년 동아리(커뮤니티) 활동을 알리고 네트워크 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2월
사업대상 : 경기지역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약 16개 내외 동아리(시민사회단체 운영 청소년 동아리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수련시설 및 단체) 동아리 활동(학습, 실천, 캠페인 등) 지원



동아리 현황

순번	지역	동아리명	단체명
1	안양	청소년 환경교실 ‘풀등’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2	광주	달항아리 eco	달항아리에술단
3	군포	청소년 에코리더 - 지구를 지켜라	군포환경자치시민회
4	남양주	콩나물	동화중학교
5	의왕	삼동 청소년 절전연구소	삼동이네 사랑방
6	평택	평택안성흥사단 고등학교 아카데미	(사)흥사단평택안성지부
7	안산	그린콘서트	안산녹색소비자연대
8	안산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안산환경운동연합
9	용인	푸른 꿈 마을 환경캠프	푸른 꿈 마을 환경동아리
10	김포	청소년 에너지 컴퍼니	녹색김포실천협의회
11	가평	에코동아리	가평군청소년문화의 집
12	구리	뿌리 (환경 푸름이)	구리YMCA
13	광주	솔라시도 (Solar試圖)	(사)너른고을청소년교육예술연구원
14	군포	청소년 에코 보드 카페	군포YMCA
15	시흥	E-Ternal	서해고등학교
16	성남	환경탐사부	송신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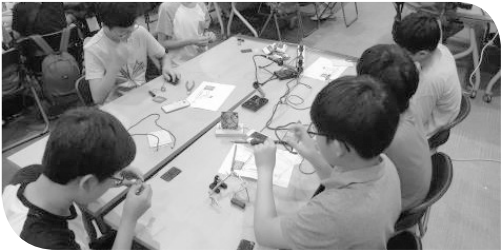
에너지 동아리 1박2일 전체 워크샵

행 사 명 : “우리들이 에너지다”
일 시 : 2016년 7월 9일(토) 오후 12시 ~ 10일(일) 오후 1시
장 소 :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대 상 : 경기지역 16개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학생 및 담당자 등 100여명
프로그램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7월 9일 (토)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30	집결 및 오리엔테이션 (인사)	
	13:30 ~ 16:00	아이스브레이킹 및 우리 동아리 2016년 활동계획 공유하기	이창림 (풀뿌리자치연구소)
	16:00 ~ 18:00	기후변화와 새로운 일자리	이진우 센터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8:00 ~ 19:00	저녁식사 및 숙소배정	
	19:00 ~ 20:30 19:00 ~ 20:30	에너지를 갖고 놀자~ 청소년 동아리 관계자 간담회	
	20:30 ~ 22:00	모조램프 만들기 및 에너지 퍼포먼스	하대영 (경희대학교)
	22:00 ~	정리 및 취침	
7월 10일 (일)	8:00 ~ 9:00	기상 및 식사	
	9:00 ~ 11:00	적정기술 이론 및 체험 “햇빛저금통 만들기”	정해원 (마을기술센터 핸즈)
	11:00 ~ 12:00	캠프 소감 공유하기	
	12:00 ~	식사 및 해산	



사업결과 : - 동아리의 비전 및 목표,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 제공
- 이론교육 및 체험학습 등을 통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역량강화 지원
- 참여 동아리간의 활동공유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동아리 결과공유회 “나.누.다”

행사명 :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 결과공유회 “나.누.다”
일시 : 2016년 12월 21일(수) 오후 3시
장소 :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대상 : 경기지역 16개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학생 및 담당자 등 30여명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5:00 ~ 15:10	- 여는말 (진행 : 이우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후행동21위원회 기획사업팀 팀장) 동아리 활동 영상 상영	
15:10 ~ 16:00	-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활동 “나.누.다” 1 질의응답	8개 동아리 동아리당 5분
16:00 ~ 16:10	휴식	
16:10 ~ 17:00	-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활동 “나.누.다” 2 질의응답	8개 동아리 동아리당 5분
17:00 ~ 17:10	휴식	
17:10 ~ 17:40	-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활동 “나.누.다” 3 : 2016년 활동 전체 평가 및 2017년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활성화 방향 논의	전체

사업결과 : - 각 동아리 활동내용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
- 각 동아리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주요 사업명 : 기후변화 교육활동 지원 사업

사업목적	일상적 환경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법(업사이클링 악기제작 체험)을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다양한 대상의 도민들에게 환경과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킴
사업내용	재활용 제품을 사용한 악기를 사용하여 공연
사업결과	1. 환경예술보급사업 “다시 쓰는 도레미”- 지구를 지키는 재활용 밴드 순회공연 6회 진행. 참여인원 약 3,500명 환경예술공연 진행. 2.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공연을 통해 문화와 환경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공연 현황	

제1회 : 안산 환경한마당

제2회 : 용인 보라 초등학교

제3회 : 안양 환경한마당



제4회 : 시흥 에코센터



제5회 : 광명시 도덕파크타운아파트



제6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17년 사업전망

- 공모 사업에 의한 내용으로 사업 실시가 불투명하나, 되도록 많은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음.

CHAPTER 03

2016년 사업 총괄보고

교류협력사업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태국 매솿의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2016 그린리더한마당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미래를 품고, 함께 걷다!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는 지난 한 해동안의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활동을 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성과물의 전시와 우수사례 발굴, 관계자 교류등 나눔과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에는 평택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특히 제13회 대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의 공동의 활동 목표 설정과 실천을 약속하고 차기 대회에서 성과를 점검하는 순환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동안 경기대회가 활동성과의 나눔과 공유에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여 다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의제명 미래를 품고, 함께 걷다!

- 주요내용
-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
 - 경기지방의제21 박람회 개최(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 제2회 경기적정기술 박람회 연계
 - 경기지역 지속가능성 공동 실천과제 발굴과 실천 선언 ‘100인의 선택’

- 대회 주요결과
- 2016년 경기지역 지방의제21 활동 위원/실무자 및 관계자의 교류와 학습의장 마련
 - 공무원, 전문가등 지방의제21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지속가능성 운동의 이해도를 높이는 학습과 소통의 장으로 진행
 - 지속가능발전목표 공동과제 선정을 위한 ‘100인의 선택’을 통해 SDGs 인식 확산과 구체적 과제 도출

경기지역 공동 과제 선정 결과

목표 지표	가능한 사업
SDGs2.4.1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예) 경기도의 유기농업 농지 면적, 도시농업 등 친환경 농업면적	① 로컬푸드(도시농업)현황 모니터링 ② GMO 현황 모니터링 사업 ③ 도시농부학교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④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 관련 정책 민관협력 토론회 ⑤ 1인 1베란다 텃밭 가꾸기 사업 ⑥ 어린이집 학부모 먹거리교육 : 바른식생활, 로컬푸드 교육

순 위	모듈별 투표 결과	현장 투표 결과	모바일투표 결과
1	도시농부학교	도시농부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먹거리 교육 (7)	로컬푸드(도시농업)현황 모니터링
2	로컬푸드 현황 모니터링		GMO 현황 모니터링 사업
3	1인 1베란다	GMO현황 모니터링 로컬푸드 직매장(5)	어린이집 학부모 먹거리교육



태국 매솟의 미얀마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그 누구도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난민으로서의 삶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
다. 난민 문제를 포함해 인류의 공동 가치를 위한 각국의 협력 의지가 시험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신입니다.”

-필리포 그린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분쟁, 폭력, 갈등 박해 혹은 인권유린,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여정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난
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물과 음식, 임시거처, 의료지원, 교육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7년 태국 연수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지방의제21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의 발자취
를 돌아보면 잠깐의 공백은 있었으나 연수를 시작으로 자발적 모금활동을 통한 학교 건축과 운영비지원 물품후원까지 꾸준한
관심과 협력적 활동이 있었습니다.

경기지역 지방의제21은 인류 공동의 가치인 ‘인간다움’을 기억하며 난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
다. 우리의 협력적 지원은 난민 등 지구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업경과 (2007년~2016년)

푸른경기21 태국연수 실시 (2007년~2009년)	2007년~2009년 태국연수 실시 : 1차(2007.5), 2차(2008.8), 3차(2009.4)
매솟 학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 결의 (2009년~2010)	2009년 해외연수 참가단 평가회의에서 학교 건립 프로젝트 제안 결의 2009년 6월1일~9월30일까지 : 제1차 모금 2009년 9월22일~12월31일까지 : 제2차 모금 버웨클라 학교 착공식 참여 (2009.12.14.) 매솟 학교 세우기 보고회 개최(일시 : 2010.01.18(월), 19:00 / 장소 : 안산외국인 주민센터) 2010년 3월 말~4월 초 : 학교 완공 2010년 3월26일~4월2일 2010 푸른경기21 해외연수 모금 및 활동현황 80여명 참여 88.5 구좌 모금 2009년 12월14일 학교 착공식 및 건축기금 (미화1만불) 전달 : 건축기금 전달을 위한 추진위원 파견 2010년 1월4일 기숙사 이불구입비(200만원) 등 송금
후속사업 추진결의 (2014)	11월22일~28일 태국 연수 : 버웨클라 학교의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 위원회비 및 모금액을 버웨클라 학교 운영비로 지원
후속사업 추진 (2015)	4월11일~17일 태국 연수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참여) : 시.군의제21 협력 하에 미얀마 난민 어린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 기구와 함께 난민촌 방문 5월~12월 : 난민 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기금 모금 사업 추진 ⇒ 연수 후속사업으로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협력하여 모금활동 전개. (2,200여만원 모금)
후속사업 추진 (2016)	1월27일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정기총회 : 한-매솟 협력센터 MOU 체결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 실시 2016년 4월 23일~28일 태국 연수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참여) : 버웨클라 학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과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현장 방문



2016 그린리더 한마당

- 사업배경

- 2016년 경기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보고 및 우수 활동 표창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활동사례 공유
 - 경기 지역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 등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의 만남과 교류의장 마련
- 사업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안양아트센터(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6번길 16)
 - 대 상 : 경기 컨설턴트, 시·군 그린리더,도민, 공무원, 관계자 등 150여명
 - 주최 / 주관 :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사업내용

- 우수 컨설턴트 및 공무원, 그린스쿨 우수학교 시상
 -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및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활동 보고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우수사례(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안성기후환경네트워크)
 - 기후환경강좌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대안)
- 사업결과

- 경기 컨설턴트 및 시군그린리더, 관계자 150여명 참여
 - 비산업부문 진단·컨설팅 우수 활동 사례 학습을 통한 경기 컨설턴트 역량강화
 - 경기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그린 홈, 그린스쿨) 활동 내용 공유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경기지역 기후·환경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온맵시 캠페인

기념식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 사업목적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의제 발굴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역량 제고
- 사업내용

- 시민사회 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 의회와의 워크숍을 통한 정책 역량 제고
- 사업결과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역량 제고
 - 푸른경기21의 의제 발굴 시너지 효과 제고

기획사업				
연번	사업명	일시 및 장소	참여대상(사업 수혜자)	주요내용
1	수원지역 시민운동가 역량강화 교육	2016년 6월 8일(수)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심 있는 시민	홍보교육(카드 뉴스 제작, 동영상 제작 방법)
2	2016 경기도의회 &경기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임원·활동가 워크숍	6월 30일(목) ~ 7월 2일(토) / 제주도 이올락 펜션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공동대표, 실무자, 도의원, 푸른경기21 사무처 등)	2016 총선 이후 시민사회 역할 및 향후 과제, 도의회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 지방의제21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방안 모색
3	2016년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예산학교	10월 12일(수) 10시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 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관심 있는 시민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방법, 예산서와 결산서 읽기 등
4	2017년도 경기도 예산분석 토론회	11월 14일(월) 13시 /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	경기도의회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여명	총론 및 분야별 예산 분석 내용 발제 및 토론



수원지역 시민운동가 역량강화 교육



2016 경기도의회&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임원·활동가 워크숍



2016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예산학교



2017년도 경기도 예산분석 토론회



2017년 사업전망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정책 제안 제고
-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지방의제21과의 협력 강화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향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CHAPTER 04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속가능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윤리적 조직 운영

인권, 노동, 소통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미래, 삶 등등...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의 역사와 함께 한 지 어느덧 20년째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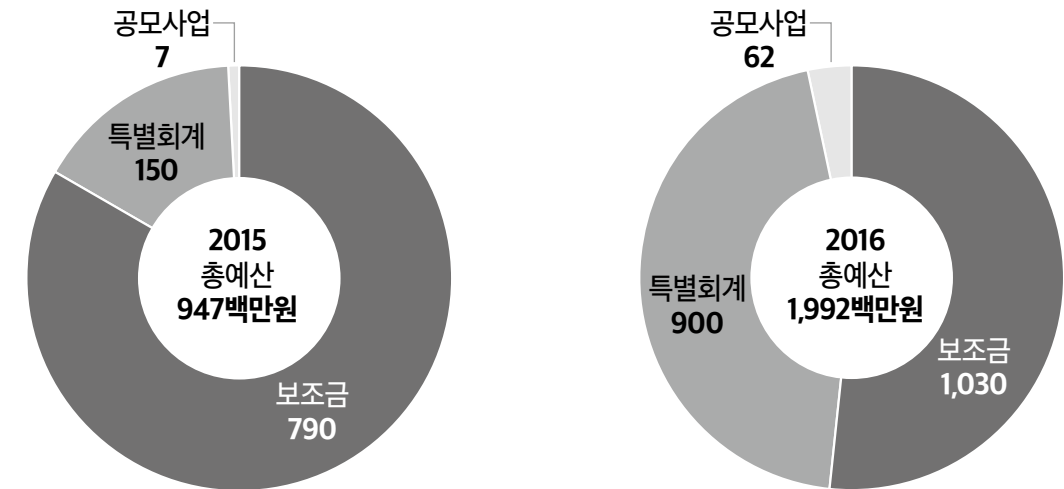
내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사업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내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지속가능을 향해 가는 과정을 점검해 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도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2015년 협의회 총 예산은 회비를 제외하고 9억4천7백만원이었으며, 2016년은 19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회칙 제25조(재정)에 따라 2016년에는 이월금 포함 8,090,024원의 회비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회비수입의 사용처는 주로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2016년에는 2,442,380원이 난민어린이 학습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회계연도는 경기도 회계연도를 따르며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경기도민간경상보조금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차기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 시 감사를 통해 사업내용과 회계집행에 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조직 운영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가 0건으로, 투명한 재정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청렴이행서약서에 서약함으로써 관계법령(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건전한 운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권노동

1 직원의 참여와 보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는 팀별회의, 팀장회의, 직원전체회의 등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참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구조	주기	대상	주요논의사항
팀별회의	수시	팀장 및 팀원	• 팀 사업에 관한 일상적인 논의
팀장회의	2주1회	사무처장, 기획국장, 기획부장, 기획팀장	• 사무처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 논의 • 팀별 회의 공유 및 팀간 협력사안 논의 •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 직원의 교육훈련 및 인사와 관련된 계획 수립 및 논의
전체회의	월 1회	직원 전체	• 팀장회의의 주요 논의사항 공유 및 논의 • 사무처 운영 및 주요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학습 • 각 팀별 주요 사업 및 일정 공유

또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매년 2~3회 사무처 직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사업계획 논의나 사업 평가, 현안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여 사무처와 운영위원회 간의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2 상근직 근로자 대상 복리후생

(1)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무자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09:00 ~ 18:00 또는 10:00 ~ 19:00)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와 관련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 : 3월 이상 근무자부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근속기간	연간일수	근속기간	연간일수	근속기간	연간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16일	5년 이상 6년 미만	19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3년 이상 4년 미만	17일	6년 이상	20일
1년 이상 2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8일		

6년 이상도 계속 하루씩 증가하되 최대 25일을 넘지 못함(근로기준법 60조 ④항)

(3) 사무처의 날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매월 1회 사무처의 날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이나 여가활동, 직무분석 등 팀웍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기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자기계발 지원 : 직원 능력 계발을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 비용을 책정하고, 개인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전체교육에

대한 지원, 도서구입 등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받은 교육이나 연수활동과 관련하여 사무처 전체회의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직원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활동

보고기간동안 협의회 직원들의 업무 및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건수와 재해로 인한 결근일수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4 차별금지를 위한 노력

직원 채용 시 나이, 성별, 국적, 출신학교, 결혼유무, 가족관계 등과 관련하여 차별을 배제하고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과 그간의 경력 등 직무역량중심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1회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기관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노동권 보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웹진 등에 채용정보를 공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공개적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사 시 경력산정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호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6 임금

경기도 공무원 봉급기준(2015년)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명세서 발행을 통해 임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7 노조 : 노조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방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는 2016년 현재 0건입니다.

환경보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의 환경보호 참여 수단의 일환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용지와 각종 자료집, 홍보물에 친환경용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의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품들을 환경 친화적인 상품으로 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컵을 자제하고 개인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무실 운영과 관련되어 항목 구분 없이 경기도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별도의 노력을 담아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이해를 구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부록

신규위원 지방의제21 소개자료
2016 발행물 리스트
지속가능발전법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영문보고서 한글 번역본



신규위원 지방의제21 안내자료

1. 지방의제21의 배경

- 현재 우리의 소비수준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섰고 환경은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
- 지금 현세대가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미래세대들은 기본적인 삶의 질조차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름.

2. 지방의제21의 개념

- **의제**란 말의 원래 의미는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임.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뜻함.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이러한 과제들을 지역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뜻함.
-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임.
또한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 이렇듯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임.

※ 리우 지구정상회의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라는 이념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의제21(Agenda 21)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 의제21(Local Agenda 21)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지방의제21의 필요성

❶ 지방의제21은 친환경적인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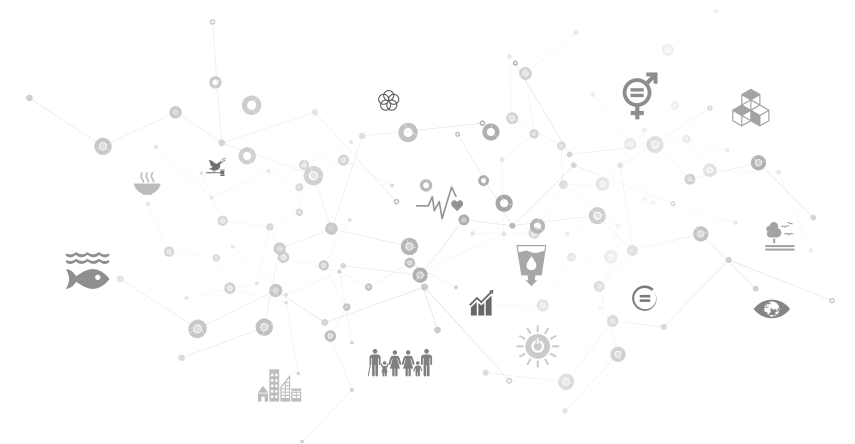
- 지방의제 21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 된 것과 관련성이 높음.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징적 운동으로서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함.
-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자치단체별 환경선언과 지방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은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음.

❷ 지방의제21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화를 촉진시킵니다.

- 지방의제21은 시민사회의 역량이 높을수록 그 실천이 활발해짐. 지방의제21이 유럽에서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이유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발달한 그들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음.
-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민주화는 민간부분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와 감시, 그리고 협력 등을 통해 성숙되고 있음. 이처럼 공공 부문과 민간부분이 상호 협력하여 민주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지방의제21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❸ 지방의제21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꼭 추진해야 합니다.

- 지방의제21은 UN의 의제21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됨.
-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인 책임감과 교류, 협력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우는데 지방의제21은 매우 필요함.



4. 지방의제21의 핵심요소와 특성

① 지방의제21의 핵심요소는 이렇습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의제21은 사회, 경제, 환경이 함께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됨.
- 동반자 관계를 통해 추진해 나갑니다.
지방의제21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협조만 하거나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야 함.
- 실천과정이 중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단순히, 작성된 의제보고서가 아니라 의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함.

② 지방의제21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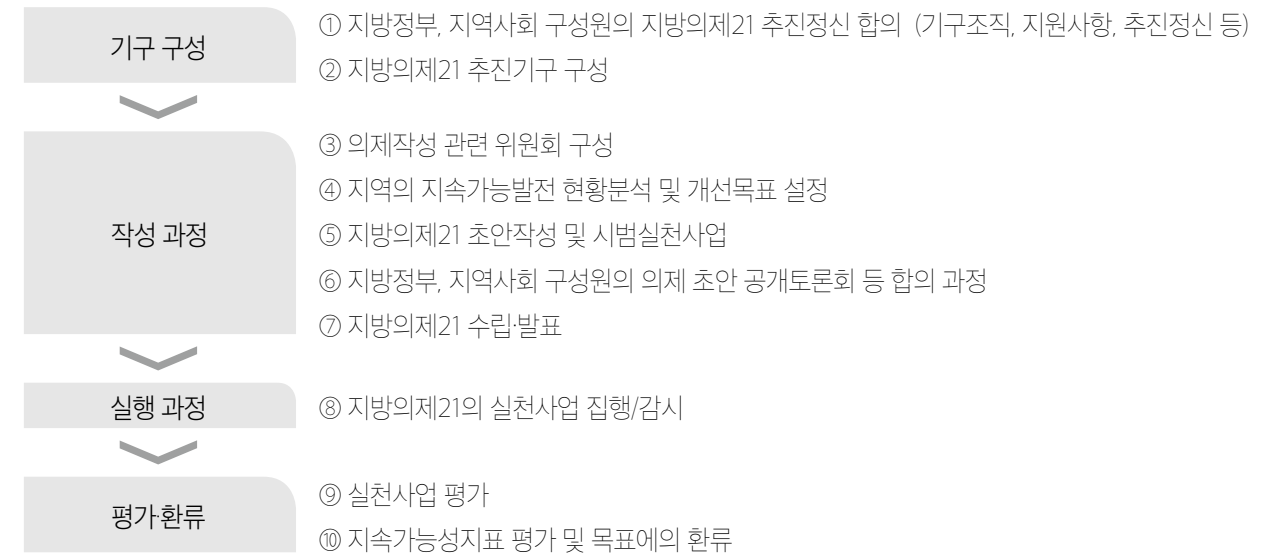
- 지역사회 모두의 미래약속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행정, 기업, 시민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합의하여 만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계획이자, 실천약속임.
- 실천을 약속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행정, 기업, 시민들이 토론과 합의 과정을 통해 모두가 실천하겠다는 한 약속을 담아낸 보고서임.
- 스스로 합의해서 정한 실천계획입니다.
기존의 지방정부의 환경관리계획과는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행정, 기업, 시민 등) 스스로가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계획임.

③ 지방의제21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대기, 물, 폐기물, 생태계, 생활환경, 에너지, 도시계획, 행정, 녹지, 교통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경제, 농업, 빈곤,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내용을 담아 실천목표를 삼을 수 있음.
- 각 지역마다 자연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지방의제 21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짐.
예) 공단의제, 농촌의제, 주민자치의제, 하천의제, 관광의제 등

5. 지방의제21의 추진방법

① 지방의제21 추진절차는 이렇습니다.



② 지방의제21 작성형식은 이렇습니다

- **비 전** 각 부문별로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여러방향으로 검토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
- **현 실 태** 각 부문별 현실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제기함.
- **행동목표** 소주제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개선목표를 1-2개 정도의 지표와 함께 제시함.
※ 지표 : 의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동목표와 비전이 얼마만큼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임.
- **행동계획** 행동목표와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6. 지방의제21의 실천

행정

- 지방의제21을 행정 전 부문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모든 행정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함.

기업

-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
- 환경친화적인 경영과 자원순환형 생산시스템을 도입함.
- 지방의제21중 기업과 관련된 행동계획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공표함.

시민

- 지방의제21중 실천가능한 행동계획을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점검함.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함.

Q&A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특색

❶ 지방의제21은 민간환경운동이나 정부의 환경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 지방의제21은 기존의 환경문제 해결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임.
- 기존의 환경운동이나 환경계획은 환경부문에만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만,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환경부문은 물론 그와 연계되는 경제부문, 사회부문과 통합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함.
- 지금까지 정부, 시민, 기업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때로는 서로 대립적 관계 속에서 환경정책, 환경운동, 환경경영이라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면, 지방의제21은 세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의제를 공동결정, 공동집행, 공동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임.

❷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기존의 민간환경단체나 환경보전 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정부,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된 협의체로서 모든 일은 이 주체들의 협의와 합의하에 진행됨.
-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시민의 주체적 성격만 부각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아니며, 정부의 자문기구 성격만 부각될 수 있는 위원회 중 하나도 아님.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협의체임.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도출하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활동을 지원해 줌.
- 시민사회의 역량과 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지방의제21의 큰 특징임.

❸ 지방의제21의 추진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의 회비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일을 시민과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확보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예산을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독립적 성격을 지닌 예산항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해야함.
- 인력 문제에 있어서 협의회 사무국은, 민간부문과 행정기관의 인력으로 공동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민간부문의 인력이 봉사차원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경상비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민간부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적 자원 그 자체이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6 발행물 리스트

순번	위원회 / 사업명	명칭
1	생물다양성위원회	경기 바이오블리츠 1차 시,군 간담회
2		DMZ 일원 두루미 보호루트 워크숍 자료집
3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현장 매뉴얼
4		경기 생태계 교란식물 포럼 자료집
5	기후행동21위원회	안산지역기후및에너지행동학습탐방
6		민관 협치를 통한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토론회
7		2016기후행동위원회결과보고회
8		기후행동21위원회 -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9	녹색사회경제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 이슈포럼 "사람의 경제, 사회적 경제"
10		지속가능한 경기농정 발전 토론회 자료집
11		지방의제21.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료집
12	마을의제위원회	푸른경기21 하남 마을워크숍 자료집
13		푸른경기21 마을의제위원회 국제포럼 "삶이 있는 도시만들기"
14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자료집
15	삶의질위원회	경기도 비정규 노동포럼 "모이다 꿈꾸다 바꾸다" 자료집
16	5개 위원회	2016사업결과 통합 보고 "우리가 만들어온 지속가능한 경기도"
17	시,군의제21 협력위원회	2016 경기지역 지방의제21 실무자 워크숍
18		2016 경기지역 지방의제21 공동회장-국.처장단 워크숍
2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도시지표현황
19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 브로셔
21	국제교류협력위원회	The66thUNDPI/NGOConference
22		제66차UNNGO컨퍼런스워크숍자료집
23		SDGs국내외동향과경기도적용방안토론회자료집
24		2016지속가능발전대학 자료집
25		the_sdgs_what_localgov_need_to_know
2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27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2016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홍보 리플렛
28		2016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30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2016 기후학교 "소.나.기" (소중한 나의 지구를 위한 지구학교)
31		2016 기후학교 후속교육 1차 교재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교육과의 연결방법은?
32		2016 기후학교 후속교육 2차 쉽게 이해하는 미세먼지
33		2016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 간담회
		"국내.외 기후변화교육 활동 사례 및 교육 활동 제안"
34		미세먼지대응캠페인

35	청소년에너지동아리공모사업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 1박2일 캠프 "우리들이 에너지다"
36		2016 청소년 에너지 동아리 공모사업 결과공유회 "나.누.다"
37	경기기후환경네트워크	2016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 간담회
38		2016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진단 컨설팅 기본교육
39		쿨맵시 캠페인 홍보물
40		2016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2차 간담회
41		2016그린리더한마당
42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을 통해 7종의 그린맵 발간
43		우리동네 그린맵 '지속가능한 학교'
44	제8회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자료집 "미래를 품고 함께 건다"
45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자료집
46		2016 제2차 생물다양성 포럼 in 경기 결과브로셔
47	2016제13회푸른경기21도시대학	자료집 / 푸른경기21 제13회 푸른경기21 북부권역 도시대학 워크북
48		자료집 / 푸른경기21 제13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결과보고서
49	경기환경포럼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50		경기환경포럼_제2차녹색소비포럼자료집
51		경기환경포럼_제3차 녹색소비포럼자료집
52		경기환경포럼_제1차물포럼자료집
53		경기환경포럼_제2차물포럼자료집
54		경기환경포럼미세먼지현황과대책
55		경기도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전환
56		경기환경포럼기후에너지2차포럼
57		제1차환경교육포럼 "제2차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현황 공유 및 제안"
58		경기환경포럼 제1차 자연생태분과 자료집
59		경기 환경포럼 제3차 자연생태 포럼
60		"경기도 자연생태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안"
61		창립포럼 "파리협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62		제2차경기환경포럼 자료집
63		경기환경포럼제3차정책간담회자료집(도의회)
64	경기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2016경기환경포럼백서
65		2016 대학생 에너지·친환경 실천캠프 핸드북
66		2016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일본지역 그린캠퍼스 선진사례 연수 워크북
67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소개 소책자
68		2016 경기도형 그린리더십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69		2016 그린캠퍼스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70		청년지대 아이디어 대회 자료집
71		2016 정기총회 및 공동실천선언식 자료집
72		그린캠퍼스 참여와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자료집
73		경기도형 그린리그제 시범척도 개발 자료집
74		그린캠퍼스 인프라 개선 지원사업 결과보고
		그린캠퍼스 사업 결과보고서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1.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삭제 <2010.1.13.>

제5조 삭제 <2010.1.13.>

제6조 삭제 <2010.1.13.>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10.1.13.]

제8조 삭제 <2010.1.13.>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③ 삭제 <2010.1.13.>

④ 삭제 <2010.1.13.>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3.>

제12조 삭제 <2010.1.13.>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1.13.>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1.13.]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3.]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3.>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3.>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

[제목개정 2010.1.13.]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12.11.>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5.12.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부칙 <제13532호, 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제정 1998년 9월 04일

제정 1998년 9월 04일

개정 1999년 8월 25일

개정 2001년 2월 20일

개정 2002년 2월 22일

개정 2003년 2월 19일

개정 2006년 1월 24일

개정 2007년 2월 06일

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1월 24일

개정 2015년 1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을 작성·실천해 나가는 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기업체·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방의제21인 '경기의제21'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 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의제21'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해 한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추진한다.
2. '경기의제21'을 실천함에 있어 주민·기업체·민간단체·각급 행정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3. '경기의제21'의 실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다.
4.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한다.
5. '경기의제21'의 실천과 관련된 경기도의 제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이행에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8.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처를 경기도청에 둔다.

제 2 장 [구성과 조직]

제5조 (구 성)

- ① 협의회는 환경일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회원이 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총 회)

- ① 총회는 공동회장이 소집하며, 공동회장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기타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보고
 4. 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의 주요업무 처리

제7조 (임 원)

-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이내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 중 1인 이상은 여성을 선출하고,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 ② 공동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공동회장은 의제의 동반자정신을 살려 각 분야의 대표로 구성하며, 담당 부지사와 경제단체연합회의 대표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 ④ 공동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고 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감 사)

2인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위원회 대표 각 1인,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대표 4인,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대표 1인, 국제교류협력위원회 대표 1인, 도의원 3인, 도 환경국장, 협의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격월단위로 정기회를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부의안건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위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10. 경기도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시군의제21 기구의 양성평등 관련 사항
 11.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서 정한다.
- ⑦ 운영위원장이 께위시에는 잔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재선출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11조 (분야별 위원회)

- ① 협의회의 의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위원은 총회원 중 자원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④ 각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 ① 협의회는 각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제21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 의제간 협력과 교류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위원회는 협의회 사무처장과 시·군의제 관계자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의제사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의제사업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제안을 통해 의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 ③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총회원 중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 지원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의제사업과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원을 위한 해외 사례의 소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 ③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 총회원 중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부설기구 설치 및 위탁사업)

-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부설기구로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사무처)

-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시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 (위원의 해촉)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① 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또는 생활권이 타시도 및 국외로 바뀌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제 3 장 [운 영]

제18조 (의결)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의안의 처리와 통보)

- ① 사무처장은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도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사무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록)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23조 (협조요청)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경기도의 예산 및 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재정)

본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비, 위원 회비, 도민·기업체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단, 직책별 전결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의결 후 관련 조례 개정 즉시 발효 된다.

제2조 (운영세칙) 회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의 추진 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제정 1998년 9월 04일)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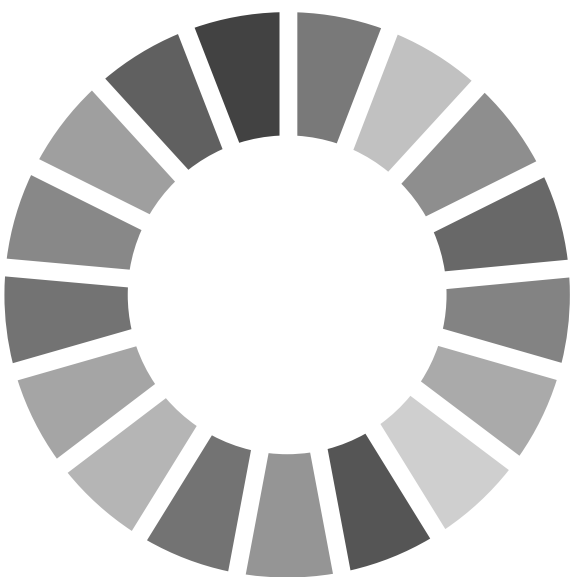


United Nations



CONTENTS

서문	215
개요	216
목표 1: 빈곤 종식	229
목표 2: 기아 종식	231
목표 3: 건강과 웰빙	234
목표 4: 양질의 교육	237
목표 5 : 성평등	240
목표 6 : 깨끗한 물 및 위생시설	243
목표 7 : 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245
목표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248
목표 9 : 산업, 혁신 및 인프라	250
목표 10: 불평등 감소	253
목표 11: 지역가능 도시 및 지역사회	256
목표 12: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259
목표 13: 기후 조치	261
목표 14: 해양 생태계	264
목표 15: 육상 생태계	266
목표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269
목표 17: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272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277
독자에게 전하는 짧은 글	280
지역 분류	282



2016 지속가능발전
목표보고서



 서문

2016년 1월 1일, 세계는 향후 15년 동안 긴급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게 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의제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행동 계획이다.

2030 의제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로드맵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성공에 기초할 것이며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및 경제적 성장을 보장할 것이다. 이는 극한 빈곤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차원(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을 포괄적인 글로벌 비전에서 통합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가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기회 감각과 목적의식으로 이행을 시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이 바로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보고서는 가장 중대한 격차와 도전과제를 강조하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17개 목표의 개요를 제시한다.

마지막 데이터는 약 8명 중 1명이 여전히 극한 빈곤 속에 살고, 거의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5세 미만 아동의 거의 4분의 1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11억 명이 전기 없이 살고 있고, 2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계는 협조된 글로벌 데이터 생성 노력이 체계적인 후속조치와 진행상황 검토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목표들은 모든 사회에 적용된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조차도 아직은 여성 권리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았고 차별이 제거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한다면, 모든 국가는 각 국가의 정책 및 계획에 이를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 첫 번째 보고서는 출발점이다. 집단 글로벌 행동으로,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2030 의제의 서약을 함께 이행할 수 있다.



반 기 문
유엔 사무총장

개요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본 첫 보고서는 2030으로의 공동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계가 처한 현황에 관한 첫 보고이다. 이 보고서는, 예컨대 어떤 중요한 격차와 도전과제를 강조하기 위해,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글로벌 지표 체계에서 선택된 지표를 분석한다. 2016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UNSC)의 동의를 얻은 SDG 지표 목록은 방법과 데이터 가용성이 향상됨에 따라 세분되고 개선될 것이다.

모든 여정은 시작과 끝이 있다. 여정의 구상과 주요 이정표 수립은 접근가능하고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류 데이터가 필요하다. 글로벌 지표의 데이터 요건은 거의 SDGs 만큼이나 전례가 없으며 모든 국가에 엄청난 도전과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계역량 구축을 통한 이 요건의 충족은 우리의 현 상황을 정립하고,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 공동 비전을 현실에 더 가깝게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다.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1은 향후 15년 동안 극심한 빈곤을 포함하여, 모든 발로에서 빈곤 종식을 추구한다. 최빈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혜택을 영위해야 한다.

- ▶ 극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2002년 26%에서 2012년에는 13%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2012년에 세계적으로 8명 중 1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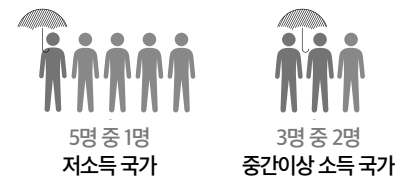
빈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으며, 2012년 이곳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에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였다.

- ▶ 2015년, 세계 노동자와 그 가족의 10%가 하루에 1인당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었다. 이는 2000년 28%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 ▶ 5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는 근로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5년, 근로 성인의 9%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것에 비해, 모든 취업 청년의 16%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었다.

2012년 8명 중 1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다



사회적 원조 또는 사회적 보호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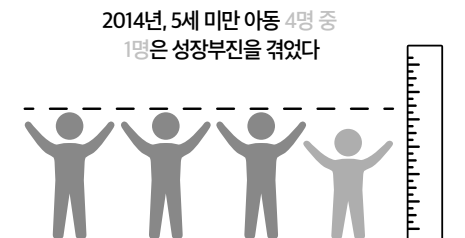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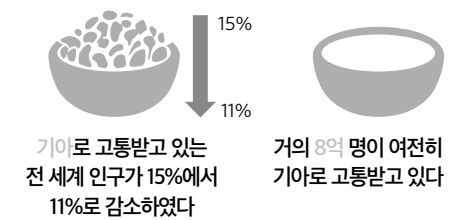


- ▶ 중간이상 소득 국가에서는 3명 중 2명이 사회적 원조나 사회적 보호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5명 중 1명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목표 2는 2030년까지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및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달성을 추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전제로 하며, 지속가능 농업의 광범위한 증진, 농업 생산성의 두 배 확대, 증가된 투자 및 적절히 기능하는 식량 시장이 요구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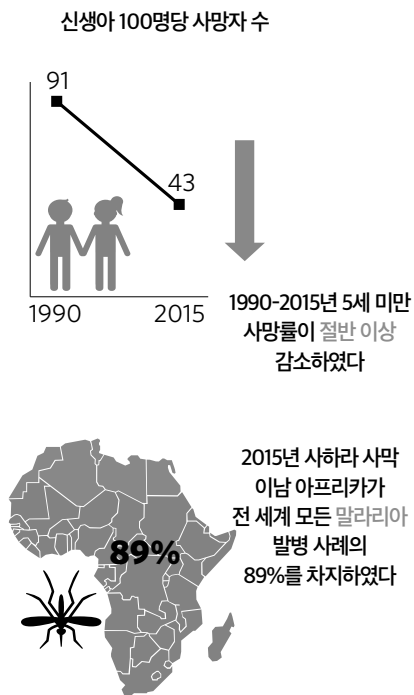
- ▶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인구 비율은 세계적으로 2000-2002년 15%에서 2014-2016년 1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거의 8억 명이 여전히 충분한 식량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 2015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보통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 성인의 4분의 1은 심각한 수준이다.
- ▶ 2014년, 1억 5860만 명으로 추정되는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은 성장부진을 겪었다.
- ▶ 5세 미만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2000-2014년 사이에 거의 20% 증가하였다. 2014년 전 세계 이 연령대 아동 중 약 4100만 명이 과체중이다; 거의 절반이 아시아에 살고 있다.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목표 3은 생식, 산모 및 아동 보건을 개선하고, 주요 전염성 질병 같은 전염병을 종식시키고, 비전염성 및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키고, 보편적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정가격의 의약품 및 백신에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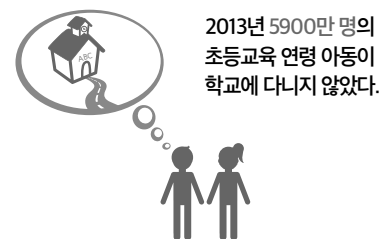
- ▶ 1990-2015년 사이에, 세계 산모 사망률이 44% 감소하였고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여전히 590만 명으로 추정되는 5세 미만 아동이 대부분 예방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2000-2015년 사이에 HIV, 말라리아 및 결핵 발생률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2015년에 210만 명이 HIV에 새로 감염되었고, 2억 140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말라리아 위험에 처해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모든 사례의 89%를 차지하였다.
- ▶ 2015년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또는 부부관계를 맺은 가임기 여성(15-49세) 약 4명 중 3명이 현대적 피임법을 이용함으로써 가족계획 요구를 충족시켰다.
- ▶ 2012년, 70세 미만 중에 비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거의 3분의 2가 심혈관 질환과 암에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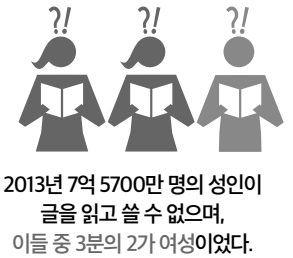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4는 기본적 및 고차적 기술 습득,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등 교육에의 더 넓고 더 공평한 접근, 평생에 걸친 훈련, 잘 기능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가치에 중점을 둔다.

- ▶ 2013년, 5900만 명의 초등교육 연령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 ▶ 2008-2012년 63개 중·저소득 국가 조사에서, 하위 20% 최빈층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은 최부유층 또래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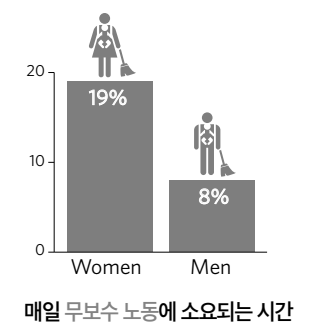
- ▶ 선진지역의 38개국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젊은이의 75% 이상이 적어도 읽기 및/또는 수학에 능숙하였다; 22개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5개 국가만이 동일 퍼센트로 나타났다.
- ▶ 2013년, 아직도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성인(15세 이상)이 7억 5700만 명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가 여성이었다.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목표 5는 여성 및 여아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학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그들이 모든 성 및 생식 보건과 생식 권리의 기회를 갖고, 무보수 노동에 대해 심본 인정받고, 생산 자원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갖고, 남성과 동등하게 정치적, 경제적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자 한다.

- ▶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보고된 20-24세 여성의 비율은 1990년경 32%에서 2015년경에는 26%로 감소하였다.
- ▶ 여성 할레 관습이 집중되어 있는 30개 국가에서는, 15-19세 소녀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절차를 겪었다.
- ▶ 2000-2014년 사이에 59개 국가에서 실시된 시간 사용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매일 자신의 시간의 19%를 무보수 노동에 사용한다고 말했고, 이에 비해 남성은 8%였다.
- ▶ 2016년 국회 또는 국회 하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은 23%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6% 증가.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 및 위생시설의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목표 6은 식수, 위생시설 및 위생을 넘어서, 수자원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다룬다. 사람과 지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이 목표의 달성은 물 및 위생시설 관리를 개선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확대와 지역사회 지원의 확보를 의미한다.

- ▶ 2015년, 66억 명 또는 세계 인구의 91%가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비해 2000년에는 82%가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6억 6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수원이나 표면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 ▶ 2000-2015년 사이에,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59%에서 68%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24억 명은 여전히 이 혜택에서 뒤쳐져 있었다. 이들 중 9억 4600만 명은 어떠한 시설도 전혀 없이 노상배변을 계속하였다.
- ▶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있고,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통합수자원관리(IWRM) 계획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6억 6300만 명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수원을 사용한다



24억 명은 개선된 위생시설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었다



통합수자원관리(IWRM) 계획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목표 7은 깨끗한 에너지를 위한 강화된 국제 협력과 확장된 인프라 및 기술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에너지 접근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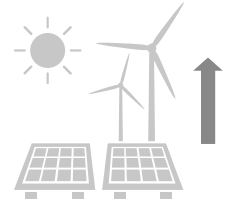
- ▶ 전기 접근이 가능한 세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79%에서 2012년 8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11억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필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 ▶ 2014년,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약 30억 명은 오염을 일으키고 건강에 해로운 조리용 연료에 의존하였다.
- ▶ 2010-2012년 사이에 현대식 재생에너지는 연간 4% 비율로 급속히 증가하



2012년 11억 명은 전기 접근성이 부족하였다.

였다.

- ▶ 세계 에너지 집약도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3% 높아졌다. 2010-2012년 사이 에너지 절약의 약 68%는 개발도상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동아시아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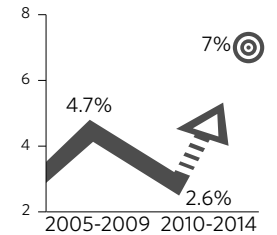


2010-2012년 사이에 현대식 재생에너지는 연간 4% 증가하였다.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적인 완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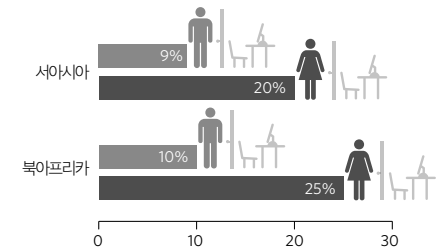
연속적, 포용적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글로벌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목표 8은 모두를 위한 생산적인 완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강제노동,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최빈국(LDCs)의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성장률은 2005-2009년 4.7%에서 2010-2014년에 2.6%로 감소하였다. 이는 연간 목표율 7%의 절반보다 낮았다.
-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도상지역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선진지역의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개발도상지역의 2배 이상이었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보다 약 20배 더 높았다.
- ▶ 2015년, 남성 실업률이 5.8%인 것에 비해 여성 실업률은 6.7%였다. 성별 격차는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이 지역의 여성 실업률은 남성의 2배 이상이었다.
- ▶ 은행 계정이 있는 성인 비율은 4년 동안 20%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약 20억 명이 이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최빈국의 1인당 실질GDP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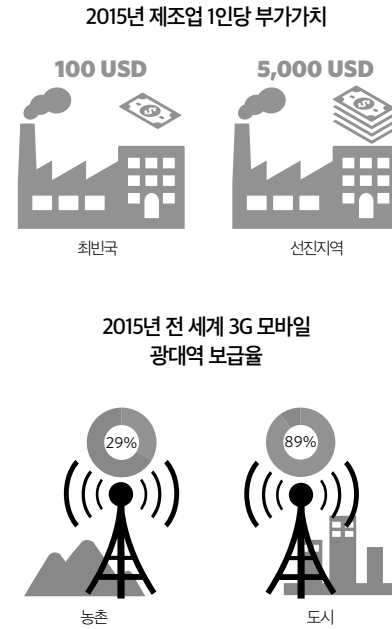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여성이 실업자일 가능성은 남성의 2배이다



목표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장려

목표 9는 인프라 개발, 산업화 및 혁신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이는 강화된 국제 및 국내 재정적, 과학기술적, 기술적 지원과 연구 및 혁신, 그리고 정보 통신 기술에의 접근 증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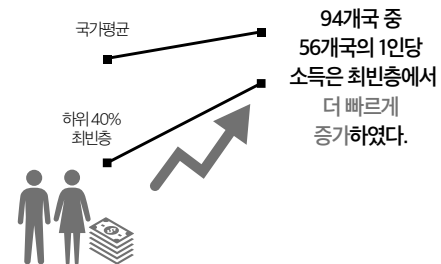
- ▶ 2015년, 최빈국의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연간 미화 100달러 미만이었으며, 이에 비해 선진지역은 연간 미화 5,000달러에 가까웠다.
-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더 깨끗한 연료 및 기술 덕분에 2000-2013년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13% 감소하였다.
- ▶ 2013년 전 세계의 연구 및 개발(R&D) 투자는 미화 1조 7000만 달러(구매력 평가지수, PPP)로, 미화 7320억 달러였던 2000년보다 증가하였다. 2013년 선진지역의 R&D 투자는 GDP의 거의 2.4%를 차지한 반면에, 최빈국과 내륙 개도국의 평균 투자는 0.3% 미만이었다.
- ▶ 2015년, 3세대(3G) 모바일 광대역은 도시 인구의 89%를 차지하였지만 농촌 인구의 경우는 29%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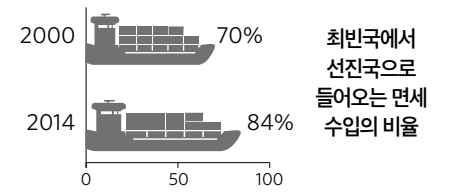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0은 소득 불평등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가 간 성별, 나이, 장애, 인종, 계급, 민족, 종교 및 기회에 근거한 불평등 감소를 추구한다. 또한 이는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보장하고 범세계적 의사결정과 개발 원조에서 개발도상국의 표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2007-2012년 데이터가 있는 94개 국가 중 56개국에서, 하위 40% 최빈층의 1인당 소득은 국가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 ▶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면세 수입의 비율은 2000-2014년 사이에 각각 70%에서 84%로, 65%에서 7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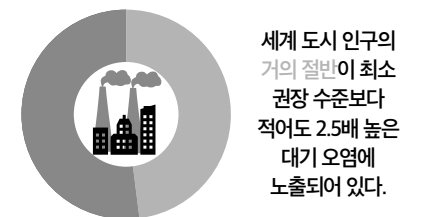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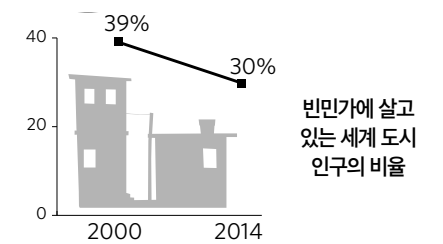
- ▶ 2015년 국제 송금 비용은 평균적으로 송금 금액의 7.5%로, 목표율 3%의 2배가 넘었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1은 지역사회 화합과 개인 안전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과 고용을 활발히 하는 방식으로 도시와 기타 거주지를 재건하고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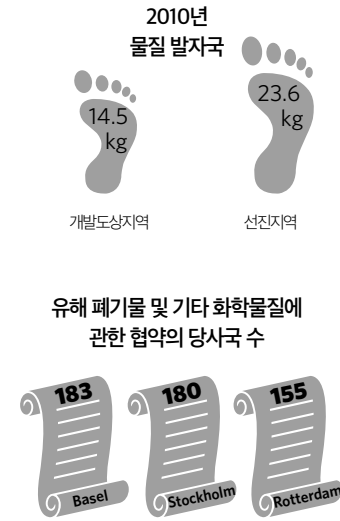
- ▶ 2014년, 8억 8000만 명 또는 세계 도시 인구의 30%가 도시 빈민가에 살았고, 이에 비해 2000년에는 39%가 도시 빈민가에서 살았다.
- ▶ 전 세계의 많은 급성장 도시에서는, 인구가 행정상의 경계를 넘어 멀리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
- ▶ 2014년, 세계 도시 인구의 약 절반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안전기준보다 적어도 2.5배 높은 수준의 공기 오염에 노출되었다.
- ▶ 2015년 기준으로, 142개 국가가 국가 수준의 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82개국이 이미 이행하고 있었고 23개국은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 도달하였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2는 환경에 유독한 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정 정책과 국제협약 같은 조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2010년, 선진지역의 물질 발자국(사용된 주요 물질의 양)은 GDP 단위당 23.6kg을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지역의 물질 발자국은 GDP 단위당 14.5kg였다.
- ▶ 2010년, 선진지역의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개발도상지역보다 72% 더 높았다.
- ▶ 6개 회원국을 제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약(바젤, 로테르담 또는 스톡홀름) 중 적어도 하나의 당사국이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시행

기후변화는 발전의 가장 큰 단일 위협요소이고, 그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영향은 최빈층과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안긴다.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기후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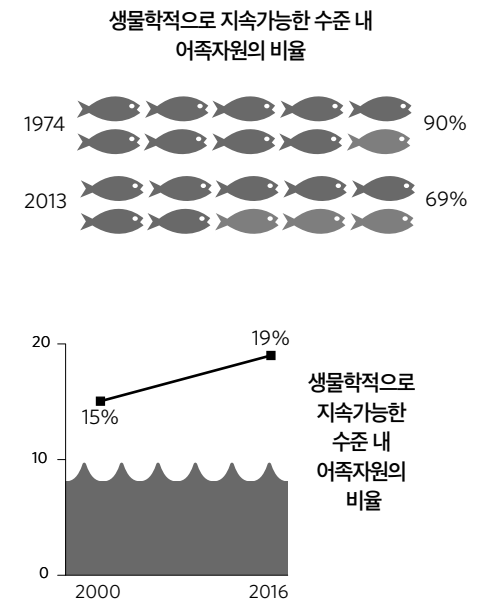
- ▶ 2016년 4월, 175개 회원국은 역사적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지구 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 참여해야 하는 야심찬 기후 조치의 토대를 마련한다.
- ▶ 2000-2013년에 발생한 자연재해의 결과로서 매년 평균 83,000명이 사망하였고 2억 11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 ▶ 보도에 의하면, 2015년 83개국 만이 재해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 및/또는 규제 조항을 갖추고 있었다.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이 목표는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군소도서개발국과 최빈국의 경제적 혜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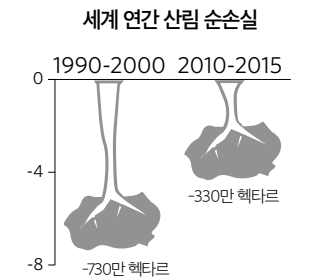
- ▶ 해양자원은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하는 해안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 ▶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의 세계 해양 어족자원 비율은 1974년 90%에서 2013년 69%로 감소하였다.
- ▶ 2014년, 국가 관할권(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하에 있는 해양 환경의 8.4%가 보호를 받았다. 2000-2016년, 보호구역에 완전히 포함된 주요 해양 생물다양성 지역의 비율은 1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 ▶ 대부분 해안 부영양화의 위험에 처한 5대 해양 생태계는 벥골만(Bay of Bengal), 동중국해(East China Sea), 멕시코만(Gulf of Mexico), 북브라질 대륙붕(North Brazil Shelf),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이다; 이 지역들은 2010년 총 7억 8100만 명의 해안 인구를 위해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목표 15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황폐화된 토지의 회복, 사막화에 성공적으로 대처, 황폐화된 자연 서식지의 감축, 생물다양성 손실 종식에 중점을 둔다. 이 복합적인 모든 노력은 숲과 기타 생태계에 직접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이 번성하고 다음 세대가 이 자연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세계 산림지역 순손실은 1990년대 연간 730만 헥타르에서 2010-2015년 연간 330만 헥타르로 감소하였다.
- ▶ 2000-2016년,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세계의 육지, 내륙 담수 및 산악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의 퍼센트는 각각 16.5%에서 19.3로, 13.8%에서 16.6%, 18.1%에서 20.1%로 증가하였다.



- ▶ 2015년 기준, 23,000종 이상의 식물, 균류 및 동물이 높은 멸종 가능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활동은 지구 역사를 통틀어 정상보다 3000배 빠른 속도로 종의 멸종 원인이 되고 있다.
- ▶ 1999년 이후로, 적어도 7,000종의 동물과 식물이 120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거래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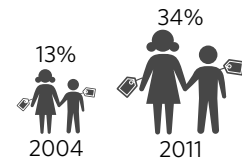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6은 인권 존중, 법의 지배, 모든 수준에서 좋은 거버넌스,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상한다.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오래 지속된 폭력과 무력 분쟁에 직면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약한 제도와 정의, 정보 및 기타 기본 자유에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 ▶ 2008-2014 사이에, 개발도상국의 살인율은 선진국의 2배였다.
- ▶ 2011년 최고조일 때, 전 세계 인신매매 희생자의 34%는 어린이였다. 이는 13%였던 2004년보다 증가하였다.
- ▶ 전 세계적으로, 2012-2014년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30%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
- ▶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 이상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최빈국에서는 아동 2명 중 1명이 5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 세계 인신매매 희생자 아동의 비율



최빈국에서는 아동 2명 중 1명이 5번째 생일을 맞을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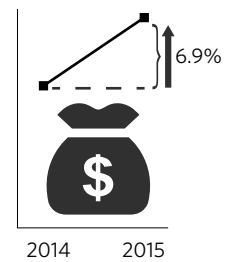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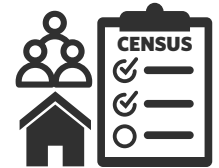
2030 의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연합체계 및 기타 활동가로부터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는 활성화되고 강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에 대한 지원 증가는 모두를 위한 공평한 발전의 기본이 된다.

- ▶ 공적개발원조(ODA)는 총 미화 1316억 달러로, 이는 실질적으로 2014년보다 6.9% 높았고 지금까지의 기록 중에 최고 수준이었다.□
- ▶ 2000-2012년 동안의 채무상환 대 수출 비율은 2000년 11.7에서 2012년 2.7로 크게 떨어졌다.
- ▶ 2015년, 고정식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선진지역에서는 29%에 도달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은 7.1%, 최빈국은 0.5%에 불과했다.
- ▶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수출에서 최빈국의 상품 수출 비율은 거의 2배가 되었지만, 2014년에 1.1%로 여전히 전체 수출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 ▶ 2006-2015년 동안, 모든 국가의 90%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88%가 필수 데이터의 주요 공급원인 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는 2015년에 총 미화 1316억 달러로, 이는 실질적으로 2014년보다 6.9% 증가하였다.



2006-2015년 동안, 모든 국가의 90%가 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착수하면서, 회원국들은 개인의 존엄이 기본이며 모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을 위해 의제 목표와 세부목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회원국들은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분류 데이터가 발전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 ▶ 2015년, 전 세계적으로 청년(15-24세) 실업률은 성인 실업률(4.6%)보다 3배 이상 높은 15%였다.
- ▶ 2015년 전 세계적으로, 상위 20% 최부유층에서 출산 시 숙련된 의료인이 참석할 가능성은 하위 20% 최빈층의 2배 이상이었다 (89% 대 43%).
- ▶ 최빈층의 아동이 성장부진을 겪을 가능성은 최부유층 또래에 비해 2배 이상이다.
- ▶ 도시 거주민의 거의 80%가 수도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농촌은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물을 사용한다.
- ▶ 2014-2016년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은 모두 개발도상지역 전체보다 상당히 더 높은 영양결핍 유병률을 보고하였다(각각 13.6%, 9.8%, 5.1%).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2030 의제의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지만,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집단 내에서 특정 집단을 다루는 데이터와 지표 없이 SDGs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소스의 통합 개선 등을 통한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 세계 통계 공동체는 현재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현재 및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작업의 시행 방법을 변혁하고 현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홍보
경제사회처 사무차장

1. 빈곤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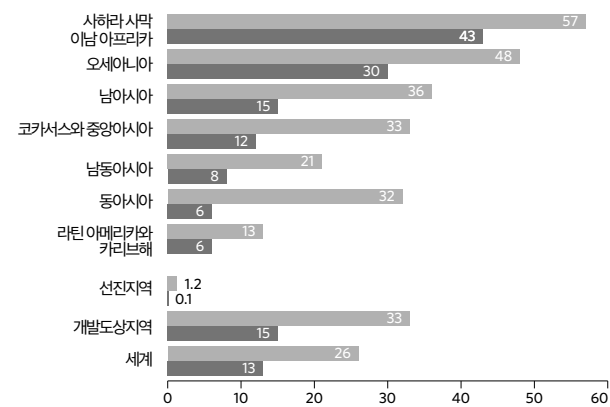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의제 2030에 서명한 전 세계 정부들은 지난 15년 동안, 가장 극한 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발로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해 헌신하였다. 그들은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해야 함을 결의하였다. 이는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혜택을 포함하고, 분쟁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기초서비스를 포함한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한다.



하루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 2000년과 2002년



주의: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지역 추정치는 가용 데이터의 모집단 범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었다.

2012년, 빈곤은 지난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8명 중 1명이 극한 빈곤 속에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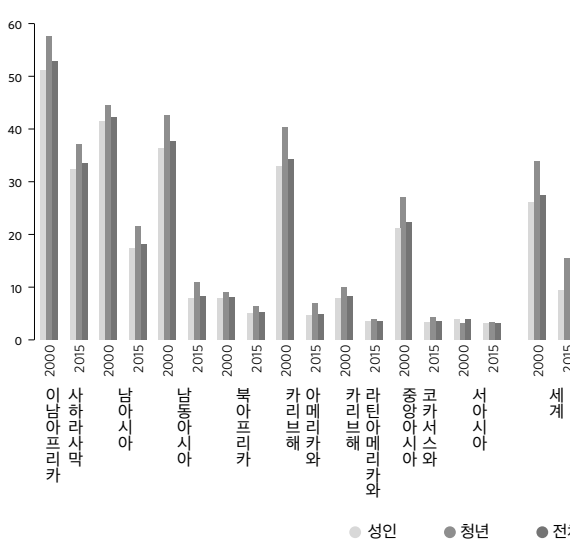
국제 빈곤선은 2011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현재 1일 1인당 미화 1.90달러로 정의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26%에서 13%로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이 10년 간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된다면, 극한 빈곤의 목표율은 2030년까지 4%로 떨어질 것이며 성장 혜택이 모든 소득집단에 고르게 분배될 것으로 추정된다. 빈곤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으며, 2012년 이곳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에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였다.

근로빈곤층 가운데, 젊은이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5년, 세계 노동자와 그 가족의 10%가 하루에 1인당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었다. 이는 2000년 28%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15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는 근로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5년, 근로 성인의 9%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는 것에 비해, 모든 취업 청년의 16%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었다. 같은 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모든 노동자의 3분의 1과 남아시아 노동자의 18% 이상이 근로빈곤층에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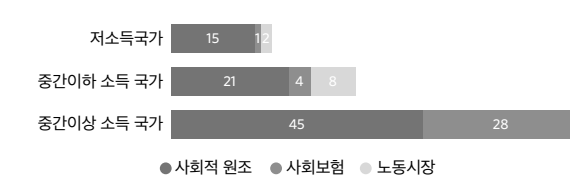
전체, 청년, 성인의 하루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취업 인구의 비율(%), 2000년과 2015년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5명 중 1명이 사회적 보호 혜택을 받는다

빈곤을 더 많이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표적화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현금이체, 학교 급식 및 표적화된 식품 원조 같은 사회적 원조를 포함한다. 사회보험 및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보호로, 노인과 장애인 연금, 출산수당, 실업보험, 기술훈련 및 임금 보조금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특히 빈곤 국가에서, 사회보호체제 밖에 남아있다: 중간이상 소득 국가에서는 3명 중 2명이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저소득 국가에서는 약 5명 중 1명이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

최신 가용 데이터에 따른, 사회적 보호 혜택을 받는 인구의 비율(%), 2000-2014년



2. 기아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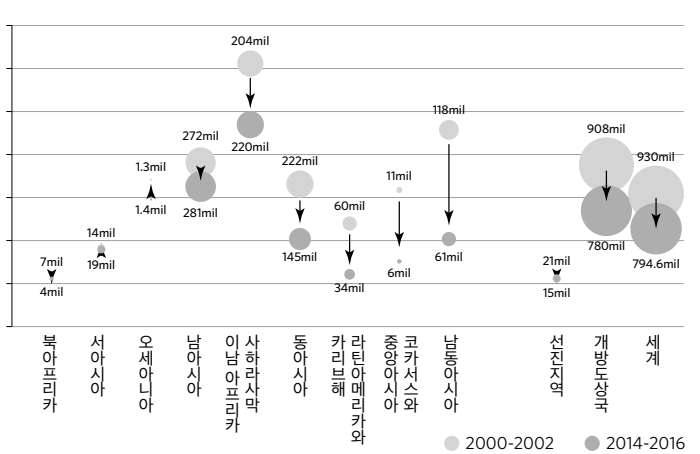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증진

목표 2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기아를 종식시키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한다. 이 목표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양질의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식품에의 접근과 광범위한 지속가능 농업 증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토지, 기술, 시장, 지속가능 식량생산체계 및 회복력 있는 농업 활동에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소규모 농부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2000-2002년과 2014-2016년, 영양결핍인 사람의 수 및 비율(백만 명 및 %)



주의: 동그라미의 세로 위치는 영양결핍인 인구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동그라미 크기는 영양결핍인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7억 9000만 명이 아직도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

기아 퇴치는 지난 15년 동안 약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영양결핍인 사람의 비율은 2000-2002년 15%에서 2014-2016년 1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7억 9000만 명이 아직도 정기적으로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현 경향이 지속된다면, 기아 종식 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아의 지속은 더 이상 식량 제공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아 목표 도달에 실패한 많은 국가에서, 자연 및 인적 재해나 정치적 불안정이 거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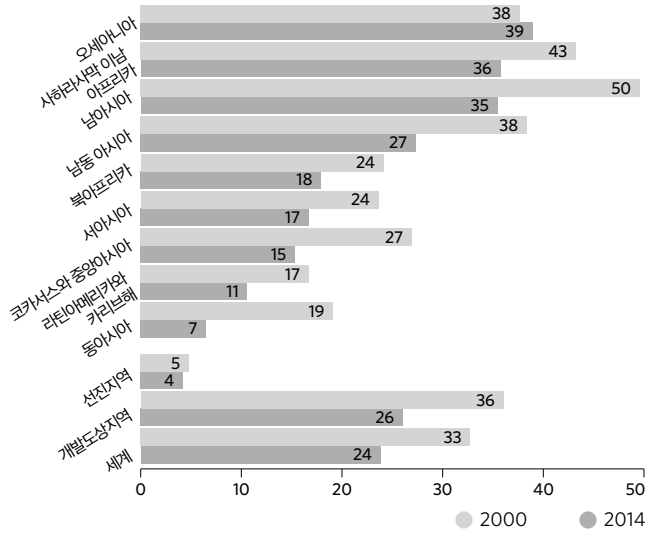
2014-2015년에 약 150개국 대해 입수된 식량불안정경험척도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FIES) 예비 추정치에 따르면, 식량 불안정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보통 또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고 4분의 1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 남아시아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인의 약 25%가 보통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였고 12%가 심각한 수준을 경험하였다.

아직도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이 만성 영양결핍 또는 성장부진을 겪는다.

2014년, 1억 5860만 명으로 추정되는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은 성장부진, 즉 나이에 비해 작은 키로 정의되는 만성 형태의 영양결핍을 겪었다. 만성 영양결핍은 아동을 일반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더 많이 처하게 하고, 감염 빈도와 중증도를 증가시키고, 회복 지연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인지능력 장애, 학습 및 작업 성과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부진 아동의 비율은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남아시아는 2000-2014년 사이에 가장 큰 진전을 보였지만, 6390만 명이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성장부진 아동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성장이 진전 속도를 앞질렀다: 성장부진 아동의 수가 2000년 5010만 명에서 573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를 합치면 2014년 기준으로 5세 미만 성장부진 아동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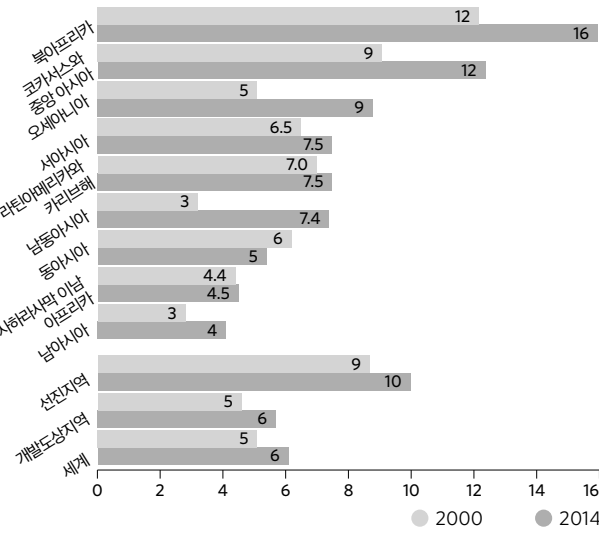
성장부진을 겪고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14년



5세 미만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거의 20% 증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과체중 아동의 비율은 2000년 5%에서 2014년 6%로 증가하였다. 과체중은 거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 문제이다. 5세 미만 과체중 아동이 가장 만연한 곳은 북아프리카였고(16%),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12%). 세계적으로, 이 연령 집단의 아동 4100만 명이 과체중이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이 아시아에 살고 4분의 1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과체중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 2000년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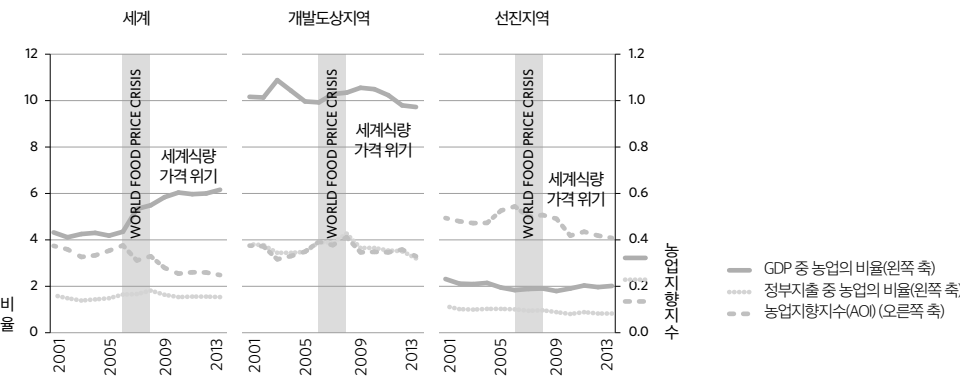


주요: 2000-2014년 모든 기간 동안 선진지역의 모집단 범위는 50% 미만이다.

정부지출 중 농업의 비율은 경제부문에 점점 더 뒤쳐진다

농업 생산력은 국내와 해외 공공 및 민간 공급원의 투자에 의존한다. 최근의 정부 소비 경향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부지출 중 농업의 비율을 GDP 중 농업의 비율로 나눈 값인 농업지향지수(AOI)는 개발도상국에서 2001-2013년 사이에 0.37에서 0.33으로 떨어졌다. 이 감소는 2006-2008년 식량가격위기 동안에만 중단되었으며, 이때 정부는 농업 소비를 늘렸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개발도상국 농업 원조는 전체의 약 8%에 머물렀다. 이는 기부자들이 거버넌스 개선, 사회자본 구축, 취약국가 강화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의 최고 20%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2001-2013년, 세계, 개발도상지역, 선진지역의 정부지출 중 농업의 비율, GDP 중 농업의 비율 및 농업지향지수(AOI)



3. 건강과 웰빙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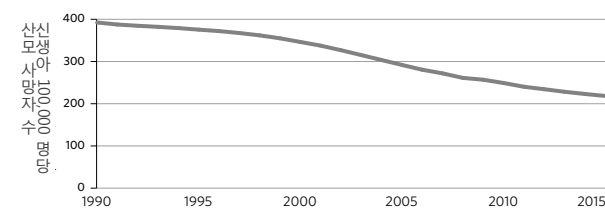
목표 3은 삶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두를 위해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목표는 생식, 산모 및 아동 보건을 개선하고,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및 소외열대질환 같은 전염병을 종식 시키고, 비전염성 및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키고, 보편적 건강보험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적정가격의 의약품 및 백신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해, 세계 리더들은 연구 및 개발 지원, 건강자원 증가, 건강 위험 감축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국가의 역량 강화에 헌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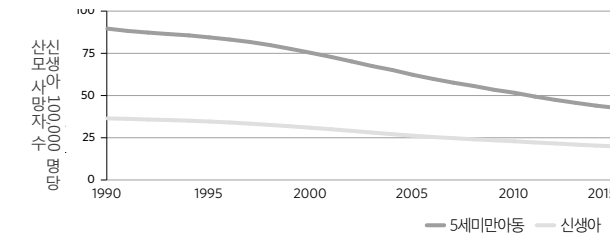
산모, 신생아 및 아동 사망률은 199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1990-2015년 사이에, 세계 산모 사망률은 44% 감소하여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21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MDGs에 미치지 못하며 2030 의제에서 정한 신생아 10만 명당 산모 70명 목표에도 많이 부족하다. 거의 모든 산모 사망은 저자원 환경에서 발생하며 적절한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 확대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2015년 전 세계적으로, 결혼한 또는 부부관계를 맺은 가임기 여성(15-49세) 약 4명 중 3명이 현대적 피임법을 이용함으로써 가족계획 요구를 충족시켰다. 출산 시 4명 중

1990-2015, 전 세계 산모 사망률



1990-2015, 전 세계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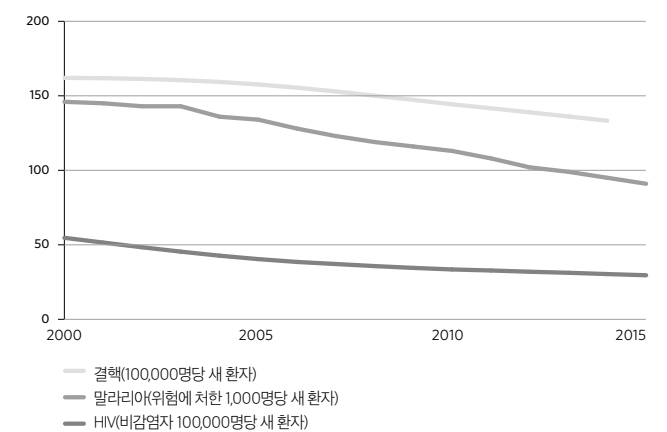
3명 만이 숙련된 출산요원의 도움을 받았다.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신생아 1,000명당 43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MDGs에서 구상했던 3분의 2 감소에는 부족하였다. 2015년, 590만 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망의 대부분은 예방가능하였다. 이 기간 동안, 1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아동 생존률 증가가 신생아 사망률 감소의 증가를 앞질렀다; 결과적으로, 모든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증가는 생후 1개월 내에 발생한다(2015년 45%).

주요 전염성 질병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새로 감염된다.

2000-2015년 사이에 HIV, 말라리아 및 결핵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MDG 6가 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의 종식은 활기 있는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2015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HIV 감염자 수가 비감염자 1,000명당 0.3명이었고, 같은 해 2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HIV에 새로 감염되었다. HIV 발생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았고 비감염자 1,000명당 새 환자가 1.5 명이 었다. 2014년, 960만 건(100,000명당 133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보고되었는데 그 중 58%가 남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발생하였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말라리아 위험에 처해 있으며, 2015년 발생률은 위험에 처한 1,000명당 새 환자 91명으로 2억 1400만 건으로 추정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전 세계 모든 말라리아 사례의 89%를 차지하였고 발생률은 위험에 처한 1,000명당 235명이었다.

2000-2015, 전 세계 HIV, 말라리아 및 결핵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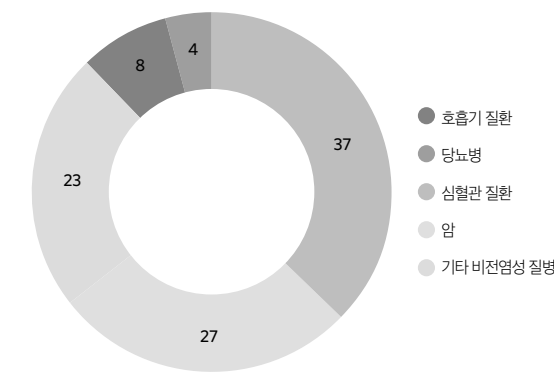


70세 미만 사람들 가운데, 심혈관 질환과 암이 비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2012년, 비전염성 질병(NCDs)은 매년 약 3800만 명이 사망한 원인이었고, 전 세계 모든 사망 원인의 68%를 차지하였다. 보통 조기사망으로 간주되는 70세 미만 인구의 사망에서, 비전염성 질병은 모든 사망의 52%를 차지하였다.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4분의 3 이상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원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4대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2000-2012년 사이에 15% 감소하였다.

종류별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비율(%),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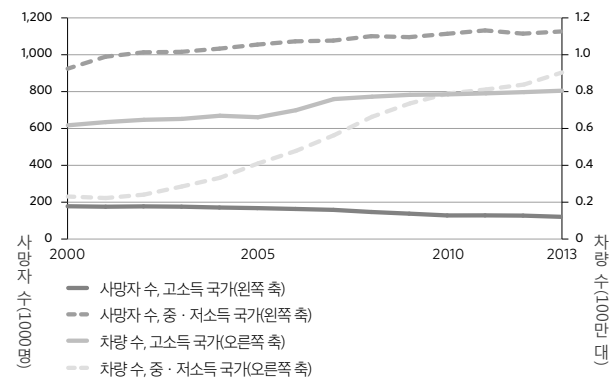
조기사망이란 70세 미만 인구의 사망을 뜻한다.
주의: 반올림 때문에 백분율의 합이 100이 되지 않는다.

2000년 이후로 도로 교통 사망은 고소득 국가에서 느리게 감소한 반면에 중·저 소득 국가에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2013년에 약 125만 명, 하루 평균 3,400명이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게다가, 매년 수천만 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이나 장애를 입는다. 피해자는 주로 취약계층 가운데 아동,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노인이다.

2000-2013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차량 수의 극적인 증가를 고려해 볼 때, 202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야심찬 목표이다.

2000-2013년, 고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도로 교통 사망자 수(1000명)와 차량 수(100만 대)



4. 양질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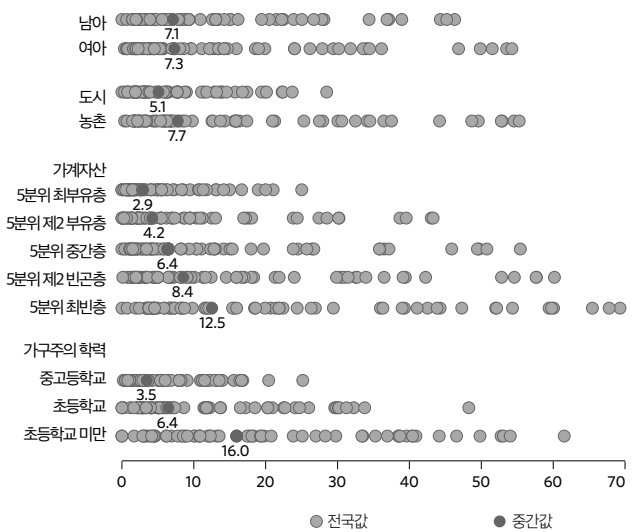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4는 모든 사람이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모든 단계의 교육과 개발에서 기본적 및 고차적 기술 습득,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TVET)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에의 더 크고 더 공평한 접근, 잘 기능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가치에 중점을 둔다.



성별, 지역, 가계자산 및 가구주 학력별 조사대상국가 초등학교 연령 미취학 아동의 비율(%), 2008-2012년



주의: 데이터는 2008-2012년 63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실시된 전국 대표 가정 조사에 기초한다.

농촌지역에 살거나, 빈곤하거나,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아동이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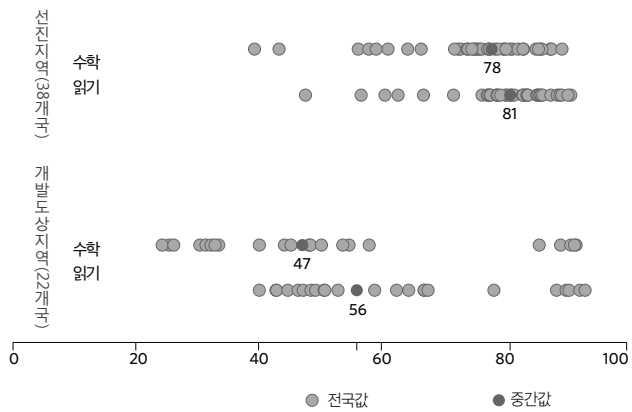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2015년까지의 보편적 초등 교육 MDG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마지막 해인 2013년에, 5900만 명의 초등학교 연령 아동과 6500만 명의 중학교 연령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여아였다. 2008-2012년 사이에 63개 중·저소득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하위 20% 최빈층의 초등학교 연령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최부유층 토레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가구주 가정의 아동, 특히 여아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더 높았다.

기본 기술은 젊은이들이 평생 더 많은 것을 학습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

양질의 교육은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능력 같은 기본적인 기술과 고차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흔히 의무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 이 단계까지, 학생은 교과관련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개인 및 사회적 기술을 보유하고, 평생 더 많은 것을 학습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갖추 수 있어야 한다.

선진지역 38개국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젊은이의 최소 75%가 적어도 최소한의 읽기 및/또는 수학 숙련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22개 국가 중에 5개 국가만이 동일한 숙련도를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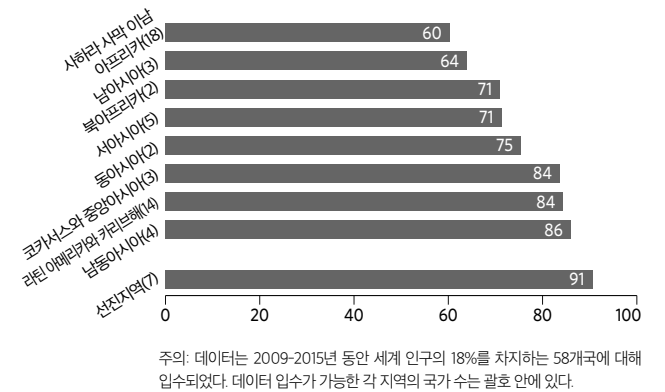
개발도상지역 및 선진지역 조사대상국가의 적어도 최소 수준의 읽기 및 수학 숙련도를 달성하는 중학교 교육을 마친 젊은이의 비율(%), 2012년



조사대상국가 3세 및 4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발달, 학습능력 및 심리사회적 웰빙 영역에서 발달상으로 정상 궤도에 있다.

유아 발달은 아동 웰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및 정신적인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것이다. 아동 발달 속도 및 발달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달시킬 생득권이 있다. 2009-2015년 동안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58개 국가 중 54개국에서, 3세 및 4세 아동의 적어도 절반이 다음 영역 중 최소 세 영역에서 발달상으로 정상 궤도에 있었다: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능력, 신체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및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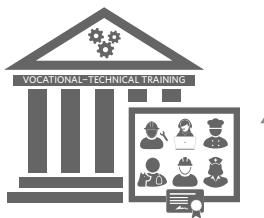
다음 영역 중 최소 세 영역에서 발달상으로 정상 궤도에 있는 36-59개월 아동의 비율(%):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능력, 신체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및 학습능력, 2009-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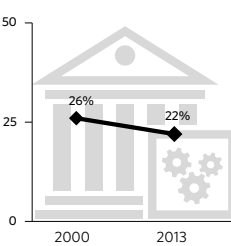
평생 배울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학습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긴급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회의 요구를 다룬다: “함께 살기”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이는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TVET) 및 고등교육에의 공평한 접근 역시 촉진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TVET 등록은 2000-2013년 사이에 3분의 1 증가하였다. 중등교육에서 TVET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6%에서 22%로 떨어졌다. 제3차 교육은 동일 기간 동안 급속히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등록이 2배 늘었으며, 개발도상지역에서는 2.5배 증가하였고, 등록한 남성과 여성의 수는 거의 같았다. 그러나, 2013년 세계적으로 아직도 7억 5700만 명의 성인이 읽고 쓸 수 없으며 이들 중 3분의 2가 여성이었다.



2000-2013년 사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TVET 등록은 거의 3분의 1 증가하였다



중등교육에서 모든 등록 중 TVET의 비율은 26%에서 22%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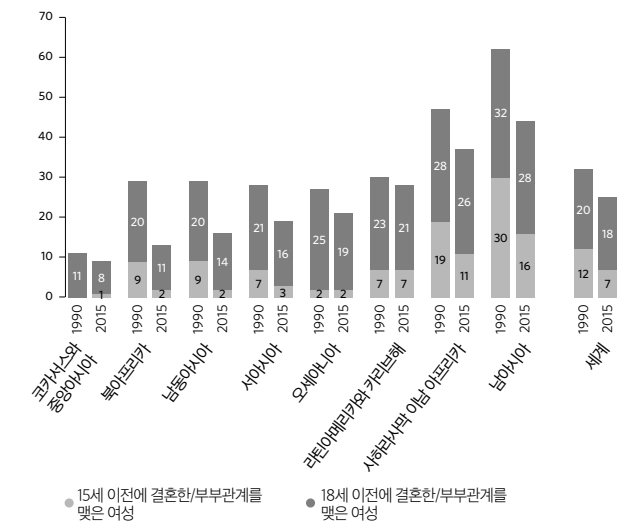
5. 성평등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를 통해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성 및 남아와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까운 파트너의 폭력, 성적 폭력, 그리고 아동 결혼과 여성 할례 같은 악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철폐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이 유급 고용, 성 및 생식 보건, 생식권,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은 발전이 공평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15세 및 18세 이전에 결혼한 또는 부부관계를 맺은 20-24세 여성의 비율(%), 1990년과 2015년



아동 결혼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남아있다.

아동 결혼 관행은 천천히 감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보고된 20-24세 여성의 비율은 1990년경 32%에서 2015년경 26%로 감소하였다. 아동 결혼은 남아시아(44%)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37%)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10개 국가들이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15세 미만 여아의 결혼 비율도 남아시아(16%)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11%)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록 지역 간 심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 할례 관습이 집중되어 있는 30개 국가에서는 15-19세 여아 3명 중 1명 이상이 할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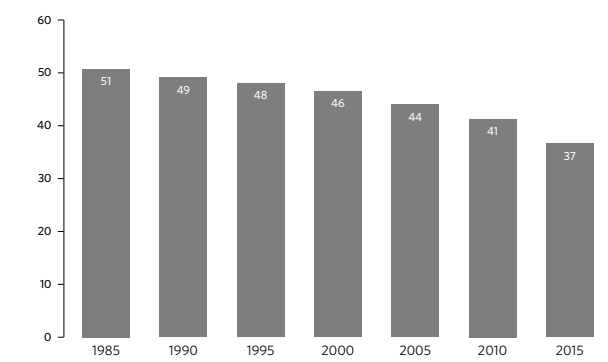
여성 할례는, 특히 할례가 뿌리 깊은 사회적 규범인 국가에서, 전 세계 여성과 여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권 침해이다. 할례 관습이 집중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30개 국가에서 적어도 2억 명이 성기가 절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성 할례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25% 이상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감소 속도가 고르지 않았다. 이 30개 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에는 2명 중 1명이 할례를 받은 것은 비해, 오늘날에는 15-19세 여아 3명 중 1명 이상이 이 절차를 겪었다.

신체적, 성적, 심리적 및 경제적 폭력을 포함한 여러 다른 형태의 폭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및 다른 형태의 성착취는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여성 및 여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극심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을 방해한다.

52개국(선진지역 1개 국가 포함) 가용 비교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15-49세 여아 및 여성의 21%가 지난 12개월 내에 가까운 동반자에게서 신체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어 국가 간 격차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5세 미만 여아의 결혼이 1990년 12%에서 현재 7%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아동 결혼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곳은 북아프리카로 기록되었는데, 이곳의 아동 신부 비율은 지난 25년 사이에 29%에서 13%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할례 관습이 집중되어 있는 30개 국가에서 여성 할례를 받은 15-19세 여아의 비율(%), 198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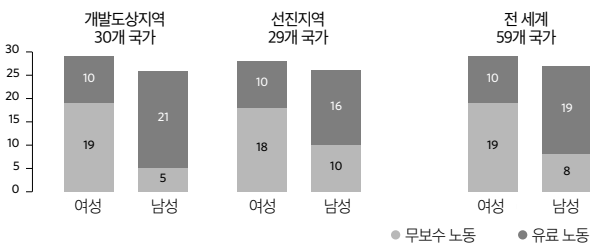


주의: 수치는 30개국 비교 데이터에 기초한 인구가중평균이다. 2015년 수치는 2010-2014년 사이에 수집된 가장 최근의 가용 데이터를 나타낸다.

개발도상국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4배 더 많은 시간을 무보수 노동에 보낸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과 여아는 가족을 돌보는 일과 요리, 청소 같은 집안일을 포함하여, 무보수 노동의 대부분을 맡아서 한다. 여성은 매일 자신의 시간의 19%를 무보수 노동에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에 비해 남성은 8%였다. 무보수 돌봄과 집안 일에 대한 책임은 유료 노동과 결합되어, 여성과 여아가 남성과 남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쉬거나 자신을 돌보고 배우는 등의 활동에 시간을 덜 할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2014년, 조사대상국가 여성과 남성의 무보수 및 유료 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율(1일 소요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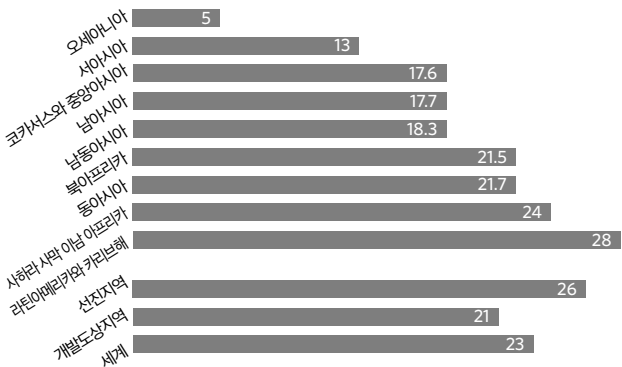


주의: 수치는 30개국 비교 데이터에 기초한 인구가중평균이다. 2015년 수치는 2010-2014년 사이에 수집된 가장 최근의 가용 데이터를 나타낸다.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국회 의석의 겨우 23%를 차지한다

국회 또는 국회 하원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 비율은 2016년에 23%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 이후로 매년 평균 0.6%, 10년 동안 6%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 영역의 느린 진전은 국회 리더십 위치에서 있는 여성의 빠른 발전과 대비된다. 2016년, 여성 국회의장의 수는 43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하였다(세계적으로 273명 중에); 2016년 1월 여성은 모든 국회의장의 17%를 차지하였다.

국회 또는 국회 하원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 2016년



6. 깨끗한 물 및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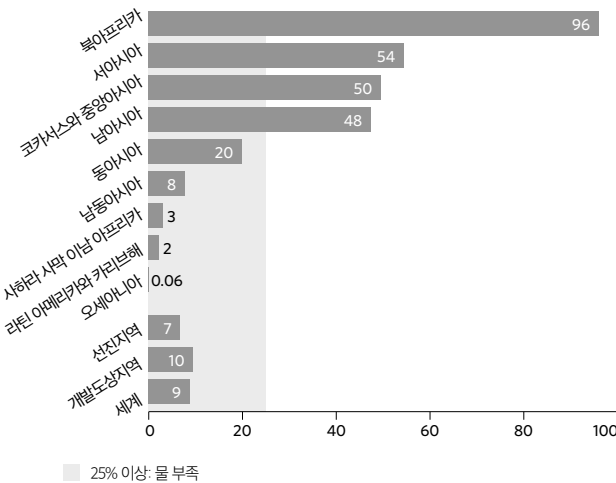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 및 위생시설의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지속가능발전 목표 6은 식수, 위생시설 및 위생을 넘어서, 사람과 지구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수자원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다룬다. 2030 의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수자원 중심성을 인식하고 건강, 교육, 빈곤 완화를 포함한 기타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개선된 식수, 위생시설 및 위생의 역할을 인정한다.



물 부족 수준: 가용 담수원 대비 인출된 담수 비율(%), 2012년경



■ 25% 이상: 물 부족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있다

물 순환의 총체적 관리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모든 주요 부문이 인출한 총 담수 대 총 재생가능한 담수원의 비로 계산되는 “물 부족” 수준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있고,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부족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대륙의 국가에 영향을 끼친다. 많은 지역이 물리적 물 부족의 시작 단계를 나타내는 25% 한계 아래에 있지만, 국가 내 및 국가 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견된다. 2011년, 41개 국가가 물 부족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1998년 36개 국가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아라비아 반도, 중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10개 국가는 재생가능한 담수원의 100% 이상을 인출하였다.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지 만 모든 수원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66억 명 또는 세계 인구의 91%가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였고, 이에 비해 2000년에는 82%가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였다. 아직도 6억 6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개선되지 않은 수원이나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 보급률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약 90% 이상이었지만, 만연된 불평등은 국가 내 및 국가 간에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개선된 수자원이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적어도 18억 명이 배설물에 오염된 식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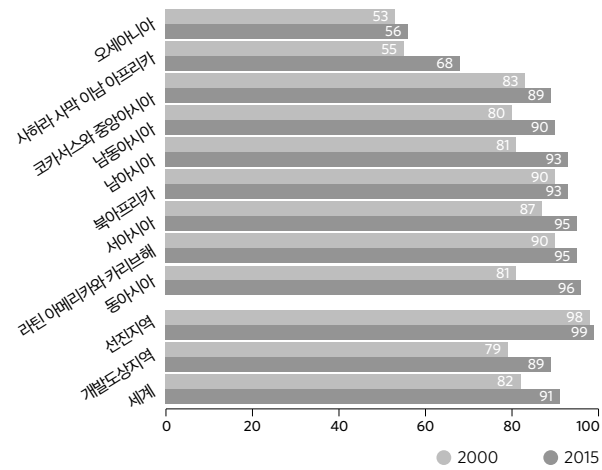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위생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0-2015년 사이에,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59%에서 68%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에 전 세계적으로 49억 명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4억 명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 중 9억 4600만 명은 어떠한 시설도 전혀 없이 노상배변을 계속하였다. 배설물과 폐수의 안전하지 못한 관리는 공중보건과 환경에 지속적으로 주요 위협을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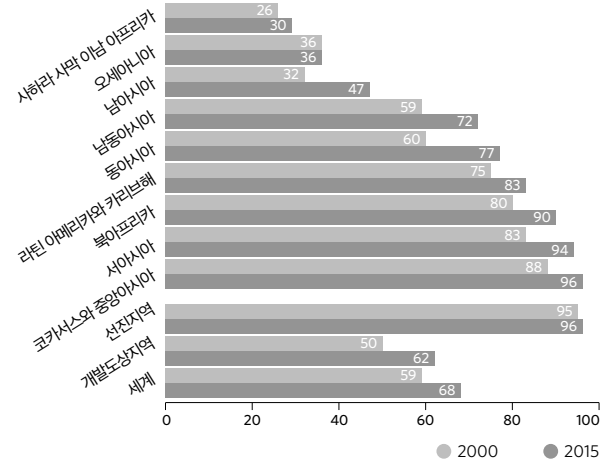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이 모든 지역의 국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행 진전 속도는 다르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주요 측면은 2002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의 후속조치인 통합수자원관리(IWRM)의 이행이다. 2012년, IWRM 설문조사 질문에 응답한 130개 국가의 65%는 전면 이행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관리계획이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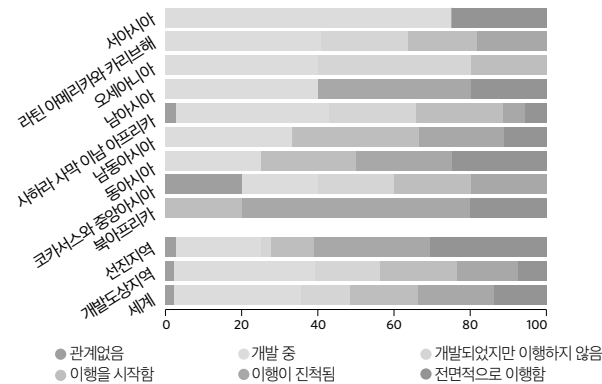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2000년과 2015년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 2000년과 2015년



통합수자원관리 계획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획의 여러 이행 단계에 있는 국가의 비율(%), 2012년



7. 적정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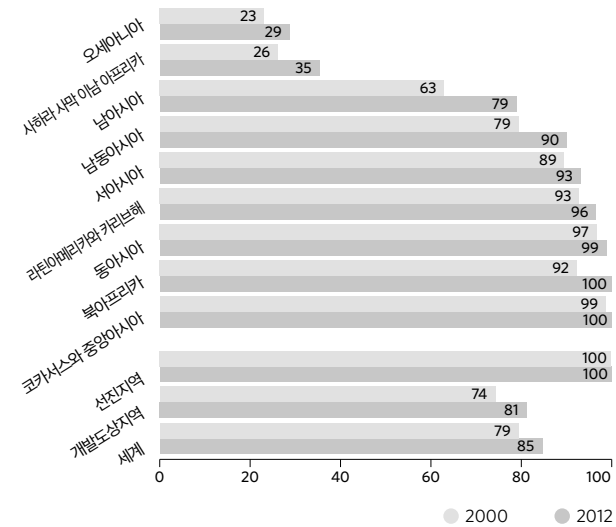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에의 접근은 기아 종식부터 보건, 교육, 물공급 및 산업화의 진척 그리고 기후 변화 완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접근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며, 현재의 진전 속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에너지 접근 결손이 크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가들의 배가 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기 접근이 가능한 인구의 비율(%), 2000년과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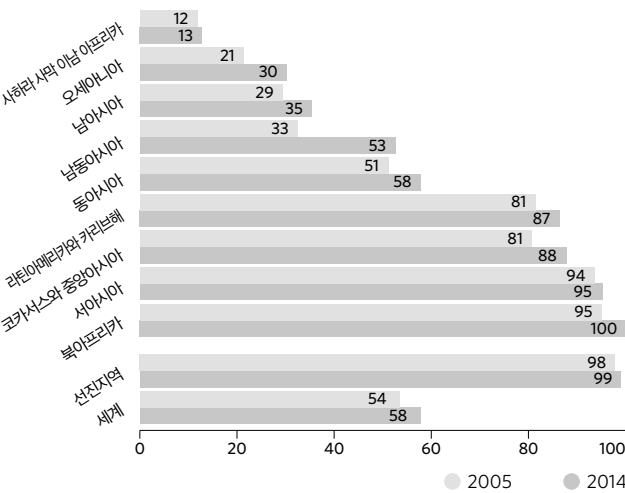
전기 접근이 가능한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11억 명은 전기 없이 살고 있다

전기 접근이 가능한 세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79%에서 2012년 8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최근 진전은 남아시아, 남동아시아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진척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65% 이상과 오세아니아의 70%를 포함하여, 11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필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2010년 이후로 전기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의 대다수(80%)는 도시 거주자이다.

세계 인구의 40% 이상은 아직도 오염을 일으키고 건강에 해로운 조리용 연료에 의존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가스와 전기 같은 깨끗한 조리용 연료 및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인구의 비율은 54%에서 58%로 증가하였다. 접근성이 매우 낮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진척이 느렸다. 2010년 이후의 제한된 진전은 세계 인구 성장에 상당히 못 미치고, 거의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오염을 일으키는 조리용 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절대수의 사람은 실제로 증가하여 30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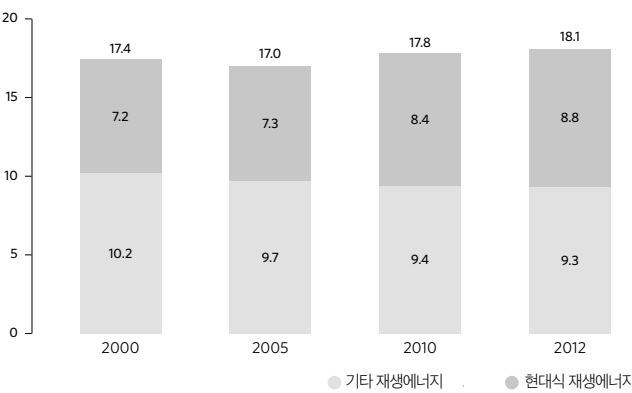
주로 깨끗한 조리용 연료 및 기술에 의존하는 인구의 비율(%), 2005년과 2014년



재생에너지 사용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대식 재생에너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세계 총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수력, 고체 및 액체 바이오연료, 풍력, 태양, 바이오가스, 지열원, 해양자원, 폐기물로부터 유래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00년 17.4%에서 2012년 18.1%로 아주 조금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체 바이오연료를 제외한 현대식 재생에너지는 2010-2012년 사이에 연간 4% 속도로 성장하였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부문 기여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대식 재생에너지는 모든 새로운 전력발생 능력의 60%를 차지하였다. 절대치로 보자면, 2010-2012년 사이 현대식 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온 에너지 소비 증가의 약 72%는 개발도상지역(대부분 동아시아)에서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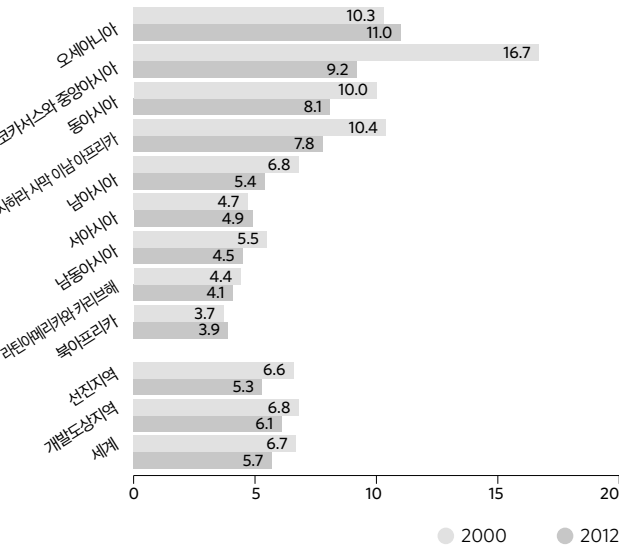
총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세계 경제성장은 에너지 사용과 분리되고 있지만 빠르게 충분하지는 않다

총 일차에너지 공급을 GDP로 나누어 계산한 에너지 집약도는 한 단위의 경제 성과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세계 에너지 집약도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3% 증가하였고, 2000년에 GDP 단위당(2011년 US 달러 PPP) 6.7메가줄에서 2012년 5.7메가줄로 감소하였다. 주요 요인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가 된(2005년 14%에서 2014년 27%로) 의무에너지효율규제에 포함된 에너지사용 비율이었다. 그러나 진전은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효율 개선속도의 2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속도의 3분의 2로 진행되고 있다. 최종사용 부문 가운데, 산업은 에너지 집약도를 감소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고, 교통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2010-2012년 에너지 집약도 절약의 약 68%는 개발도상국지역에서 비롯되었고 동아시아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일차에너지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2011 US 달러 PPP당 메가줄), 2000년과 2012년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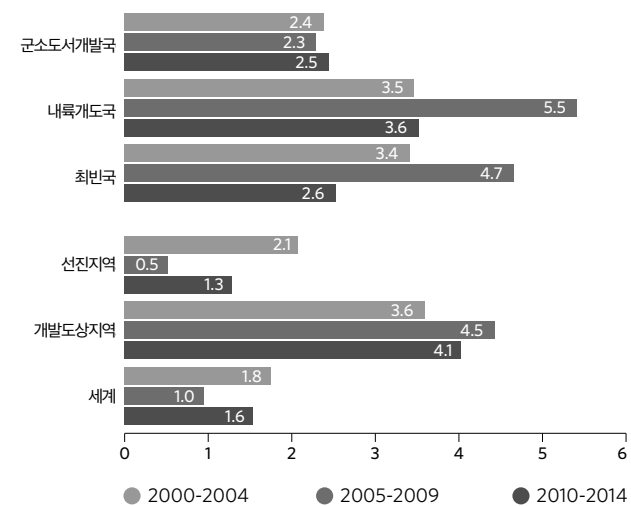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생산적 완전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생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다. 경제성장은 새로운 보다 나은 고용 기회로 이어질 수 있고 모두를 위한 더 큰 경제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특히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빠른 성장은 선진국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빈부 간의 확연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인당 실질GDP 연평균 성장률(%),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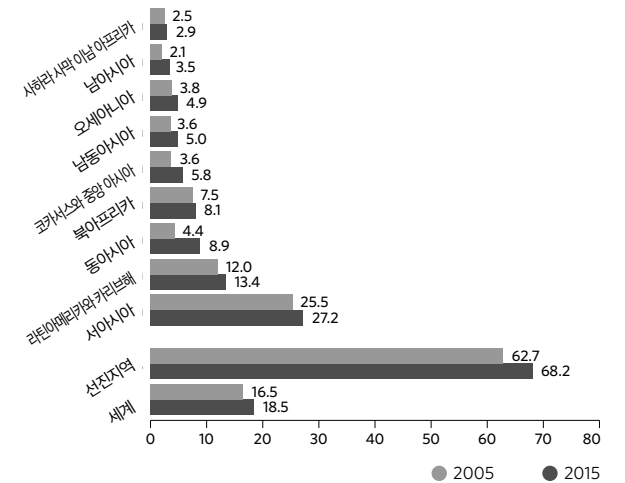
경제성장 증가는 최빈국의 GDP 7%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2010-2014년 동안 세계의 1인당 실질GDP 연평균 성장률은 1.6%로, 2000-2004년 동안 달성한 성장률보다 약간 더 낮았다. 개발도상지역 국가의 성장률은 선진지역의 3배 이상 높았지만(각각 4.1%, 1.3%), 두 지역의 성장률 모두 과거의 평균보다는 낮았다. 이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남아있음을 제시한다. 이 도전과제는 최빈국에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1인당 성장률이 잠시 가속화되었지만 그 후 느려져서 2010-2014년에는 평균이 최소 연간 목표율 7%의 절반보다 낮은 2.6%였다.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지역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지역의 노동 생산성보다 훨씬 낮다

개발도상지역의 노동 생산성 증가는 선진지역, 특히 아시아의 생산성 증가를 앞질렀다. 그렇긴 하지만, 최빈지역 노동자의 생산성은 선진지역 노동자에 비해 아직도 매우 낮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노동자는 GDP 백분율로 측정할 때 선진지역 생산성의 약 5%에 불과하다. 개발도상지역에서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동아시아 조차도 선진지역의 약 40%에 불과하였으며, 이 비율은 2000년 이후 약간 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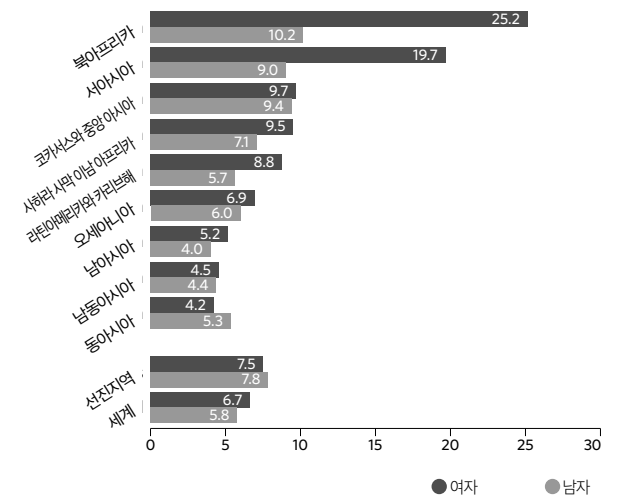
2005 고정가치 US 달러로 표시된 노동 생산성(노동자 1인당 GDP)(미화 1000 달러), 2005년과 2015년



여성이 실업자일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15% 더 높지만, 성별 격차는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훨씬 더 크다

전 세계 실업률은 2015년 6.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6.6%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실업률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남동아시아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들 지역의 실업률은 5% 미만으로, 평균 약 7% 또는 그 이상인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실업자일 가능성은 남성보다 높다. 이 격차는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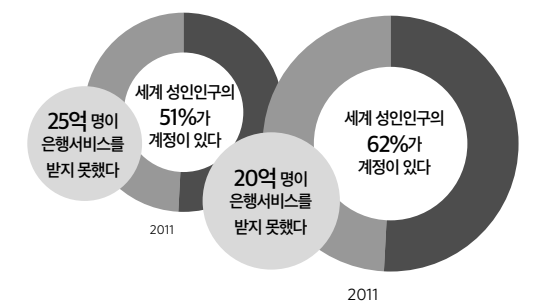
성별 실업률(%), 2015년



은행 계좌가 있는 성인 비율은 4년 동안 20% 증가하였지만 약 20억 명이 아직도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2011-2014년 사이, 금융기관 계정이 있거나 모바일 머니 서비스를 받는 세계 성인인구의 비율은 51%에서 62%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7억 명의 성인이 계정 보유자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전 세계 20억 명의 성인은 아직도 금융기관 계정이 없다. 불균형적으로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여성과 빈민이었다. 계정 보유자인 여성 비율은 남성 계정 보유자 비율보다 9% 낮다. 더욱이, 하위 40% 최빈층 중 계정 보유자의 비율은 상위 60% 최부유층보다 14% 낮다.

금융기관 계정이 있는 세계 성인인구의 비율(%), 2011년과 2014년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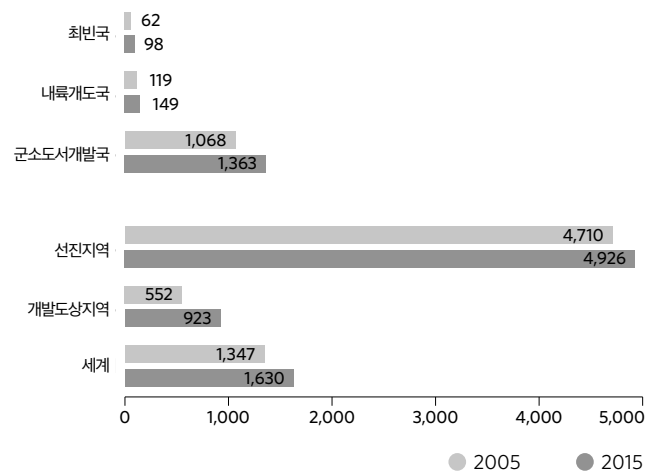


목표 9: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장려

지속가능발전 목표 9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다룬다: 인프라, 산업화, 혁신. 인프라는 기업과 사회에 필수적인 기본 물리 시설을 제공한다; 산업화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럼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혁신은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신기술의 발전을 이끈다.



1인당 제조업부가가치(2010 고정가치 US 달러), 2005년과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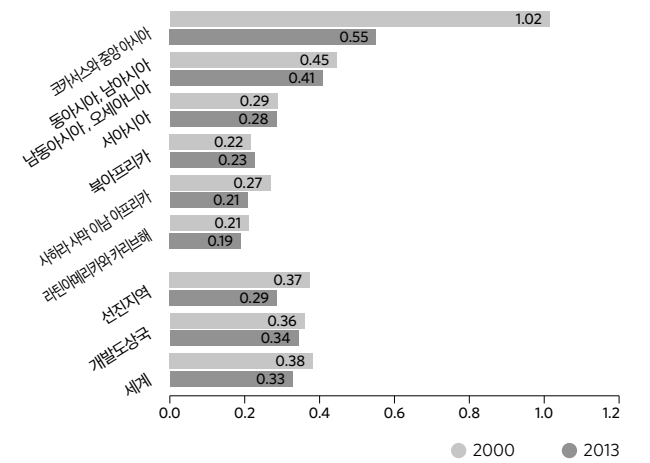
최빈국의 미개척 제조업 잠재력은 상당한 성장 기회를 제시한다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주된 엔진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불평등은 대부분의 후진국이 직면한 어려운 도전과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장 잠재력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2015년 1인당 제조업부가가치(MVA)는 최빈국에서 연간 미화 100달러 미만이었고, 이에 비해 선진지역에서는 미화 4,926달러였다. 최빈국에서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을 신장시키고 국내총생산에서 산업 비율 2배 증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제조업부가가치의 동향은 개발도상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선진지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 일자리는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 최빈국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과 전통적인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증가의 잠재성이 특히 높다.

에너지 효율과 더 깨끗한 연료 및 기술은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국가들이 더 적은 에너지 집약도 산업, 더 깨끗한 연료 및 기술 그리고 더 강력한 에너지 효율 정책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부분의 모든 지역이 GDP 대비 탄소 집약도 감소를 보였다. 의무에너지효율규제에 포함되는 세계 에너지 사용의 비율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4%에서 27%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깨끗한 연료 및 기술의 보다 광범위한 발전은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산업 개선이라는 제안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며, 자원의 더욱 더 효율적인 사용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기술 및 산업 공정의 더 큰 채택으로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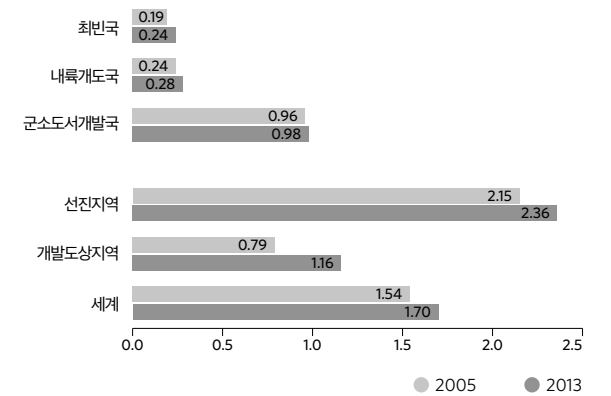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2010 고정가치 US 달러 당 kg) US, 2000년과 2013년



연구 및 개발 지출은 증가하였지만 최빈국은 뒤처졌다

2013년, 전 세계의 연구 및 개발(R&D) 투자는 미화 1조 7000만 달러(구매력평가지수, PPP)로, 미화 7320억 달러였던 2000년 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4.6%의 연간성장률을 나타내고, 2013년에 세계 GDP의 1.7%가 연구 및 개발에 투자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세계 평균은 지역 간의 큰 격차를 보여준다: 2013년 선진지역의 R&D 투자는 GDP의 거의 2.4%를 차지하지만 반면에, 최빈국과 내륙개도국의 평균 투자는 0.3% 미만에 머물렀다. 이들 국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결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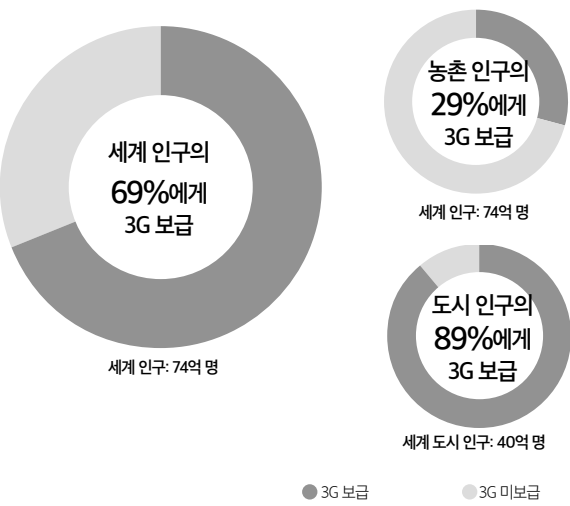
GDP 대비 연구 및 개발 지출 비율(%), 2005년과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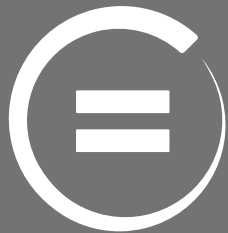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는 도시 인구의 거의 90%에 달하지만 농촌 인구의 경우 30% 미만이다

통신 부문의 기술 발전, 네트워크 확장 및 가격 하락은 전 세계 이동통신 서비스의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이전에는 접속되지 않던 지역의 사람들이 글로벌 정보사회에 동참하였고, 2015년 최빈국 거주 인구의 95%가 이동통신 신호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3세대(3G)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한 고속인터넷 접근은 덜 확대되었다. 농촌 인구의 29%에게만 보급되었다. 인터넷 접근은 점점 더 생산자와 기업가에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이러한 보급을 세계의 농촌 및 외딴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GDP 대비 연구 및 개발 지출 비율(%), 2005년과 2013년



10. 불평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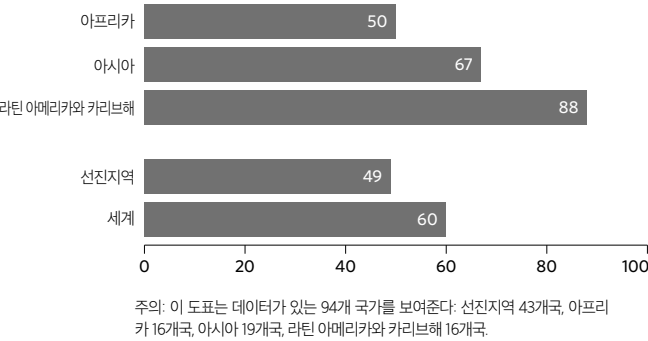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0은 소득 불평등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가 간 성별, 나이, 장애, 인종, 계급, 민족, 종교 및 기회에 근거한 불평등 감소를 추구한다. 세계 리더들은 국제 이주가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도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기적인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헌신하였다. 또한 이 목표는 범세계적 의사결정과 개발 원조에서 개발도상국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도 다룬다.



소득 하위 40%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국가 평균보다 높았던 각 지역의 국가 비율(%), 2007-2012년



주의: 이 도표는 데이터가 있는 94개 국가를 보여준다. 선진지역 43개국, 아프리카 16개국, 아시아 19개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6개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및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소득 불평등 감소를 경험했다

한 국가의 극빈층 소득 증가가 국가 평균보다 빠를 때, 소득 불평등은 감소된다. 2007-2012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는 94개 국가 중 56개 국가에서 하위 40% 최빈층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리고 아시아의 하위 40% 최빈층에서 각각 88%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긴 하지만, 56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소득성장률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극빈층의 더 빠른 소득 증가가 반드시 더 큰 번영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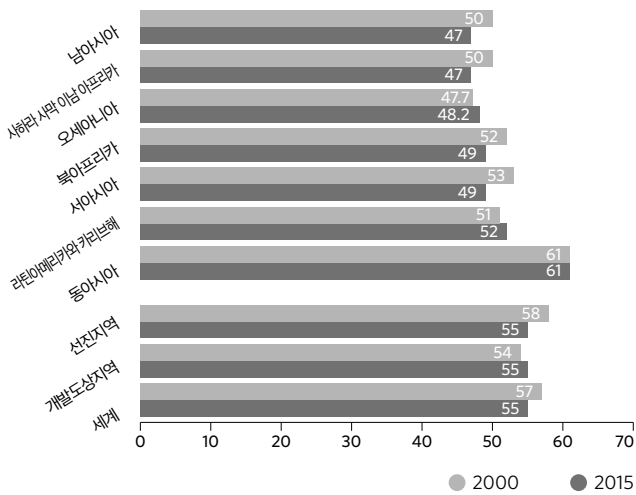
GDP에 대한 노동의 기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였다

공정이 기계화되고 GDP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노동 비율은 지난 15년 사이에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 기간 동안, GDP 대비 노동 비율은 오세아니아 및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만 증가하였다(2015년에 각각 48%, 52%). 동아시아는 GDP 대비 노동 비율이 증가를 멈추어 세계 최고치였던 61.4%를 계속 유지하였다. 선진지역의 경우 GDP 대비 노동 비율이 2000년 거의 58%에서 2015년에 55%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에, 개발도상지역은 54%에서 55%로 약간 증가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임금 정체는 이러한 결과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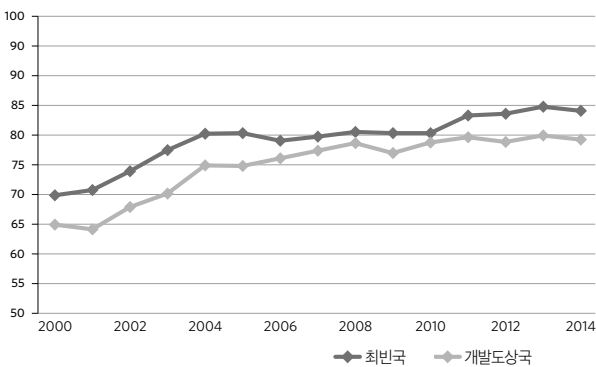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면세로 들어오는 수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비록 그 변화 속도가 개발도상국에서 더 빠르긴 하지만,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비율은 2000년부터 2014까지 증가하였고 각각 84%와 79%에 도달했다. 면세 혜택을 받는 최빈국의 비교 우위는 제품군에 따라 달랐다: 최빈국의 거의 모든 농산물(98%)은 선진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고 개발도상국은 제품의 74%를 면세 받았다. 최빈국의 상대 우위는 심지어 섬유와 의류에 대해서도 더 컸다: 최빈국의 경우 두 제품군 모두의 비율은 약 70%였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율이 섬유는 41%, 의류는 34%였다.

임금과 사회적 보호 이전으로 구성된 GDP(PPP) 대비 노동 비율(%), 2000년과 2015년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면세로 들어오는 수입 (무기와 석유 제외)의 비율(%), 200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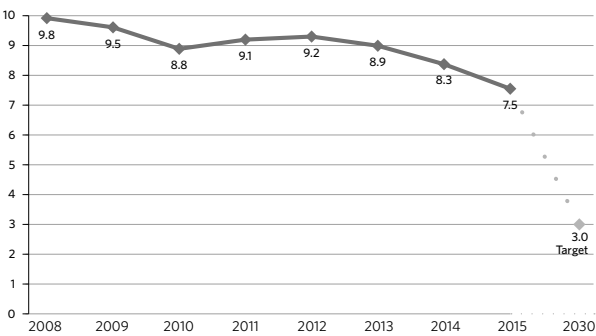


국제 송금 비용은 감소하였다

이주민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그들은 노동과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통해 본국과 도착지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개발도상국으로 보낸 총 송금은 2015년에 미화 4316억 달러로 약간 증가하였지만(2014년보다 0.4% 증가), 국제 송금 비용은 높게 유지되었다.

국제 송금 비용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평균적으로 아직도 송금 금액의 7.5%로, 목표율 3%의 2배가 넘었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면세로 들어오는 수입 (무기와 석유 제외)의 비율(%), 2000-2014년



11. 지속가능 도시 및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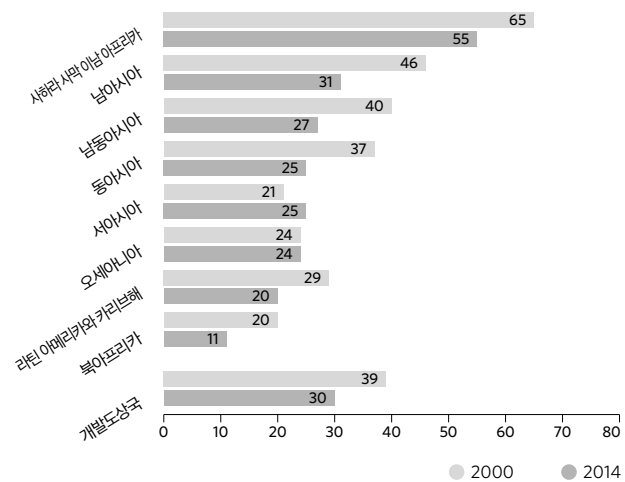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2030년까지, 10명 중 6명이 도시 거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기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상품, 서비스 및 교통의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규모의 경제를 제공한다. 견실하고 위험 정보에 근거한 기획과 관리로, 도시는 혁신과 성장의 인큐베이터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도시 인구의 비율(%), 2000년과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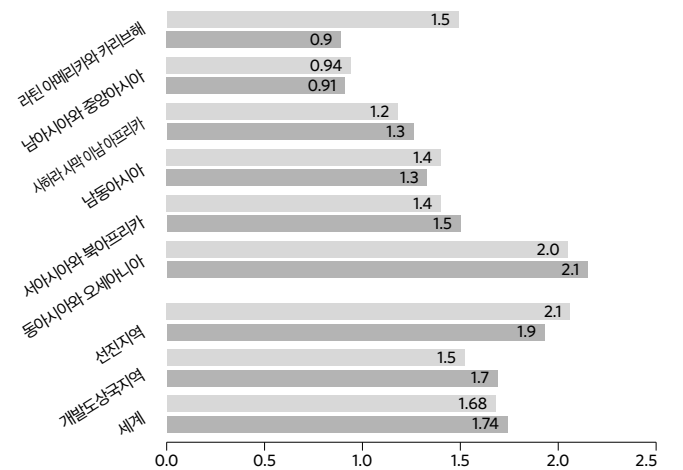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도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아직도 빈민가에서 살고 있다

2014년, 개발도상국 도시 인구의 30%는 빈민가로 분류되는 환경에서 살았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빈민가에 사는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55%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도시 거주자의 백분율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2014년 전 세계 8억 8000만 명 이상이 아직도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다. 도시는 더 큰 기회와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연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 스프롤은 전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발견된다

전 세계의 많은 급성장 도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인구가 행정상의 경계를 넘어 멀리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시 스프롤은 많은 지역에서 발견된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소비 대 인구성장의 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선진지역이 두 번째로 높았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그리고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만 1.0 미만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의 도시들이 인구밀도가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비의 수치가 낮은 것은 초만원인 빈민가의 성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 거주자의 형편이 좋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계획되지 않은 도시 스프롤은 증가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유해한 오염과 관련이 있고 흔히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이 모든 것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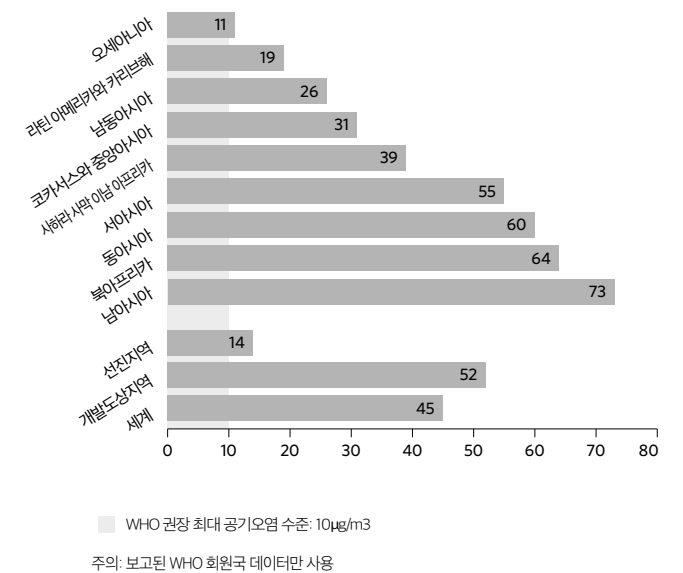
194개 도시의 총화 표본에 기초한 토지소비 대 인구성장률의 평균 비, 1990-2000년과 2000-2015년



세계 도처의 도시들은 공기오염 수준이 위험할 정도로 높다

공기오염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환경 위험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대기(야외 공기) 오염은 2012년에 370만 명의 조기사망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약 절반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안전기준보다 적어도 2.5배 높은 수준의 공기오염에 노출되었다. WHO가 정한 최대 수준인 10µg/m³ 이하 입자물질의 연평균 농도를 갖는 지역은 없었다.

도시지역의 직경 2.5µ 또는 그 이하(PM2.5) 입자물질의 연평균 농도수준(µg/m3),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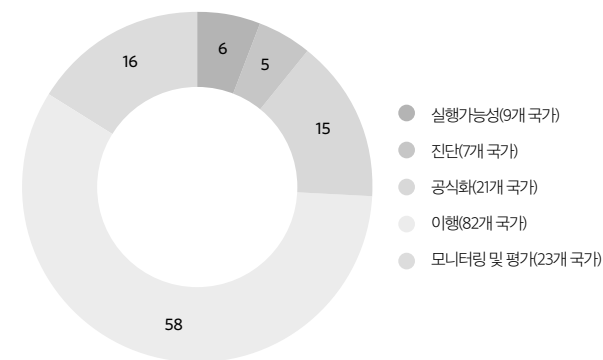


국가들의 거의 4분의 3이 국가수준 도시 정책을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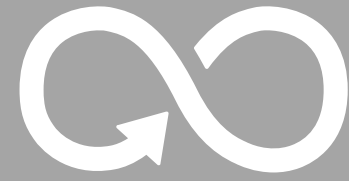
도시지역의 특정 요구와 특징을 고려한 국가 정책 및 지역개발 계획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다.

2015년 기준으로, 142개 국가가 국가 수준의 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82개국 이미 이행하고 있었고 23개국은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에 도달하였다. 도시 정책의 대부분은 SDGs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며 지속가능성 의제의 주요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다. 도시 정책은 국가 정책을 지방 활동에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행 단계별로 국가 도시 정책을 이행하는 국가의 비율(%) 및 수, 2015년



12.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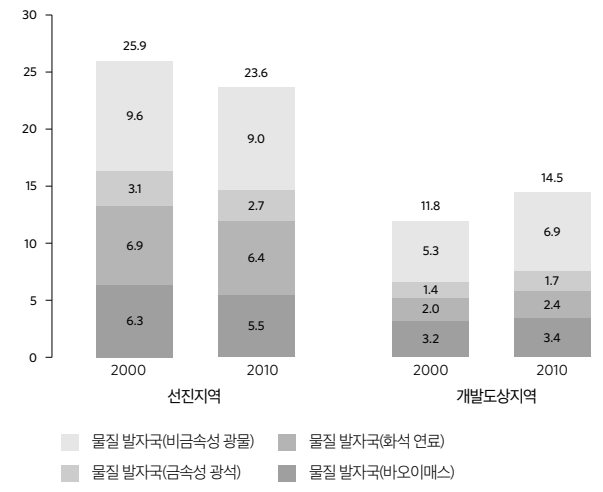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자연자원과 독성물질 그리고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최소화가 요구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12는 환경에 유독한 물질 관리에 관한 특정 정책과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장려한다.



원료 종류별 GDP당 물질 발자국(2005 고정가치 US 달러로 GDP 단위당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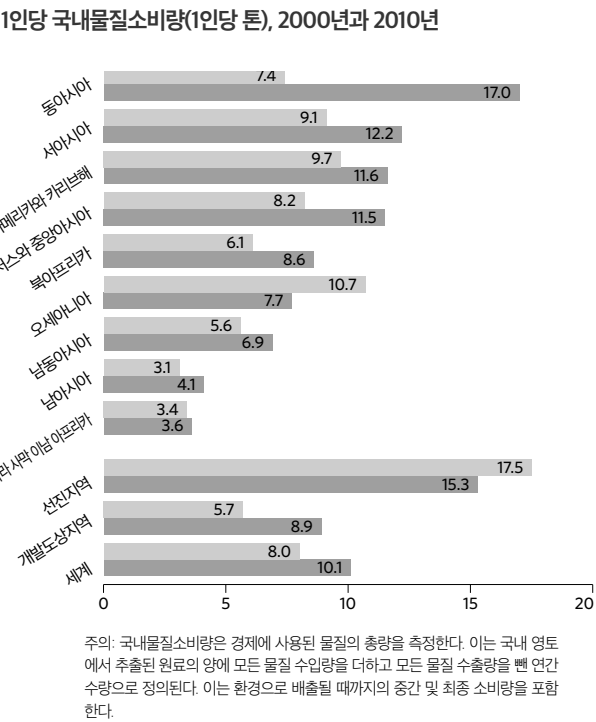
개발도상지역이 산업화됨에 따라, 원료 사용이 증가하였다

물질 발자국은 전 세계에서 추출되어 특정 국가에서 사용된 화석 연료와 기타 원료에 대한 회계이다. 이는 한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 물질의 양을 반영하며, 생활 물질 표준의 지표 또는 경제 자본화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선진지역의 GDP당 물질 발자국은 산업 과정의 효율성 증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GDP 단위당 23.6kg으로, 아직도 GDP 단위당 14.5kg인 개발도상지역의 물질 발자국보다 상당히 더 높았다.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됨에 따라, 이 지역 전체의 물질 발자국은 이 10년의 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비금속성 광물은 GDP 단위당 5.3kg에서 6.9kg으로 늘어나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이 성분은 개발도상지역 물질 발자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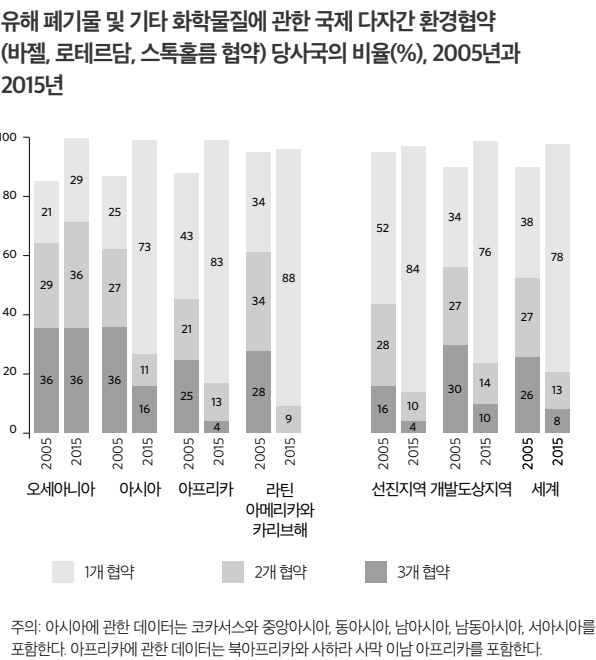
자연자원의 1인당 소비량은 선진지역에서 감소하였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지역에서는 증가하였다

각 국가의 물질 흐름 또는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측정치는 경제 과정에서 사용된 자연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국내물질소비량이다. 선진지역의 국내물질소비량은 2000년 1인당 17.5톤에서 2010년 1인당 15.3톤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0년 1인당 8.9톤을 기록한 개발도상지역보다 72% 더 높았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10.7톤에서 7.7톤으로 감소된 오세아니아를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개발도상지역의 국내물질소비량은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급격한 원료 소비량 증가는 주로 급속한 산업화에 기인한다.



거의 모든 국가는 적어도 하나의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 물질에 관한 국제환경협약 당사국이다

유해 폐기물, 화학물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적으로 건강한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가 바젤,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수립되었다. 6개 회원국을 제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협약 중 적어도 하나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의 당사국 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특히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현재, 바젤 협약에 183개 당사국, 스톡홀름 협약에 180 개 당사국, 로테르담 협약에 155개 당사국이 있다(세 협약 모두의 당사국인 유엔 포함). 이 국제협약 당사국이 되면 관련 통신을 전송하는 연락처 지명을 포함하여 특수한 의무를 갖는다. 1개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바젤 협약 당사국과 대다수의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 당사자는 그러한 연락처를 지명하였다. 그러나, 바젤 및 스톡홀름 협약 하의 의무사항인 국가 진척상황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의 수는 2009-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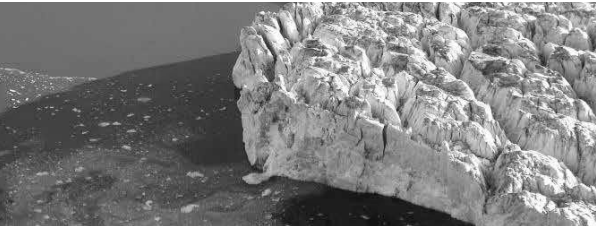


13. 기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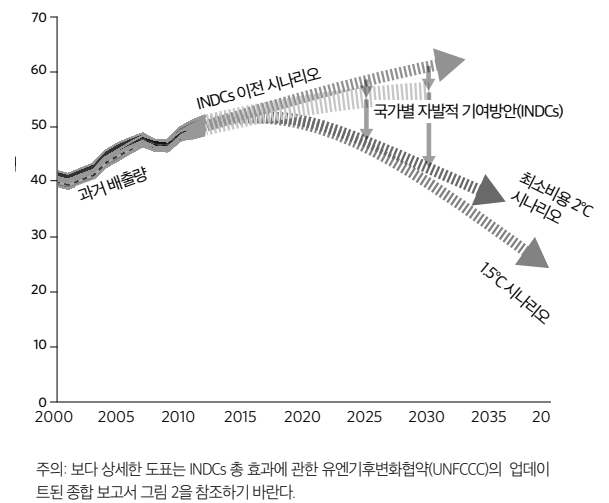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시행

기후변화는 발전의 가장 큰 단일 위협요소이고, 그 광범위하고 전례 없는 영향은 최빈층과 취약계층에 불균형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안긴다. 목표 13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기후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한다.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INDCs) 이행에 따른 및 기타 시나리오 하의 2025년과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수준 비교(GtCO2상당/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야심찬 기후 조치의 초대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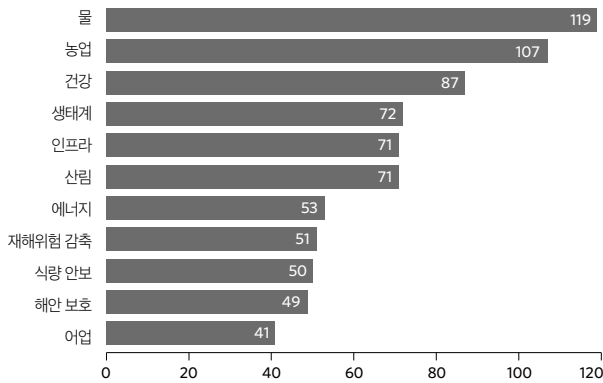
탄소 배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1-2015년 기간은 기록상 가장 뜨거웠고, 해빙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로 도달하였으며, 해수면 온도 상승에 기인한 산호 탈색이 세계의 산호초를 위협하였다. 2016년 4월, 175개 회원국이 서명한 역사적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투자를 가속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 협정의 중심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범세계적 대응을 강화하고 1.5°C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이다.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국가별 자발적 기여방안(INDCs)”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파리협정의 진척상황은 세계 실적조사를 통해 5년마다 추적될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70% 이상이 적응 관련사항을 자국의 기후 조치에 포함시켰다

2016년 4월 4일자로, 유엔기후변화협정(UNFCCC) 197개 당사국 중 189개국이 161 INDCs를 제출하였다(유럽위원회가 하나의 공동 INDC를 제출). 이 가운데, 137개국은 적응 관련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부 당사국은 국가발전, 지속가능성 및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알기 때문에 적응이 주요 우선순위였다고 강조하였다. 당사국들은 INDCs의 적응 관련사항에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 대해 언급하였다. 상위 세 우선순위는 물, 농업, 건강이었으며, 당사국들이 확인한 상위 기후 위험요소인 홍수, 가뭄, 고온과 일치한다.

많은 당사국들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위험요소로서 벡터매개 또는 수인성 질병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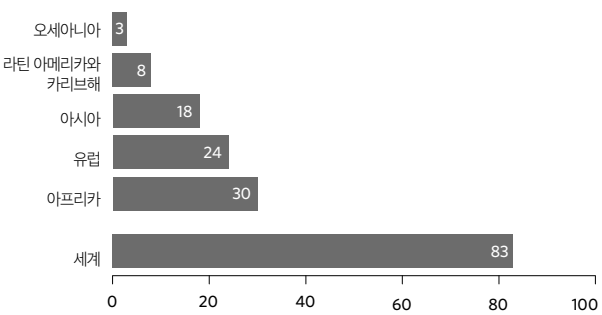
INDCs의 적응 관련사항에 전달된 우선순위로써 영역이나 부문을 언급한 당사국의 수



전 세계 83개국이 재해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갖추었다.

자연재해의 증가로, 국가들은 국가 및 지방 재해위험 감축 전략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95개 국가가 재해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법안 및/또는 규제 포함에 대한 자기평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들 중에, 83개 국가가 그러한 조항을 갖추었다. 근본적인 재해 위험요소 감축을 목표로, 국가들은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환경 영향 평가, 통합 계획,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 환경 민감지역 보호법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러 메커니즘을 고찰하고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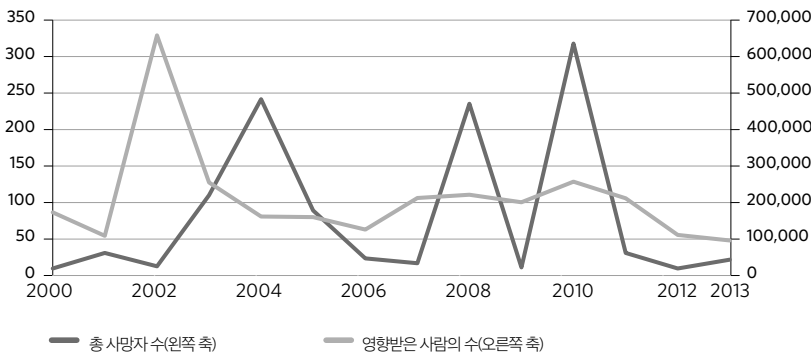
INDCs의 적응 관련사항에 전달된 우선순위로써 영역이나 부문을 언급한 당사국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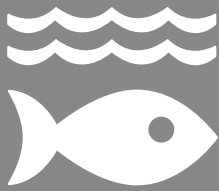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았다

재해는, 이 중 많은 부분이 기후변화에 의해 심화되었고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진전을 방해한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는 해마다 크게 다르지만,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평균 83,000명이 사망하였고 2억 11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총 사망자 수와 영향받은 사람의 수(1000명), 2000-2013년



14. 해양 생태계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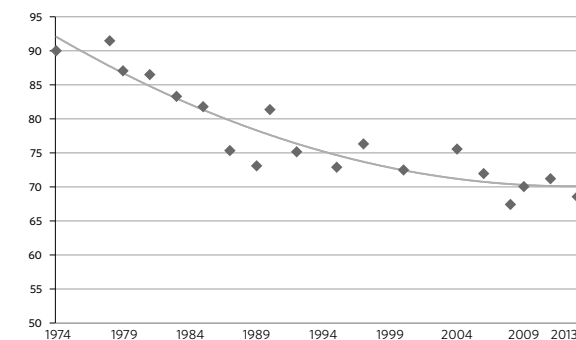
해양, 바다 및 기타 해양자원은 인간의 웰빙과 전 세계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은, 특히 군소도서개발국에게, 2030 의제 달성의 중심이다.

해양자원은 2010년 세계 인구의 37%를 차지하는 해안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해양은 생계, 어업 생활과 혜택, 관광 및 기타 부문을 제공한다. 또한 대기로부터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바다와 해안지역은 환경 악화, 남획, 기후 변화 및 오염에 극치 취약하다.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계 내의 어족자원 비율(%), 1974-2013년



지속가능한 어족자원의 감소 추세는 느려졌고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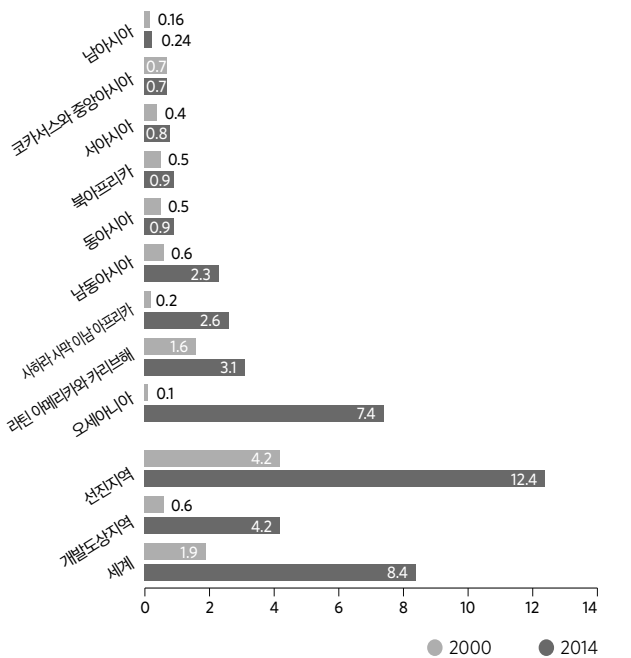
어업은 세계 식량 안보, 생계 및 경제에 상당한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업은 어류 서식지를 손상시키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생태계 기능을 해칠 수 있으며 지속가능 사회 및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건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 지속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풍부 수준 또는 그 이상에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계 내에서 어족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해안 및 해양지역 보호 범위는 2000년 이후로 4배 증가하였다

생물이 다양한 해양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014년, 국가 관할권(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 하에 있는 해양 환경의 8.4%와 국가 관할권 밖에 있는 해양 환경의 0.25%가 보호를 받았다. 선진지역과 개발도상지역 모두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지역 보호가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 증가의 대부분은 몇몇 국가 주변과 생물다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은 지역의 대규모 보호구역 수립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해양 보호구역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고 지역 간 차이가 상당히 크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보호받는 해양 및 해안지역의 비율이 2000년 0.1%에서 2014년 7.4%로 증가하였다; 개발도상지역 가운데 최대 퍼센트 해양 서식지와 종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생물다양성의 세계적 지속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을 보호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보호구역에 완전히 포함된 주요 해양 생물다양성 지역의 비율은 15%에서 1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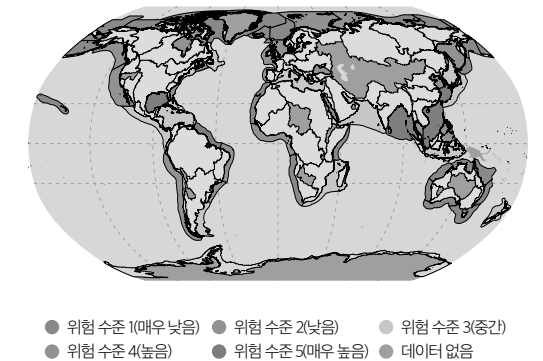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1인당 톤), 2000년과 2010년



7억 8000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해양 생태계가 매우 높은 해양 부영양화 위험에 처해 있다.

해안지역은 오염에 특히 취약하다. 강 유역, 해양 생태계 및 대기는 모두 수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오염 영향은 흔히 근원지와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진다. 많은 해안 지역사회에서, 오염과 부영양화(흔히 육지로부터의 유출 때문에 물에 과도한 영양분이 집적되어, 식물과 조류의 과다 증식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동물의 죽음을 야기함)는 해로운 변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2016년 월경성 물평가 프로그램(TWAP) 세계비교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해안 부영양화의 위험에 처한 5대 해양 생태계는 벵골만(Bay of Bengal), 동중국해(East China Sea), 멕시코만(Gulf of Mexico), 북브라질 대륙붕(North Brazil Shelf),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이다; 이 지역들은 2010년 총 7억 8100만 명의 해안 인구를 위해 생태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대규모 해양 생태계의 영양분 위험 지표 범주



주요: 이 세계 지도는 단지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나 영토의 법적 상태에 관한 것이든 혹은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관한 것이든 어떠한 의견 표현도 암시하지 않는다.

15. 육상 생태계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사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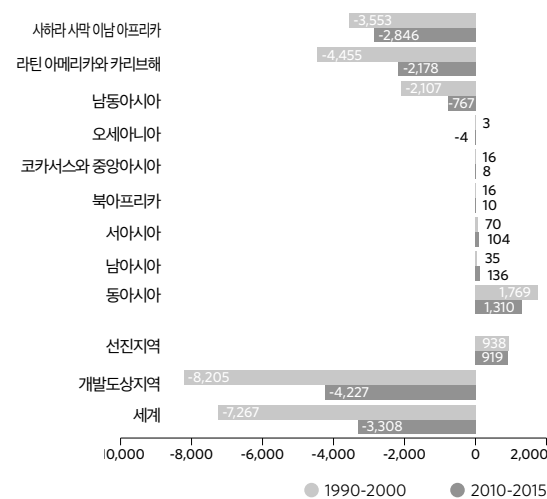
다양한 형태의 육상 생물 보존은 육지 및 다른 생태계를 보호 및 복구하고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표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 15는 특히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토지와 자연 서식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사막화에 성공적으로 대처,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에 중점을 둔다. 이 모든 노력은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생계를 포함하여 육지 기반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산림 손실은 1990년대 이후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지만, 산림 손실은 계속된다

1990-2015년 사이에, 세계 산림지역은 세계 총 육지면적의 31.7%에서 30.7%로 감소하였다. 이 손실은 주로 산림을 농업과 인프라 개발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한편, 식목, 경치 복원 또는 자연적 확대를 통해 다른 지역이 산림으로 되돌아갔다. 진행 중인 이러한 과정과 삼림파괴를 늦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세계 산림지역 손실은 1990년대 연간 730만 헥타르에서 2010-2015년 연간 330만 헥타르로 감소하였다. 지역 전반의 진척상황은 혼합되어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에서 산림지역 손실이 가장 컸고, 반면에 동아시아는 산림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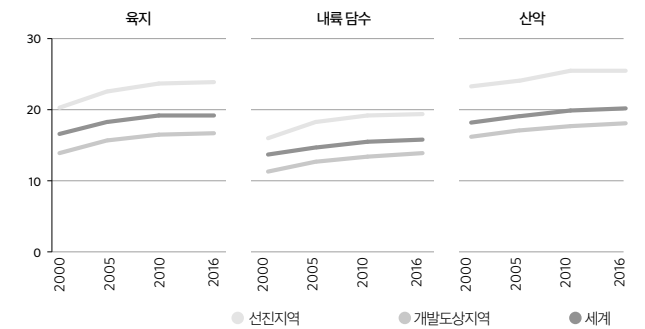
연간 산림지역 순변화(1000헥타르), 1990-2000년과 2010-2015년



점점 더 많은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이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2014년, 세계 육지 및 담수 환경의 15.2%가 장기적 자연보존 달성을 위해 인정, 전념, 및 관리되는 보호구역에 포함되었다. 그 효율성에 대한 기본 측정은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KBAs) 같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유지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정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육지, 내륙 담수 및 산악 KBAs의 백분율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6.5%에서 19.3%로, 13.8%에서 16.6%로, 18.1%에서 20.1%로 증가하였다. 세 생태계 모두에서 세계 KBAs 보호는 유전, 종 및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결국,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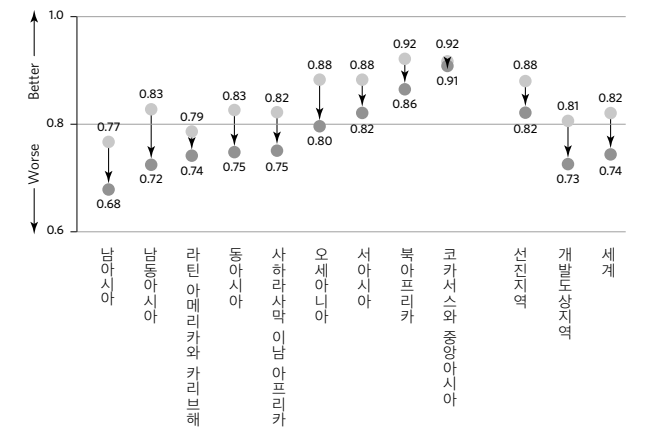
생태계 유형별(육지, 내륙 담수, 산악) 보호구역에 완전히 포함된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의 비율(%), 2000-2016년



모든 지역에서 종의 생존이 점점 더 위협당하고 있다.

2015년 기준, 23,000종 이상의 식물, 균류 및 동물이 높은 멸종 가능성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에 따르면, 양서류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야생 질병 중 하나인 향아리 곰팡이병(chytrid fungal disease) 때문이다. 조류와 포유류의 멸종 위험은 주로 저지대 산림 보존으로 인해 남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평균적으로는 산호 종의 멸종 위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철 종(솔방울을 생산하는 식물의 고대 분류군)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종 분류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 손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척추동물 종의 멸종 위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보존 활동의 결과로서 5개 군소도서 개발국(쿡제도(Cook Islands), 피지(Fiji), 모리셔스(Mauritius), 세이셸(Seychelles), 통가(Tonga))에서 반전되었다.

종 생존의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 1993-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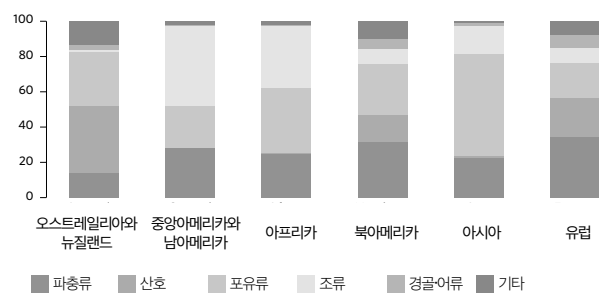


야생생물의 불법 거래는 멸종 지역 변화와 함께 세계적 현상이다

국제 보호 하의 종의 목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야생생물의 밀렵과 밀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인해 보존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 1999년 이후로, 적어도 7,000종의 동물과 식물이 120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거래에서 발견되었다.

야생생물 밀매는 그곳이 근원지이든, 이동 장소이든, 목적지이든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조류 밀매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포유류 밀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파충류 밀매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산호 밀매는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분류 계층별 압수 사건의 비율(%), 1999-2015년



16. 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의 중심은 인권 존중, 법의 지배 및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에 기반을 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의 필요성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수는 증가하였고 평화와 안보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오래 지속된 폭력과 무력 분쟁에 직면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약한 제도와 정의, 정보 및 기타 기본 자유에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국가 및 국제 제도를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오늘날, 세계의 절반 이상이 인권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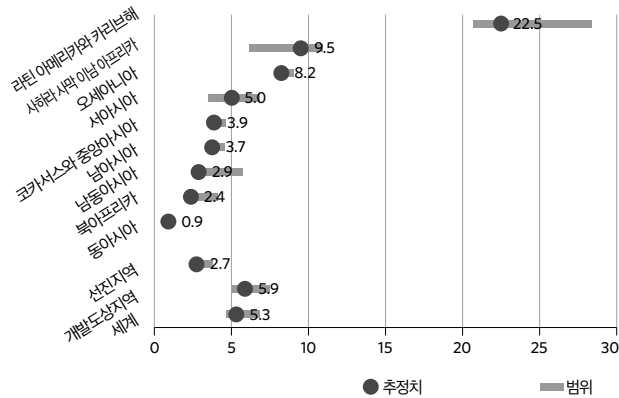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아동 및 기타 취약집단 폭력에 대한 데이터 부족, 정의에의 접근성 및 정보에의 공공 접근성을 포함하여, 중요한 도전과제들이 남아있다.



고의적 살인율은 지방마다 매우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100,000명당 고의적 살인의 희생자 수는 2014년에 4.6~6.8 사이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지역의 고의적 살인율은 선진지역의 2배였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는 세계 평균의 4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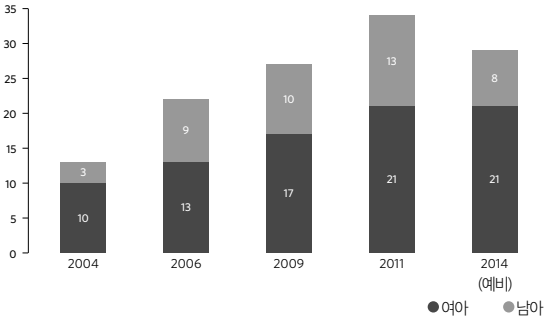
인구 100,000명당 고의적 살인의 희생자 수, 2014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아동이, 그들 중 대다수가 여아, 전 세계 인신매매 희생자의 거의 30%를 차지한다

인신매매와 성폭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동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희생자 가운데 여아와 남아의 비율은 2011년에 당국에 의해 발견된 사례의 각각 21%와 13%로 최고치에 달했다. 인신매매 희생자인 여아는 흔히 성착취의 대상이 되며, 결혼 및/또는 가정 노역을 강요 받는다. 비교 데이터의 불충분과 부족은 아동 성폭력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완강한 장애물로 남아있다. 31개 중·저소득 국가의 조사 데이터는 18세 이전에 처음 성폭력을 경험한 18-29세 여성 비율이 16%에 달할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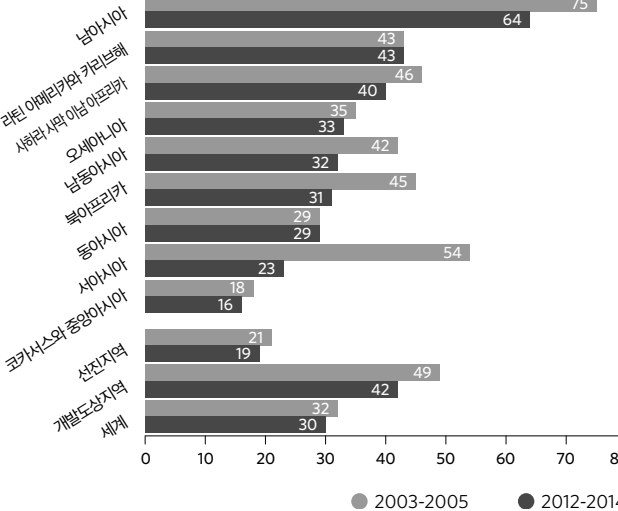
전 세계 인신매매 희생자 가운데 아동의 비율(%), 2004-2014년



전 세계 수감자의 30%는, 이들 중 3분의 2는 개발도상국에서,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03-2005년 총 수감자의 32%에서 2012-2014년 30%로 지난 10년 동안 약간만 감소하였다. 개발도상지역의 수치가 평균적으로 선진지역 수치보다 더 높았다.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아시아로, 2012-2014년 수감자의 약 3분의 2가 형을 선고 받지 못했다. 백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는, 형을 선고 받지 않은 채 구금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이 43%로,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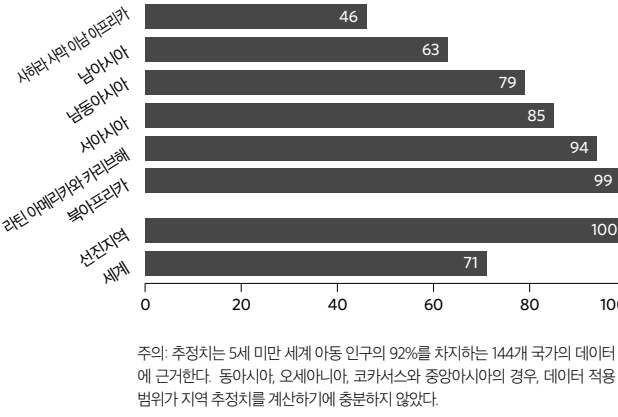
인구 100,000명당 고의적 살인의 희생자 수, 2014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출생등록은 법 앞에 인정을 받는 첫 단계이지만, 아동 4명 중 1명은 이 기본권이 거부된다.

아동 출생등록은 법 앞에 인정을 받고 개인의 권리와 정의 및 사회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호하는 첫 단계이다. 그러나,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 이상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그 비율이 절반(54%)을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에 사는 아동은 농촌지역에 사는 아동보다 등록될 가능성이 약 1.5배 더 높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생등록 비율은 상위 20% 부유층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5세 미만 아동의 추정 비율(%), 201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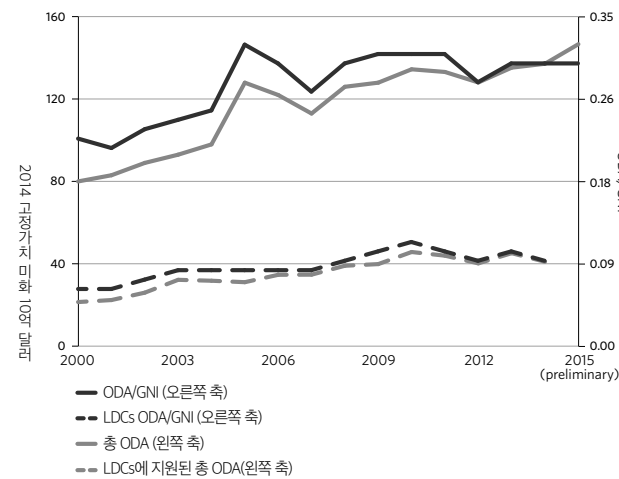
17.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목표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2030 의제의 야심찬 목표 달성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연합체계 및 기타 활동가를 한데 모아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는 활성화되고 강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필수자금 조달을 포함한 이행 목표의 달성은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의 전면 이행처럼 2030 의제를 실현시키는 열쇠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에 대한 지원 증가는 모두를 위한 공평한 발전의 기본이 된다.

기부자 국민총소득 대비 OECD-DAC 국가들의 순공적개발원조 비율
(2014 고정가치 미화 10억 달러) (%), 2000-2015년



공적개발원조(ODA)는 계속 증가하였지만, 최빈국에 대한 원조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총 미화 1316억 달러였다. 인플레이션과 2015년 달러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2014년보다 6.9% 높았고 지금까지의 기록 중에 최고 수준이었다.

국민총소득(GNI)의 비율로 나타낸 DAC 국가들의 총 ODA는 2014년과 같은 수준인 0.30%였다.

증가의 대부분은 더 높아진 난민 비용 지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ODA는 여전히 1.7% 증가하였다. 2015년, 7개 국가가 ODA 유엔 목표인 GNI의 0.7%를 달성하였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영국.

채무상환 부담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대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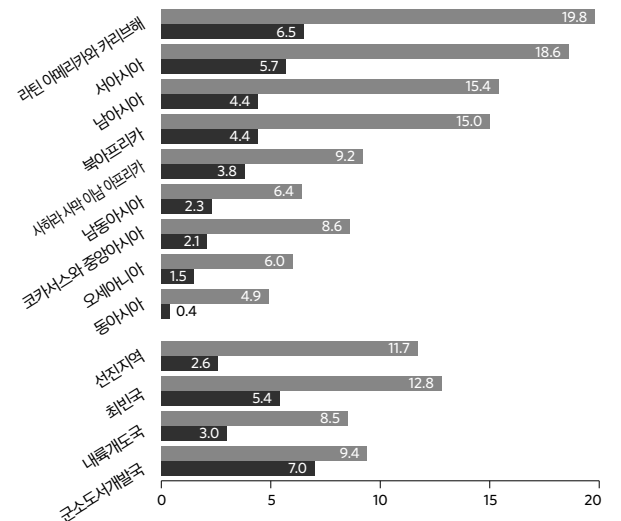
2012년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외채상환 대 수출 비율은 6% 이하로, 이는 2000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수출 소득의 증가, 강화된 부채 관리, 매력적인 국제시장의 차용 조건이 이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렇지만 최빈국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여 요소는 전면적인 채무 구제였다: 과다채무빈곤국(HIPC) 자격이 있는 39개 국가 중 36개국이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였고 공식 채권자로부터 미화 약 1360억 달러의 채무 구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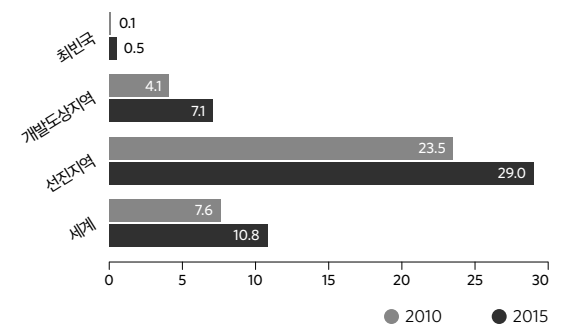
최빈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고정식 광대역 접속은 인구의 상당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용이 들고 사용이 불가능하며, 고속 고용량 인터넷 서비스 접근에 있어 매우 큰 디지털 양극화를 보인다. 2015년, 고정식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선진지역에서는 29%에 도달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은 7.1%, 최빈국은 0.5%에 불과했다. 게다가, 선진지역에서는 초당 10메가비트 이상의 속도가 보통이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지역에서의 접속은 초당 2메가비트를 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접근이 상당히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2015년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약 80%가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것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3분의 1, 최빈국에서는 10분의 1만이 가능했다. 또한 중요한 성별 디지털 양극화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터넷 사용자 보급률은 남성보다 약 11% 낮았다.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출 대비 채무상환비율(%), 2000년과 2012년



거주자 100명당 고정식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2010년과 2015년



개발도상국의 세계 수출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최빈국 수출 비율은 여전히 적다

전체 상품 수출에서 최빈국의 상품 수출 비율은 2000-2014년 동안 거의 2배가 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1.1%로 여전히 전체 수출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개발도상지역의 경우 더 일반적이어서, 상품 수출이 거의 40% 증가하였고 2014년 전체 수출의 거의 45%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지역의 서비스 수출은 뒤쳐져서 총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수출증가 동인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높은 수율을 반영하는 연료, 광석 및 금속의 엄청난 가격상승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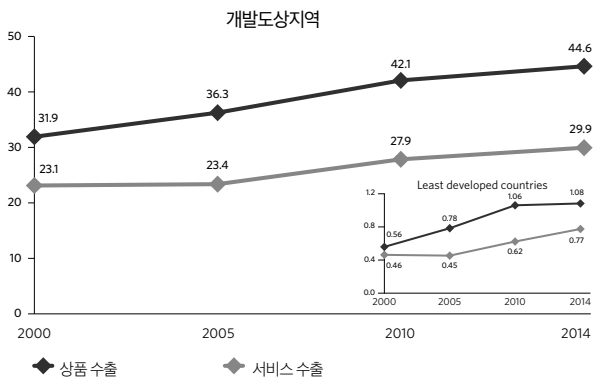
최빈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감소하였지만, 의류와 섬유 관세는 여전히 높다

최빈국에서 선진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는 2005년까지 모든 제품군에 대해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 후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는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 1% 미만 이 되었다. 일부 대규모 아시아 수출업자가 특혜 관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빈국의 의류 및 섬유 수출에 대한 관세율은 여전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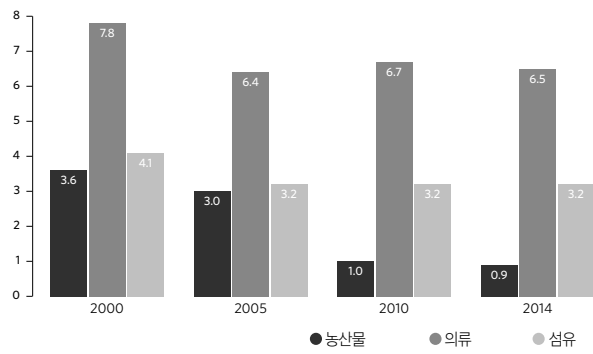
국가 통계 계획은 많은 국가에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국가 통계 계획은 국가의 통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MDG 지표의 필요조건은 더 강력한 국가 통계 계획 및 체계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국가 통계 계획이 있는 국가의 수는 최빈국과 내륙개도국을 포함하여, 2010-2015년 사이에 일부 지역과 국가군에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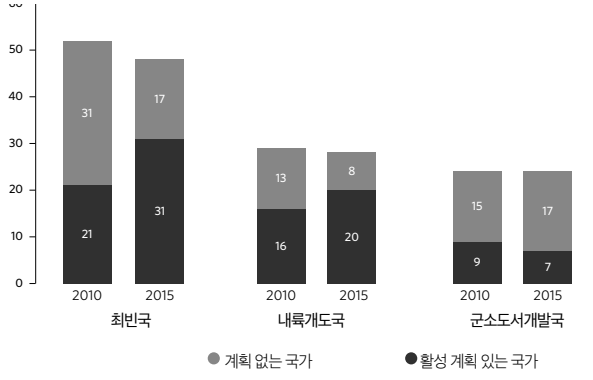
개발도상지역 및 최빈국의 전체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율(%), 2000-2014년



최빈국이 수출한 주요 상품에 대해 선진국이 부과한 평균 관세(%),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국가 통계 계획이 있는 국가의 수, 2010년과 2015년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통계 계획이 없다. 이 기간 동안에 몇몇 기존 계획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통계 계획이 있는 군소 도서개발국 전체 수는 9개국에서 7개국으로 사실상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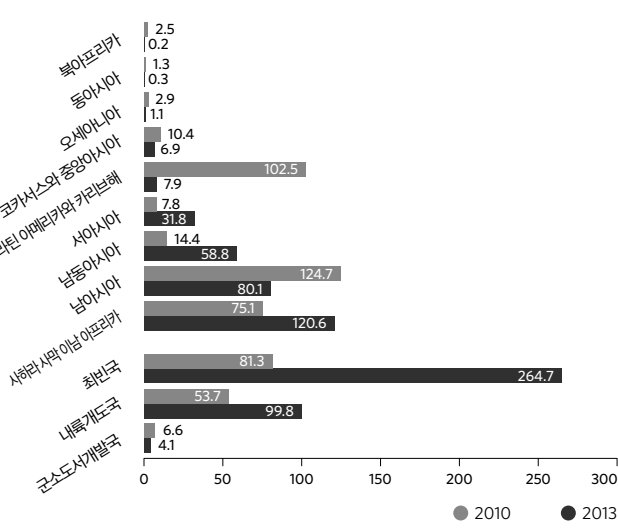
2013년, 최빈국은 통계 역량구축을 목표로 하는 ODA의 80% 이상을 받았다

국가 통계 역량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은 2010년 미화 3억 7900만 달러에 비해 2013년에는 미화 3억 2500만 달러로, 14%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이 기간 동안 3배로 증가해 미화 2억 6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2013년 통계 역량구축을 위한 모든 재정 지원의 82%가 최빈국에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동아시아, 서아시아 및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이 자금지원 우선순위 이동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증거기반 정책 결정 및 발전에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할애되는 ODA 비율은 2010-2013년 사이에 약 0.3%에서 맴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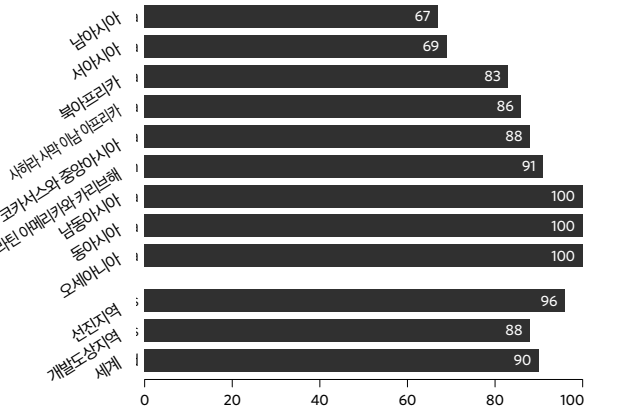
아직 모든 국가에서 인구 및 주택조사가 실시되지는 않는다

인구 및 주택조사는 개발정책을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분류 데이터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선진지역 국가의 96%가 인구 및 주택조사를 적어도 한 번 실시하였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의 비율은 88%였고,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는 각각 67%, 69%로 감소하였다.

개발도상지역의 통계 역량구축 활동에 할애된 총 공정개발원조(ODA) (미화 100만 달러), 2010년과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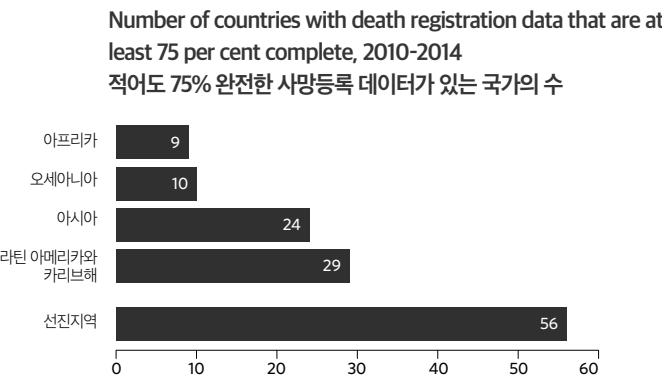
2006-2015년 동안 인구 및 주택조사를 적어도 한 번 실시한 국가의 비율(%)



건강관련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중대한 데이터 공급원인
사망등록은 여전히 보편적이지 못하다

2010-2014년 동안, 사망등록 데이터는 230개 국가 및 영토 가운데 145개 국가에 대해 입수되었다.

이 가운데, 128개 국가는 적어도 75% 완전한 데이터가 있었다. 사망등록 적용범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가장 낮았다. 사망 정보, 특히 작성 시기와 분류 시기는 수많은 기본 건강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는 열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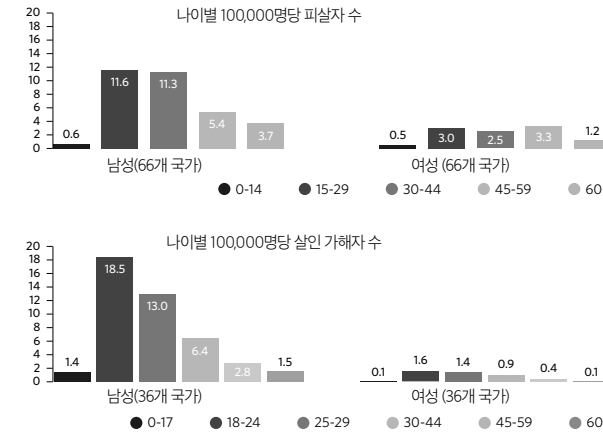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실현에 헌신하면서, 회원국들은 개인의 존엄이 기본이며 의제 목표와 세부목표가 모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문을 위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회원국들은 가장 뒤처진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헌신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적 인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2030 의제에 명시된 아동, 청소년, 장애인, HIV 보균자, 노인, 토착민, 난민, 국내 실향민, 이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집단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분류 데이터는 매우 적다. 예를 들어, 몇몇 현행 지표는 특정 상태의 이주민, 난민, 노인, 장애인, 소수 민족 및 토착민에 대해 조명할 수 있다. 현재 입수가 가능한 제한된 데이터로부터도, 발전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다음의 예는 나이, 성별, 소득 수준 및 거주지별로 분류된 데이터가 어떻게 중요한 차이를 강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별 및 나이별 100,000명당 피살자 수와 가해자 수, 2014*



*데이터는 2014년 또는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를 나타낸다.

청년들은 피살자와 의심되는 가해자가 될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

폭력의 직접 및 간접 희생자 중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나치게 많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살인의 43%를 차지하는 연간 약 200,000건의 살인이 10-29세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다. 청년은 피살자가 될 가장 위험성이 가장 높고, 의심되는 살인 가해자가 될 비율이 단연코 가장 높다. 아동은 인신매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며, 여러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희생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이룬다.

성별 및 나이별 10모든 개발도상지역에서, 최빈층 여성은 출산하는 동안 숙련된 출산요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하위 20% 최빈층 여성 출산의 3분의 1 미만이 숙련된 의료인이 참석하고, 이에 비해 상위 20% 최부유층의 경우 참석 비율이 80%를 넘는다 (89% 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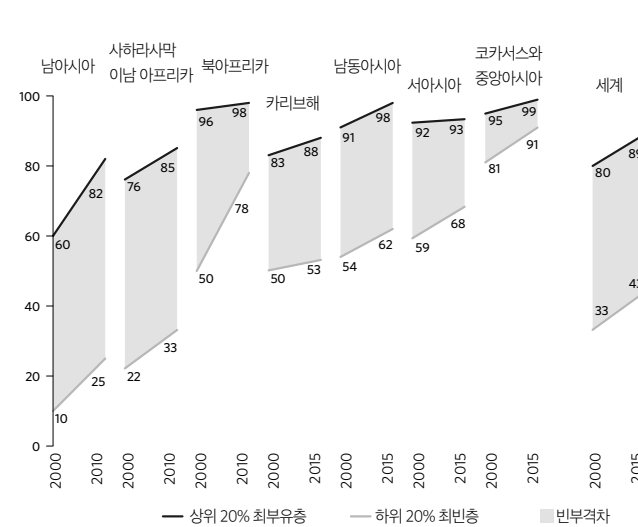
심각한 소득불평등 역시 지속가능발전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2008-2012년 63개 개발도상국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최빈층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가능성은 최부유층 아동보다 거의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5-2014년 조사 데이터가 있는 87개 국가의 분석 결과는 최빈층 아동이 성장부진을 겪을 가능성은 최부유층 또래에 비해 2배 이상 높음을 제시한다.

농촌지역 주민은 많은 건강관련 서비스에 관한 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촌 및 외딴지역은 의료체계가 미약한 경향이 있으며, 도시 중심지보다 의료서비스 보급률이 더 낮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출산의 90% 이상이 숙련된 의료인이 참석하는 반면에, 농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겨우 72%이다. 가족계획에 대한 수요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도시 인구의 70% 이상이 현대식 가족계획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보고하였고 농촌지역은 60%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식수원과 위생시설은 농촌지역보다

젊은이들은 다른 큰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다. 2015년, 세계 청년 실업률(15-24세 기준)은 성인 실업률(4.6%)보다 3배 이상 높은 15%였다.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각각 46%와 31%에 달했다.

지역별 하위 20% 최빈층과 상위 20% 최부유층에서 숙련된 의료인이 참석한 출산의 비율(%), 2000년, 2010년 또는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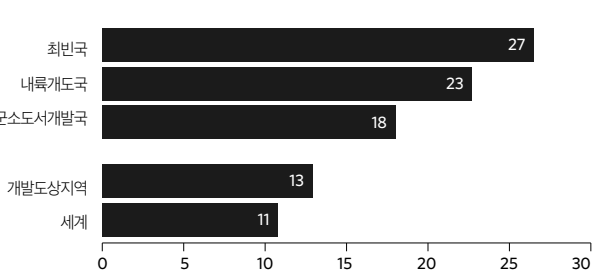


도시에 더 많이 보급되었다. 이 차이는 수돗물 고려할 때 훨씬 더 확연하다: 도시 거주민의 79%가 가정이나 구내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농촌에서는 인구의 3분의 1만이 수돗물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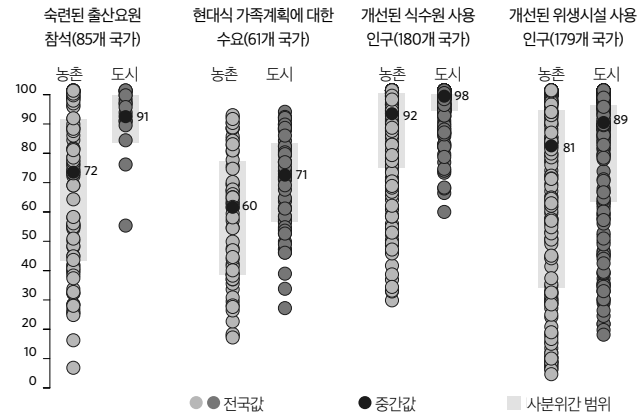
최빈국 사람들은 개발도상지역 전체에 비해 영양결핍을 겪을 가능성이 2배 더 높다

지속적인 불평등은 특수 상황에 있는 국가군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영양결핍 유병률은 개발도상지역 전체보다 최빈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에서 현저히 더 높다.

조사대상 국가군의 영양결핍 유병률(%), 2014-2016년



도시 및 농촌지역별 숙련된 출산요원 참석, 현대식 가족계획에 대한 수요, 개선된 식수원 사용 인구,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2015*



독자에게 전하는 짧은 글

>> SDGs 후속조치 및 검토를 위한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

본 보고서에 있는 정보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SDG 프레임워크 지표에 대한 최신의 가용 데이터에 기반한다. 글로벌 지표 프레임워크¹⁾는 SDGs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에 의해 개발되었고, 2016년 3월 제47차 유엔통계위원회(UNSC)에서 실질적인 출발점으로서 합의되었다. 일련의 이 지표는 세계 수준에서 진척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가 동등하게 중요하고 적절한 지표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보고서의 지표 선택은 중요성에 기반한 세부목표의 선택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본 보고서의 지역 및 하위지역의 구성은 유엔(UN) 지리학적 구분 그리고 유의미한 분석 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도에서, 국가군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부 수정사항에 기초한다.²⁾

>> 본 분석의 데이터 공급원 및 기본사항

본 보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지표의 경우, 수치는 지역 및/또는 하위지역 합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수치는 국가 데이터의 가중 평균이며 기준 모집단을 가중치로 사용한다. 수치는 국제기관이 수집한 국가 데이터로 계산되고, 국가통계체계의 각각의 공문과 전문지식에 근거한다. 국제통계체계에 제공된 국가 데이터는 흔히 국제 비교가능성을 위해 조정되고 부족한 경우 추정된다. 통계위원회가 결정한 바와 같이 그리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 2006/6에 따라, 글로벌 지표 편찬에 필요한 추정치는 국가통계당국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산출되도록 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 수반되는 가용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데이터와 SDG 지표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유엔통계국(UNSD)이 유지관리하고 있고 <http://unstats.un.org/sdgs>에서 입수할 수 있다.

제시된 합계 수치가 진척상황을 추적하는 간편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 내 각 국가의 상황은 지역 평균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모든 지역의 합계 수치를 제시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현실을 모호하게 한다: 국가 경향을 평가하고 발전 정책 이행을 알리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세계 많은 지역에서 부족.

>> 데이터 품질과 가용성 향상

고품질데이터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일반 대중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2030 의제 이행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SDGs 진척상황 추적은 전례 없는 양의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보급 그리고 공식통계체계와 새롭고 혁신적인 데이터 공급원의 통계를 포함하여 하위국가,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의 통계가 필요하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통계체계는 이 점에서 심각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특정 측면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고, 수많은 집단과 개인은 보이지 않으며, 많은 발전 과정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결의한 70/1에서, 회원국들은 강화된 데이터 수집과 역량구축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였고 데이터 격차(그래프 57)를 처리하기 위해 전념하였다.

가능한 경우, 글로벌 모니터링은 국가에서 국제통계체계로의 잘 정립된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얻어진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국가 데이터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국가 통계처 및/또는 기타 국가기관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데이터 격차를 메우고 국제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반면에 국제통계공동체는 국가 통계 역량을 강화하고 보고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 파트너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 및 지역기구와 지역 메커니즘은 이러한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역량구축 노력과 자원 동원을 요구할 것이다. 새로운 데이터 공급원과 데이터 수집 기술 및 여러 다른 데이터 공급원 통합 기술은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학계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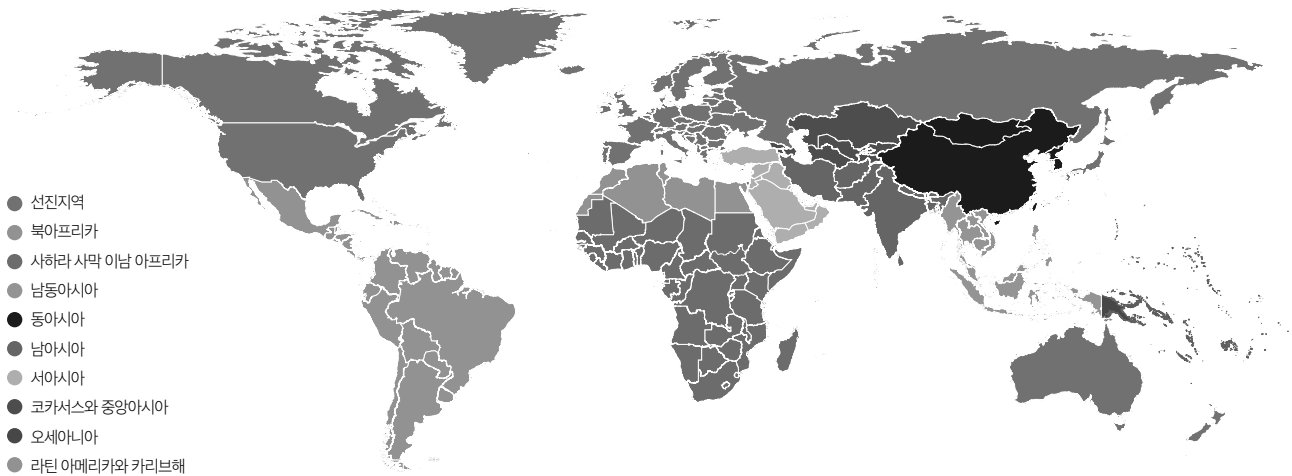
지리공간 정보와 통계 데이터의 통합은 수많은 지표의 생산에 특히 중요할 것이다.

1) 지표의 전체 목록은 IAEG-SDGs 보고서(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부록 IV에 있다. Indicators (E/CN.3/2016/2/Rev.1), <http://unstats.un.org/unsd/statcom/47th-session/documents/2016-2-IAEG-SDGs-Rev1-E.pdf>.

2) 하위지역의 구성은 다음 섹션 “지역 분류”에 나와 있다.

지역 분류

본 보고서는 세계 전체와 여러 국가군의 데이터를 제시한다. 이는 “개발도상지역”과 “선진지역”³⁾으로 분류된다. 개발도상지역은 위의 지도에 나타난 하위지역으로 나뉜다. 이 지역 분류는 유엔 지리학적 구분 그리고 유의미한 분석 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도에서, 국가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부 수정사항에 기초한다. 각 지역과 하위지역에 포함되는 국가 전체 목록은 <http://unstats.un.org/sdgs>에서 입수할 수 있다.



3) UN체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지역”과 “개발도상지역” 지정에 관한 수립된 협약이 없기 때문에, 이 구분은 통계학적 분석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진 제공자

Cover © UNICEF/Yarim Shamsan

Page 12 © The World Bank/Stanislas Fradelizi

Page 14 © UNICEF/Jiro Ose

Page 16 © UNDP Picture This/Jean-Francois Mousseau

Page 18 © UNICEF/Giacomo Pirozzi

Page 20 © UNICEF/Susan Markisz

Page 22 © The World Bank/Allison Kwesell

Page 24 © Tomasz Juszczak

Page 26 © The World Bank/Jonathan Ernst

Page 28 © The World Bank/Gerardo Pesantez

Page 30 © UNICEF/Ash Gilbertson

Page 32 © UNICEF/Olivier Asselin

Page 34 © UNMIT/Martine Perret

Page 38 © The World Bank/Curt Carnemark

Page 40 © Tomasz Juszczak

Page 42 © UNICEF/Jan Grarup

Page 44 © UNICEF/Josh Estey

Page 48 © The World Bank/Simone D. McCourtie

수치 제공자: 36페이지의 수치는 UNFCCC/IPCC 5차 평가 보고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로부터에서 제공되었다.

지도 제공자: 39페이지의 지도는 월경성 물평가 프로그램(TWAP) (GEF/UNEP/IOC-UNESCO)에서 제공되었다.

인포그래픽 아이콘 제공자: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그리고 9페이지의 인포그래픽 아이콘은 NounPro 라이선스 하에 thenounproject.com에서 제공되었다.

디자인: United Nations Graphic Design Unit/DPI

추가 보고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조판 및 교정: Copy Preparation and Proofreading Section/DGACM

편집자: Lois Jensen

Copyright © 2016 United Nations

판권 소유

발행문 복제 또는 복사에 대한 요청은 <http://www.copyright.com>에서 Copyright Clearance Center로 보내야 한다.

부차권을 포함하여 권리와 라이선스에 대한 다른 모든 질문은 아래로 보내야 한다: **United Nations Publications, 300 East 42nd Street,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메일: publications@un.org; **웹사이트:** <http://www.un.org/publications>

경제사회국(DESA)이 발행한 유엔 간행물

ISBN: 978-92-1-101340-5

e-ISBN: 978-92-1-058259-9

Sales No. E.16.I.10

본 보고서는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SA)이 작성한 일련의 데이터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척상황에 대한 연간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총회 결의안 70/1(제83절)에 대응한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의 투입에 기초한다. 본 보고서에 기여한 국제 및 지역기구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많은 통계학자와 전문가들도 기여하였다.

- 군소도서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 유엔에이즈합동계획(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모두를위한지속가능에너지(SUSTAINABLE ENERGY FOR ALL)
- 유엔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유엔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해사해양법분과(UNITED NATIONS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유엔성평등여성역량강화기구/유엔여성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WOMEN)
-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인간주거계획(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유엔국제방재전략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 유엔지뢰제거활동서비스(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 유엔재해경감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유엔법치안보국(UNITED NATIONS OFFICE OF RULE OF LAW AND SECURITY INSTITUTIONS)
- 유엔최빈국내륙개도국군소도서개발국고위대표실(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 유엔사무총장청년사절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 유엔아동폭력방지사무총장특별대표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유엔평화구축지원사무소(UNITED NATIONS PEACEBUILDING SUPPORT OFFICE)
-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 유엔-에너지(UN-ENERGY)
- 유엔-해양(UN-OCEAN)
- 유엔-물(UN-WATER)
- 세계은행그룹(THE WORLD BANK GROUP)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더 많은 정보는 유엔통계국 지속가능발전목표 웹사이트 <http://unstats.un.org/sdgs/>를 방문하기 바란다.



“이 새로운 의제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리더들의 약속이다.

이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변혁적인 비전이다.

이는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제이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의제이다. 공유된 번영, 평화, 파트너십을 위한 의제이다.

이는 기후 조치의 긴급함을 전달한다.

이는 성평등과 모두의 권리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맹세이다.”

유엔 사무총장 반 기 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2016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인 강관석, 박상진, 이상은, 이재율, 최병일
발행일 2017.02
발행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편집인 신남균
디자인 청맥

Be the Partner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2별관
206호, 305호(기후변화교육센터)

전화 031-8008-4248 / **전송** 031-8008-4249

이메일 ggag@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ggag21.or.kr>

우리동네그린맵 <http://greenmap.kr>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A Better Future

Sustainability Report 9th



2016 지속가능성 보고서
(정기총회 자료 합본)

